



인 후 문화의 집

목차

I. 인후문화의집 소개	005
1. 인후(麟後)	006
2. 인후문화의집	008
3. 인후문화의집 개요	009
II. 인후문화의집이 걸어온 길	013
1. 연보	014
2. 인후문화의집 18년	020
III. 주요 활동	053
1. 기초문화·예술교육	054
2. 생활문화 동호회	064
3. 기획 사업	090
4. 작은도서관	134
5. 지역연계 네트워크 활동	142
6. 인후아카이브	150
IV. 사람들	187
V. Talk Talk 'with 인후,안녕'	223





인후문화의 집

I

인후문화의 집 소개

1. 인후(麟後)

인후(麟後)(기린린, 뒤후)는 한자의 뜻대로 기린봉의 북쪽에 위치한다는 의미로 '인후'라고 부르게 되었다. 본래 전주군 용진면 지역이었으며 1914년에 비단, 사천, 외명지 각 일부와 용진면 표석, 인후를 병합하여 이동면에 편입되었고 1940년에는 전주읍에 편입되어 일본식 명칭으로 인후정이 되었다가 1946년에 동명변경에 의해 인후동으로 개칭되었다.

인후동은 기린봉 산줄기를 따라 위치하기 때문에 기린봉과 인후동은 명칭뿐만 아니라 그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기린은 일반적으로 키가 큰 동물



을 일컫는 외에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젊은이를 가리키는 기린이라는 말에 인용되고 있으며 성군이 이 세상에 나올 전조로 나타난다는 상상의 동물을 뜻하기도 한다.

상서로움의 상징인 기린봉과 그 산줄기를 따라 함께하는 인후동에는 유일한 문화재 자료가 있는데 용화사의 석불입상이 그것이다. 이 석불은 고려말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용화사에 보존되어 있다. 석불의 오른쪽 귀가 훼손된 것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칼로 쳤다는 설이 있다.

기린봉 북쪽 자락에 있는 선린사의 오른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은 굴충목을 지나 석소리, 진버들을 향해 뻗어 내리다가 다시 솟구쳐 올라 도당산을 이룬다. 도당산은 다시 서남쪽을 향해 두 개의 산자락을 형성하고 있다. 하나는 무제등과 위브어울림아파트를 지나 심방죽, 큰모래내에 이르는 산줄기이고, 다른 산자락은 지금의 육지구를 향해 쪽 뻗어 내린 산줄기이다. 이 산자락은 생명고 뒷산을 지나 칼봉에 이르는 산줄기로, 끝자락은 전주KBS 자리이다. 인후동은 위에서 설명한 산줄기와 옛 작은모래내 다리에서 진발다리를 경계로 그 안쪽을 말하고 인후동의 이야기는 안골, 농원, 도덕골, 도마다리, 명지골, 방죽목, 비단리, 새터, 서낭댕이, 인후, 표석리, 하평, 함배미, 함죽배미, 팔죽배미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남아있다.¹⁾

1) 『전주시사』, 1997, 전주시

2. 인후문화의집

인후문화의집은 지역 중심가에 위치하면서 주민 누구나 쉽게 드나들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권 문화체험 공간이다. 1996년 국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조성되었으며 프랑스 문화의집, 스웨덴 민중의집, 일본 공민관, 독일 사회문화센터 등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국내 상황에 맞게 재설계하여 조성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하며, 더 나아가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거점으로 작용하며 지역문화의 구심점이자 핵심동력의 역할을 한다. 자율적이고 능동적 주체로서 적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문화가 발현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잊혀져가는 문화적 소재와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주민 간 상호교류를 이끌어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1) 사업권역의 지리 · 인구 특성

인후1·2·3동, 우아2동, 노송동의 원도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면적은 29.29km²로 전주시 전체 면적 206.22km²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동은 5개이며 총 216개 통에 약 89,663명이 살고 있다.

구분	면적	인구	세대수	행정구역
전주시	206.22km ²	666,548명	283,334	2구 35개동
인후동(3개동)	4.26km ²	62,532명	27,642	127통 741반
우아2동	22.931km ²	14,560명	7,437	37통 152반
노송동	2.1km ²	12,571명	6,331	52통 275반

(자료출처: 2020. 11. 현황, 전주시 홈페이지)

2) 문화기반환경

인후동 인근에는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다. 평생 학습관 1개관, 도시재생센터 1개관, 시립도서관 2개관, 작은도서관 6개관, 노인복지관 1개관, 문화의집 1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운영 중이며 생활권 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다. 각 기관들은 업무협약 방식과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활발한 문화 활동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인후문화의집 개요

1) 개관

2003년 11월 24일 문화의집 개관

2012년 10월 27일 작은도서관 개관

2015년 9월 19일 생활문화센터 개관

2)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건훤로 290, 2층

3) 활동권역 : 전주시 및 인후권역, 원도심 일부

4) 운영시간

주중 : 9시 30분 ~ 19시

주말 : 10시~17시

휴관 : 일요일 · 국경일 · 명절



안내데스크

- 마주침 공간
- 사업홍보와 문화활동 정보 제공
-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



문화창작실

- 공연, 체험, 상설프로그램운영
- 지역사회 네트워크 회의, 워크숍 진행
- 움직임이 많은 활동중심 수업 진행



정보사랑방

- 학습, 교육, 동호회 활동
- 소규모 강연 및 회의



작은도서관 쉼터

- 약 10,000여권의 도서를 보유
-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공동체 공간
- 전시, 나눔 장터, 체험, 교류, 독서동아리진행



열린공간

- 공연, 음악회, 소규모발표회 진행
-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연습공간
- 영화감상, 소규모 세미나 개최
- 방음이 필요한 활동에 활용

5) 공간구성

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 ▶ 2층 : 안내데스크, 문화창작실, 정보사랑방, 작은도서관, 쉼터, 사무실
- ▶ 지하 1층 : 열린공간

6) 로고

‘인후’라는 글자에 들어가는 ‘ㅇ’ 자음은 웃음기 가득한 눈을 표현하였고, 모음 ‘ㅣ, ㅏ’는 악보체, 바람체를 활용하여 즐겁고 행복한 느낌의 얼굴을 디자인하였다. 문화의집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의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7) 로고 디자인 작가 : 다현 이명주

현재 캘리그래피 · 수묵일러스트 작가로 활동 중이다. 나뭇잎체, 고목체, 바람체, 악보체 등 자신만의 서체를 직접 개발하며 캘리그래피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인후문화의집

II

인후문화의집이 걸어온 길

1. 연보

2003



05월 인후문화의집 개관

11월 제 1대 관장 이명연

2005

01월 제 3대 관장 홍성렬

03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08월 '전주시민을 위한 문화공연, 여인락'

2004

01월 인후문화의집 소위원회 구성

11월 제 2대 관장 김태균

12월 제 1회 안골어울마당 개최

2006

- 03월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천사들의 합창'
- 06월 계층별체험프로그램 '골목안자라는 꿈'
- 12월 전주시장상 수상

2007

- 06월 사회문화예술교육 '천사, 음악으로 하늘날자'
- 11월 '韓브랜드로 全州 바로보기'



2008

- 04월 제 4대 관장 김현갑
- 05월 생활학습권마을만들기 '인후동에 기린이 산다'
- 09월 특성화사업 '기린동네가족백서'
- 10월 전주시장상 수상

2009

06월 지용출 목판화전 '소리여행'

11월 특성화사업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소풍'

2010

05월 특성화사업 '명주골로 떠나는 가을소풍'

06월 찾아가는평생학습마을축제 '명주골이야기'

2011

04월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인후동 희망사다리 네트워크'

06월 전주아 · 태문화유산축제 '아시아 빌리지'

07월 평생학습마을만들기 국외연수(일본)

10월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동행, 이웃과 나'



2012

- 04월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인후동향수에 빠지다'
- 05월 시민문화예술교육 '문화로 행복한 우리 동네 한담 한담'
- 10월 인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개관



2014

- 03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꿈을 만드는 아이들'
- 10월 생활문화센터운영활성화사업문화장터 '감장'
- 11월 전주문화의집포럼 '전주의 생활문화 꽃피우다'

2013

- 02월 우리동네구석구석예술캠프 '골림 I, II'
- 05월 도심속의자연 '도시농부'
- 05월 시민문화예술교육 '인후동 희망목공소'

2015

- 05월 제 5대 관장 고미숙
- 07월 생화문화선진지 견학 '삼각산 재미난 마을, 광주대인시장'
- 08월 문화의집생활문화활동 문화장터 '깜장 I, II, III'
- 09월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관

2017

- 04월 지붕없는공연장
- 04월 생활문화활동지원 '1+3평, 막무가내 가드닝'
- 11월 청년기획프로젝트 '흥.청.망.청'
- 11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연구모임



2016

- 04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빛, 빛을 품다'
- 04월 지역특성화 '인후동 목공 조각단'
- 05월 생활문화활동지원 '몽상 space'

2020

- 05월 생활문화센터활성화 '인후 마중물 프로젝트'
- 05월 생활문화동호회활성화 '인후 서포터즈'
- 10월 메이커스 'With 인후, 안녕! 100인의 손수건'
- 12월 전주시장상 수상



2019

- 01월 지역연구조사 '인후살이 이야기'
- 05월 우리동네문화아카이브 '인후에서 추억을 나누다'
- 05월 생활문화센터활성화 '미디어아지트 In Who?'
- 10월 전주공예명인과함께하는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 인후'
- 10월 전라북도지사상 수상

2018

- 04월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일상의 재구성'
- 05월 생활문화동호회활성화 '찾아가는 생활문화 봄과 여름'
- 08월 인문활동가양성파견사업 '희곡 씨부리기'
- 10월 인문프로젝트사업 '인후2018 우리 동네 왜 왔니'

2. 인후문화의집 18년

2003년

11월 국민문화복지 정책사업으로 국비, 기금, 시비 등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1월 25일 인후문화의집 개관하였다. 인후1동사무소에 위치하여 체력진단실, 문화창작실, 정보사랑방, 멀티인터넷실, CD/AV감상실, 열린공간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였고 이명연 관장을 임명하였다.

2004년

1월 인후문화의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의집 운영전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도자기 체험학습에는 약 45명이 참여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2월 정월대보름맞이 지신밟기를 통해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3월 인후문화의집 특성화 사업 ‘안골사람들’ 자체소식지 격월간으로 발행하였다.

4월 ‘북크로싱 운동’에 약 2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 읽기(Read), 쓰기(Register), 양도(Release)등 ‘3R’을 모토로 하는 책 돌려보기 운동으로 책을 소개받아 읽고 주변사람에게 다시 소개하여 책이 여행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 또한 제1회 안골 어린이 독서왕 선발대회 약 100여명 참여하여 열기를 더했다. 가족을 위한 주말 기획프로그램 ‘토요 가족노래방’을 진행한다.

5월 제1회 어린이 프로그램 발표회에 약 70여명이 참여하였다. 개관 초기 어린이의 이용이 많았던 만큼 가족의 달을 맞아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주말은 엄마랑 아빠랑’과 청소년 직장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요테마극장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매월 선정된 테마로 구성된 영화를 무료 상영한다.

2003 - 2008

7월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가족문화체험 엄마랑 아빠랑'에 약 80명이 참여하였다.

8월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생활도자기체험교실'에 약 200명 참여하였다. 여름방학을 맞아 시외의 폐교 미술촌을 직접 찾아가서 가족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판소리'에 약 116명 참여하였다.

판소리를 배움으로써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고 전통가락을 익히기 위해 운영되었다. 문화의집 계층별체험프로그램 '유아레크레이션'은 취학 전 아동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올바른 놀이문화를 체험케 하여 정서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하였다.

11월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서해 최북단 백령도 역사기행'에 30명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최북단으로서 군사적 요충지이며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백령도의 중요성과 역사를 배우러 떠나는 역사기행이다.

12월 제1회 '안골어울마당'을 개최하였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진행하여 문화의집을 홍보하고 수강생들에게는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야생화 사진 전시회가 7일간 순회 전시된다.

2005년

1월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새해맞이 경주 역사기행'에 47명 참여하였다.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인 경주를 찾아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세계문화유산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의 의미를 학습한다. 시각장애인 용품전시회 및 시각장애인 체험, 수요시네마 테마극장을 지속 진행한다. 청소년을 위한 기획프로그램 '현악스트링 앙상블'단원을 모집한다.

2월 정월대보름 행사에 주민400여명 참여하였다. 전통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

에 풍물패의 지신뽕기와 지역주민들과 부럼까기, 이명주 나눠먹기 등을 함께 하였다.

3월 어린이를 위한 지역경제 기획프로그램 ‘재래시장에 장보러 가요’를 진행한다.

4월 토요 기획프로그램 ‘2005 전통문화체험’을 기획하였다.

5월 가정법률상담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고 제2회 어린이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었다.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어린이 과학 창의력 교실’에서는 과학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력 같은 잠재적인 능력의 개발에 도움을 주고 기본적인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생활도자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8월 전주지역 문화의집 공동기획 ‘전주 시민을 위한 문화공연, 여인락’에 1,000여명 참여하였다. 전주지역 문화의집이 개관한지 3~5년이 되면서 문화의집 위상과 역할, 전통문화중심도시 이미지 재고,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전주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기획하였다.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진도아리랑과 강강술래의 기원을 찾아서’에는 46명 참여하여 전통 민요와 전통놀이의 역사를 학습하고 진돗개의 역사와 유래를 찾아보는 문화기행을 진행하였다.

10월 2005년 평생학습기관 파트너십을 위한 주5일 근무제 대비 프로그램, ‘천년전주사랑 전통체험’에 330명 참여하여 전통문화 이미지를 가진 전주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제2회 안골어울마당’을 진행하였다.

11월 제1회 전주 평생학습한마당 참가에 참가하여 최우수상 수상하였다.

12월 안골 아카데미 개최하여 40여명 참여하였는데 ‘페이스페인팅’이란 주제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였다. 난치병어린이돕기 사랑콘서트 첫 번째 행사 모금액 3,819,250원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전주 북일초 ‘고○민’군에게 전달되었다. 연말 가족초청 행사 ‘가족사랑음악회 그 첫 번째’는 이후 문화의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선생님과 수강생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송년 가족 음악회이다.

2003 - 2008

2006년

1월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역 내 각 기관, 상가 등을 순회하며 지신밟기를 진행하였다. 문화의 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어린이 현악오케스트라'에 300여명 참여하였다. 스트링 앙상블 오케스트라는 프로그램의 형태에서 진화하여 '협연'의 형태를 구상하고 각각의 성취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 지역 봉사에 앞장서고자 한다.

3월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천사들의 합창'에 40여명 참여하였다. 어린이 창작 동요 수업으로 대중가요에 빠져 감성과 상상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많은 동요를 보급하여 EQ언어능력,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을 높이고 성악의 기본동작과 발성, 호흡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노랫말을 익혀 함께 부른다.

4월 찾아가는 풍남제 공연을 아중분수대공원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5월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그 두 번째의 모금액 8,002,700원은 장기능불능병 박○영 양에게 전달되었다.

6월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골목안 자라는 꿈'에 30여명의 어린이가 참석하여 미술가와 함께 3개 팀으로 구성하여 문화교류의 장을 연출한다. 아이들의 자라는 꿈들을 미술을 통해 접근하는 프로젝트사업이다.

9월 전주문화의집연합발표회&제2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축제속의 축제'가 진행된다. 전주시의 평생학습기관이 참여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 증진과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련된 행사이다.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그 세 번째에서는 모금액 6,418,000원과 헌혈증명서 18장을 김○연 어린이7이에게 전달하였다. 안골아카데미 강좌에는 50여명이 참여하여 '웃음치료'라는 주제로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웃음이 가져다주는 영향력과 웃음을 이용한 치료법을 통해 삶의 활력소가 되는 웃음의 값어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남원좌도농악 in 全州'를 통해 남원농악 전통과 판굿을 배우고 익혀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를 널리 보급한다.

10월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그 네 번째를 통해 모금액 4,747,110원과

18K반지 1개, 헌혈증명서 53장을 모아 뇌병변을 앓고 있는 김○현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안골 어울마당 그 세 번째’ 행사에 1,500여명 참여하였다.

12월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그 다섯 번째를 통한 모금액 6,111,150원을 폐종양을 앓고 있는 김○희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 전주시장 표창 제840호 수상하였다.

2007년

1월 인후공원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방학특강 ‘환경을 사랑하는 어린이의 재활용 창작교실’에는 20여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재활용 미술 문화체험 교실이 열렸다. 제1회 전국 문화의집 축제 ‘문화야 사랑해’가 전통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의 문화의집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생활기반이자 주민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관에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진행 및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예술교육 확산 및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2월 소외계층어린이와 함께하는 미술 프로젝트 ‘오감으로 놀자’는 감각자극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오감을 찾고, 사회적 접근과 삶의 긍정적 사고를 통한 공동체의식 확립을 목표로 한다. 전주시민 한소리 하기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써 온고을에 판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전주 시민이 단가인 호남가를 배워 도시 정체성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신명나게 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월 인후문화의집 특성화 사업 ‘가곡의 향기’는 우리가곡의 저변확대라는 이념에 따라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에서 음악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등 우리가곡을 포함한 한국음악이 국민의 대중정서 속에 되살아 움직일 그날을 기약하며 전개하였다. 사람의 몸이 악기인 성악을 학습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 및 생활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음악 감성 프로그램이다.

2003 - 2008

4월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그 여섯 번째를 통한 모금액 7,318,380과 현혈증서 60장은 림프종과 구강암을 앓고 있는 이○훈 어린이에게 전달되었다. 문화예술사회교육 '線形色의 조화로움, 전통한지공예'은 아름다운 우리 옛 문화를 살리는 온고지신의 정신을 전통한지공예를 널리 보급하여 이어가고자 함이다.

5월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그 일곱 번째를 통한 모금액 5,378,670원과 현혈증서 8장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유○현 어린이에게 전달되었다.

가정법률 열린강좌 '알아두면 힘이되는 가정법률'이라는 주제로 매 회차별 일상 속 필요한 법률지식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한다.

6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천사, 음樂으로 하늘날자! 아름다운 동요세상'은 음악을 매개로 장애인의 자아발견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또 다른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우리 노래'는 동요와 가요와 레크레이션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자기표현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난타로 꿈꾸는 세상'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타악난타 퍼포먼스를 접하면서 내면의 욕구를 표출하고 자신감, 표현력, 사회성의 발달을 유도하고 있다.

8월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인후문화의집 새생명하모니 토요일이마당에 4,000여명의 관객이 관람을 하였다.

9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나도 음악가 Making music together'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English Music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진행되었다.

10월 안골 어울마당 그 네 번째 행사는 전라초등학교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었다. 제2회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여인락'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그 여덟 번째를 통한 모금액 5,542,770원과 현혈증서 4장, 문화상품권 1장은 임파선암을 앓고 있는 이○주 어린이에게 전달되었다.

11월 '韓브랜드로 全州 바로보기'사업은 우리문화의 원류인 한브랜드가 전주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린다.

12월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그 아홉 번째를 통한 모금액 4,801,140원과 헌혈증서 184장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변○호 어린이에게 전달된다.

2008년

1월 '인후공원 무자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주대학교 누리사업단 인턴십 활용하여 지역문화조사 및 스토리텔링 개발한다.

2월 정월대보름행사 '인후동민과 함께하는 지신밟기'에는 145명 참여하였다. 2008 문화기행에 45명이 참석하였다. '국보1호 송례문 탐방&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이야기 속으로'는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송례문 방문 활동으로 이뤄진다. 소외계층어린이와 함께하는 미술 프로젝트 '오감으로 놀자'사업은 감각자극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오감을 찾고, 사회적 접근과 삶의 긍정적 사고를 통한 공동체의식 확립을 목표로 한다.

3월 천년전주 사자소학 프로젝트 '사자소학'과 천년전주 사자소학 프로젝트 '전통놀이'에 각 20여명의 아동이 참여하였다.

4월 2008 도민문화예술교육 '한스타일 사랑! 천년전주 한지사랑'은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며 우리의 옛 문화를 살리고자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인 전통한지공예를 배워본다.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풍물치는 기린'은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놀이로서의 국악을 이해하며 공동체성을 키운다.

5월 부모교육 '소중한 우리아이 날개달기'에 20여명 어른이 참여하였다.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 그 일곱 번째를 통해 모금액 5,378,670원과 헌혈증서 8장을 뇌종양을 앓고 있는 유○현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 생활학습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인후동에 기린이 산다'는 잊혀져 가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기억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공동체를 꾸리기 위한 취지의 작업이다.

6월 찾아가는 안골어울마당을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개최하였고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8월 1차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에 25여명의 일본 연수생이 참여하였다. 여름방

2008 - 2009

학특강 ‘비누 만들기’와 ‘동화구연’을 진행한다.

9월 전주 북일초등학교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안골 어울마당 그 다섯 번째 ‘인후동에 기린이 산다’에 지역주민 1,080여명이 참여하였다. 인후문화의집 특성화 사업 ‘기린동네 가족백서’는 인후동 지역 가족 이야기를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이 담긴 프로그램이다.

10월 문화의집 오픈하우스 및 직원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 전주 문화의집 포럼에 180여명 참석하여 전주권내 문화의집이 개관한지 8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하였다. 인후동 마을 지도 제작 및 배포하였다. 전주시민 한소리하기는 2009년 3월까지 진행된다.

2009년

1월 ‘인후공원 해맞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기린동네 가족백서’ 전시회가 한달간 진행된다. 방학을 이용하여 부모-자녀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자녀상담에 15명 참석하여 성격 검사를 통한 자녀상담을 진행하였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의집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140여명 참여하였다. 유아·초등학생 및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8개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전주대학교 누리사업단 인턴십 활용하여 지역문화조사 및 스토리텔링 개발한다. 생활학습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 콘텐츠 개발과 자발적인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2월 전주시민 한소리하기 발표회에서 전주시장상 한소리상 수상하였다. 문화기행 (파주영어마을-헤이리 아트밸리-유비파크)에 40여명 참여하였다. 결식아동돕기 모금액 지원대상으로 초등학생 2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품물, 신명나는 우리가락’에 2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품물굿의 의미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4월 2009 지용출의 목판화전 ‘소리여행’을 개최하였다. 전북을 대표하는 판화가의 판화작품 감상과 소장의 기회 마련한다. 전주문화의집 연합워크숍을 진행하였다.

5월 ‘찾아가는 안골어울마당’에 310여명이 참여하여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일환으로 제작된 인후동歌 ‘인후동이 최고야’를 최초 발표하였다.

7월 1차 농촌문화체험을 진안에서 진행하였다.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농촌문화체험과 자연에서 직접 생산한 친환경 음식을 섭취하면서 식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문화의집 특성화 사업으로 왜망실 지역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가치를 문화콘텐츠화하기 위한 지역조사와 인물중심 구술사 등을 조사하는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소풍’을 진행한다.

8월 2차 농촌문화체험을 진행하였다.

9월 주민과 함께하는 안골거리의 향연에 300여명 참여하였다. 안골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 전북 문화의집과 함께하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 놀이터를 공동기획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주민이 지역축제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꿔온 문화예술의 힘을 다 같이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장을 만든다. 문화의집 특성화 사업 ‘가족백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한다. 우리집의 역사와 문화, 생애사의 재발견을 통해 나의 뿌리를 찾아가고 우리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공연을 한다. 지역문화자원활용 문화예술교육 ‘기린동네 보물탐험대’는 인후동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마을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내가 사는 마을이 의미 있는 삶의 공간임을 발견하는 사업으로 30여명이 참가하였다.

11월 창작 판소리 ‘왜망실던’ 발표를 98명의 주민과 함께 진행하였다.

12월 문화의집 특성화사업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하모니’ 거리콘서트에 500여명이 참여하였다.

2010년

1월 '경인년 새해 해맞이 행사' 참여하였다. 1~2월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의집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3개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한다.

3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콘서트'를 진행한다. 도민 문화예술사회교육 '소리로 신명나는 기린동네'는 풍물굿의 의미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한다.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자연을 담은 천연의 세상'은 경화제와 방부제를 쓰지 않는 천연비누와 화장품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타악아 연희랑 놀자'는 타악 연희를 통해 아동과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성 증진과 자신감 향상을 도모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주 시민 한소리 하기 진행하였다.

6월 생활학습권 평생학습마을만들기 마을축제 '명주골 이야기'는 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인후·우아동 네트워크 기관 실무자들과 옛 지명을 바탕으로 축제를 열어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며 소속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의 하모니 '결식아동돕기 사랑콘서트'에 450여명 참여하여 결식아동들에게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2010 전북민족예술제 프린지 페스티벌에 '여인천하', '네잎클로버' 등 총3팀 출전 하여 '천둥소리' 팀 전주시의회 의장상 수상하였다.

7월 왜망실 마을축제 '여름, 함께해요'를 진행하였다. 무더위에 지친 인후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골거리의 향연에 200여명 참여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였다.

8월 문화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 사업 '童話하는 여자들의 同和이야기, 기린 동네 이야기 보따리 꿀깍'은 10여명의 엄마들이 인후동 지명 유래를 조사하고 지명에 얹힌 내용을 동극으로 만들어 거리 공연을 진행한다.

9월 사랑의하모니 '결식아동돕기 사랑콘서트'가 진행된다.

10월 시간을 넘는 소리 세대를 잇는 감동 '2010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인후문화

의집 청소년 아마추어 밴드 'VIVA팀' 출연한다. 전주시 평생학습한마당 '배움, 나눔, 그리고 함께'를 전주시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홍보·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문화로 유쾌! 상쾌! 통쾌!' 거리공연공연이 전북은행 앞에서 100여명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거리공연을 통해 그 동안의 기량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동아리 활동과 운영의 의미 찾아간다. 인후 1동 동민의 날 '안골 어울마당'에 500여명이 참여하였다. 지역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통해 인후동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완주 문화의집 축제에 전주문화의집 연합 참여한다. 특성화 사업 '창작판소리 명주골든'에 200여명 참여하였다. 인후동의 역사와 관련된 지역문화자원이 문화프로그램으로 생성되어 역사적인 경험과 공유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11월 동아리 네트워크 사업 '문화로 유쾌! 상쾌! 통쾌!' 워크숍에 50명이 참여하여 타 지역 우수 동아리 견학과 만남의 시간. 동아리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듣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동아리 모습 그리는 계기가 되었다. 타악 난타 페스티벌 개최함에 120여명 참여하였다.

12월 '문화로 유쾌! 상쾌! 통쾌!' 거리공연 을 웅달샘도서관에서 진행하였다. 80여명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동아리 활동과 운영의 의미 찾았다.

2011년

2월 인후동 '도마다리' 동화책을 수령하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문의를 받아 배포하였다. 인후동의 옛 지명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은 인후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찾는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컨텐츠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겨울방학 문화기행 '사갈&피카소의 감동을 만나다'에 43명이 참여하여 단순히 작품을 관람하는 차원이 아닌, 미술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를 즐기는 시민으로써 심미안적 삶을 추구하도록 추진하였다. 전주시민 한소리 하기 사업 진행한다.

4월 생활학습권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 '아름다운 인후동&우리 가족사진

공모전’ 전주문화의집 협회 설립하였다. 전주문화의집 다섯 빛깔 문화이야기 워크숍이 진행된다. 한옥마을예술공동체 상설공연 ‘풍류미락’ 공동주관 한다. 동아리 활성화 사업 ‘마을이야기와 함께 떠나는 同苦同樂’을 진행한다. 생활학습권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 ‘인후동 희망사다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네트워크 기관(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부, 도담지역아동센터, 동북초 등)간 협력체계 구축한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바느질 한뼘’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제품을 손수 만들어 사용하는 기쁨을 제공하고 공방 형식의 작은 동아리를 조직하여 배움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 ‘리틀큐레이터 소통의 즐거움’을 통해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나 일반 교육시설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

5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린이를 위한 사랑콘서트,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우리 주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생계의 역경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알리는 사랑의 희망메시지 전달한다.

6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린이를 위한 사랑콘서트 Ⅱ를 진행한다. 2011 전주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 축제 ‘아시아 빌리지’를 5개 문화의집과 함께 경기전 주차장에서 운영한다. 각 나라의 이주여성들과 인연을 맺고 함께 준비하며 다문화 식구 및 유학생들과 연계하여 음식, 놀이, 전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존을 형성하며 행사를 진행한다. 생활학습권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 ‘인후동 문화유산 공감’은 인후동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인후동 버스승강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지역 홍보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7월 전주문화의집 어깨동무 프로젝트 ‘다섯 빛깔 문화이야기, 왜망실의 날’은 왜망실의 가치와 문화적 자산을 이어가고자 ‘왜망실의 날’ 제정하였다.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희망플러스 워크숍’은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복지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벤치마킹 하고 지역문화와 복지에 대입하기

위해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10월 제6회 평생학습한마당 ‘배움, 나눔 그리고 함께’에는 80여개의 전주지역 평생학습기관과 단체, 동아리들이 참여하였다. 2011 뮤직파크 in 전주가 아중분수대에서 진행되었다. 전주 문화의집 포럼 ‘창의적인 시민의 삶과 문화의집’을 통해 주민주도의 생활 밀착형 문화형성이라는 문화의집 변별성을 명확히 하고, 그간 일궈낸 성과와 지역의 변화를 돌아보며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하였다.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 ‘동행, 이웃과 나’사업은 학교 차원의 의무적인 봉사활동,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진정성이 담긴 봉사활동의 그림을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 스스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11월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COP ‘동네가 키우는 아이들, 동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프로그램 기획에 앞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 할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창의력과 감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자들이 먼저 아이들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12월 생활학습권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 ‘인후동 희망사다리 네트워크, 동지마을 축제’에 4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세시풍속과 인후동만의 문화를 공감하고 어르신들에게 액운을 막는 동지 팔죽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연대감과 정체성을 발견하여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2012년

1월 2012 전주문화의집 사업 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각 문화의집별 핵심사업 및 공동 사업 소개, 기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한 가운데 확장·운영하고자 한다. 창의적 체험 토요프로그램은 공교육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예술의 다양한 영역에 접근하여 지역사회를 문화예술 교육의 장으로 확대시키고 불필요한 사교육비 절감하고자 진행한다.

2월 전주문화의집연합 대보름 행사에 500여명이 참여하였다. 전주시 5개 문화의집이 연합하여 지신밟기와 대동굿으로 전주시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대보름 행사를 진행하였다.

2009 - 2013

4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인후동, 향수에 빠지다’는 인후동 사람들을 테마로 한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예술자원 활용과 지역의 정체성 고양을 위한 문화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획되었다. 시민문화예술교육 ‘한땀 한땀 수놓는 나의 하루’는 자신의 능력을 방치해 두고 있는 여성의 재능을 밖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과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

5월 2012 전국문화의집축제 참여하여 바느질로 만들어진 작품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호응과 흥미를 유발하였다.

6월 동아리 지원사업 ‘천둥소리 남원농악 발표회’는 지역 내 동아리의 숨어있는 인재를 찾아내고 함께하는 배움 및 재능 발현의 장을 만드는 행사이다.

10월 제7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참여하였다. 전주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저변 확대와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한다. 인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개관식 ‘책으로 경작하는 인후동네’이 진행되었다.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커뮤니티 허브공간으로 운영되고자 한다.

2013년

1월 전주문화의집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월 3일우리동네 구석구석 예술캠프 구축사업 ‘더하고 나누는 도심 속의 예술캠프, 끌림 I’에 60여명이 참여하였다.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인후동네 공간들을 함께 돌아보며 인후동의 숨은 공간과 자원들을 발견해내고 그곳에 흔적을 남기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23일 우리동네 구석구석 예술캠프 구축사업 ‘더하고 나누는 도심 속의 예술캠프, 끌림 II’ 약 60여명 참여하였다. 참여자가 동네 주민을 데리고 와서 함께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돌아 본 곳들을 예술기법으로 표현해보고 더하고 나누는 예술캠프를 통해 인후동네를 브 랜드화하고 문화향유의 장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3월 문화기행 ‘팀버튼전’은 기발하고 다채로운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창

조하는 천재 감독 팀 버튼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팀 버튼을 만나고 그의 작품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4월 운영자 예술캠프 ‘설렁설렁 운동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도시농부’는 하가지구 시민공원, 매주 모임 후 자율적 텃밭관리로 10가족을 모집하여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5월 문화의집 특성화 사업 ‘다섯 빛깔 문화 이야기, 문화의집 전체 워크숍’에 20여명이 참여하였다. 문화의집 직원들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업무소진을 예방하고 문화의집 간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난치병 어린이돕기 사랑콘서트를 진행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인후동 희망목공소’는 삶 속에 축적된 내재된 귀한 재능을 고이 꺼내는 일을 시작으로 운영될 희망목공소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나와 내 가족, 나의 이웃을 돕는 일을 통해 마을 곳곳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동아리활성화 사업 ‘천둥소리 남원농악’은 풍물이라는 문화매개로 삶의 질을 높이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동아리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7월 인후문화의집 특성화 사업 ‘전주문화의집 시민문화축제, 뜻밖의 휴가’에는 시민 4,058명이 참여하였다. 전주문화의집 12년을 맞이하여 그간 문화의집을 통해 형성된 시민들의 문화예술역량의 전반을 보여 줄 수 있는 시민 주도형 문화 축제를 벌였다. 도서관 놀이티, 수요일엔 도서관에서 놀자! 는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책 놀이를 통해 흥미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9월 인후문화의집 특성화사업 ‘인후동네 작은 음악회’에는 460여명이 참여하였다. 지역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음악회를 통해 인후동민의 화합을 도모하며 그저 쉼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문화를 즐기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안락함을 주어 좀 더 발전된 자아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10월 사랑의 하모니 정기공연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해 거리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에게는 음악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희망과 아름다운 세상을 알리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

고자 진행되었다.

12월 수지에니어그램 자아 바라보기 ‘나.를.봄.니.다’는 20여명 참여하였으며 누구나 갖고 있는 자신만의 빛나는 내면의 보석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향, 성격, 기질, 강박, 회피, 사회유형, 적성, 타인과의 소통 기재를 도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로 나답게 살게 하는 힘과 길을 찾기 위해 진행되었다.

2014년

1월 2014 도서관 놀이터는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책놀이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며 참여자들의 재능을 발굴하여 동아리 형성 및 지속적인 재능 나눔 수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2월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하였다.

3월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문화 봉사자가 지역민과 함께 융화될 수 있는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 갈수록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시대에서 이웃의 삶과 자신의 이해함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이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을 만드는 아이들’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접목시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6월 2014 전주문화의집 워크숍 ‘자연으로 채우다’를 진행하였다. 문화의집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지금, 우리에게 캠핑’은 사라져가는 일상 생활문화 복원, 지속적인 생활문화 만들기의 밑거름으로 동네에서 즐기는 생활문화 공간 구축, 일상 속 이웃과 삶의 교류를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전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사업은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인 해적과 춘향을 수강생 및 문화의집 이용객 등 185명과 함께 관람하였다. 문화의집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우리는, 인후동 희망목수’는 희망목수들의 공익적인 시민문화예술 활동 시작과

기간 쌓아온 기술 습득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행동양식으로의 변화하는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7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진행한 문화기행 'Troika와 오르세미술관전'에 45여명이 참여하였다. 어르신문화나눔 봉사단사업 '문화공감연, 즐거운 물입! 행복한 상상!!'은 문화예술봉사단 결성을 통해 개인의 문화적 창작역량을 강화시킴으로 문화 자원 봉사자를 양성하고 문화의집과의 일상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8월 연극놀이 'Creative Drama'는 놀이와 즉흥을 통해 감정을 표현해 봄으로써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모색한다.

9월 제 9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은 동아리의 역량발휘 및 시민들에게 체험기회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사랑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한옥마을 공연'에 56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리의 것이 익숙한 어르신들의 몸짓과 소리가 한옥마을 거리를 찾은 시민과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10월 생활문화센터활성화 사업 '육교문화장터, 감장'에 2,000여명의 주민과 셀러 및 동호회가 참여하였다. 유희공간을 활용하고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문화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문화의집 특성화 사업 '찾아가는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는 지역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음악회를 통해 인후동민의 화합을 도모하며 문화를 즐기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안락함을 주어 좀 더 발전된 자아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11월 아동기획 특강 '개구리 샌드위치 만들기'에 30여명이 참여하여 문화의집은 늘 친구와 같은 편안하고 즐거운 곳임을 놀이로서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바느질 특강에는 80여명이 참여하여 연말 따뜻하고 즐거운 우리집 만들기. 바느질을 통한 쿠션과 에코백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다. 전주문화의집 포럼 '전주의 생활문화 꽃 피우다'에는 60여명 참여하여 전주시 문화의집 발전 및 지역주민 생활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전주시의 문화도시 지향에 대한 문화의집의 역할과 미래가치 인식의 계기 마련하였다. 만성질환자들에게 '사랑

2014 - 2020

의 성금' 전달, 갑장 수익금 및 사랑 콘서트 수익금을 사랑의 성금으로 전달하였다.

12월 한국 현대미술의 이해와 근대 또 한사람의 천재 화가 '이쾌대'의 작품세계를 알아보는 문화예술 특강 '현대 미술사'에 40여명 참석하였다.

2015년

1월 천 개의 그림 타일로 만드는 '세월호, 기억의 벽' 행사에 300명이 참여하였다.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아이들과 어른의 염원을 천개의 그림타일로 만들어 진도 팽목항에 기억의 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희망목공소'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나와 내 가족, 나의 이웃을 돕는 일을 통해 마을 곳곳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2월 도서관 놀이터사업은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책놀이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며 참여자들의 재능을 발굴하여 동아리 형성 및 지속적인 재능 나눔 수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3월 북아트 도서관 특강에 25명이 참여하였다. 우리 문화유산 알기 프로젝트로 경복궁을 북아트로 제작하면서 우리나라 궁궐의 이야기를 알아보았다.

4월 '주제별로 보는 그림책 이야기'로 아이와 감성 소통하세요는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그림책, 엄마가 꼭 알아야 하는 그림책 이야기를 통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였다. 생활문화잔치 '삼삼오오'에 7명이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 같이 작업한 가구들을 다문화 가정에 선물하였다.

5월 문화예술 특강 '한국 미술사'에 3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 궁궐이 상징하는 조선왕조의 이상과 위엄을 궁궐장식과 그림 및 조경에 접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6월 창의연극 ‘심향전’ 발표회는 창의연극 수업을 통해 준비해 온 연극 공연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을 초청,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아이들이 만들어낸 작은 공연을 매개로 지역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다. 문화의집 생활문화 활동 ‘인후동 희망목수’는 2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생활용품품을 만드는 기초목공 수업부터 시작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과 내재된 재능을 더해 배움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맛집프로젝트 ‘밥먹자’는 육아와 가정살림에 지친 엄마들, 혼자서 점심 먹기 싫은 이들을 모아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삶의 지혜와 스트레스를 나누는 치유의 시간으로 각각의 음식과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한다.

7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리얼 퍼커션 공연’에 80여명의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의집 사업을 알리고 작은도서관 홍보를 위한 음악회를 통해 우리 동네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센터로 기능을 한다. 42명의 주민과 뮤지컬 ‘춘향’ 관람,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 뮤지컬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의집 이용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였다. ‘광주 대인시장’ 선진지견학에 25명이 참여하였다.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광주 대인시장을 견학하여 우리지역에 알맞은 캄작장터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별 그림책 이야기 2’는 초등 3·4학년 대상으로 하는 독서능력향상프로젝트로 동화책을 주제별로 나누어 읽으면서 토론과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8월 생활문화선진지 견학 ‘삼각산 재미난 마을’에 20여명이 참여하여 마을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삶의 모습을 견학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문화의집 생활문화활동 ‘육교문화장터, 캄장’에 2,500명 참여하였다. 유희공간 육교를 활용한 생활문화 예술장터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용품, 체험, 공연, 먹거리 등을 통해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다.

9월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및 전시회 ‘춤추는 우리동네 생활문화’에 약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친근한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드나들며 소소한 이야기와 동아리 활동 등 새로운 문화

창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10월 전주문화의집 연합축제 ‘뜻밖의 휴가’에 4,500여명이 참여하였다. 전주문화의집 5곳이 연합하여 덕진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부스를 운영, 휴가의 아쉬움을 달래며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11월 ‘빼빼로 만들기&손편지 쓰기’는 국적불문의 빼빼로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아이들의 의미 없는 소비를 깨우쳐 주고 정성과 개성을 담은 초콜릿을 직접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손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섭 작가 초대 특강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도둑을 잡아라’의 저자 박정섭 작가를 초대하여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아이들이 동심의 세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캐릭터 만들기 등을 진행하면서 동화작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12월 창의연극 발표회 ‘홍부와 놀부’, 연극을 통해 초등생들이 스트레스 관리 및 올바른 감정표현을 배우고 역할극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며 가족과 지역주민들을 초대, 연극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자 하였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만들기’에 45명이 참여하였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만들면서 사회의 한구성원인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풍당 그림책 ‘사랑 그리고 나눔’ 행사는 사랑 그리고 나눔을 주제로 선물용 소품을 준비하였다. 영유아 친구들을 초대하여 사랑의 선물 나누기, 개인기 자랑하기 등을 하면서 서먹했던 이웃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온정의 손길을 나눈다. 바이올린 연주회는 열린공간에서 이뤄진 프로그램별 자체음악회로 수강생의 자존감을 높이고 문화의집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려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감장 기부금 202,000원은 인후동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되었다.

2016년

1월 '스스로 독서교실 1차, 2차'를 준비하여 방학 시간을 이용하여 초등학교생들의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문화의집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영화관람, 요리활동, 윷놀이 등을 진행함으로써 마땅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더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2월 졸업시즌에 맞춰 '꽃다발 만들기' 특강을 진행하였다.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하면서 서로에게 힘들었던 감정을 꽃을 통해 해소하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였다.

3월 인문학특강 '조선후기의 멋과 아름다움'에 25명이 참여하였다. 지역의 예술가에게 듣는 우리나라 조선의 멋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4월 하모니카 동호회가 준비한 '하모니카 작은 연주회'는 지역주민과 지인들을 초청하여 주말 문화로 행복한 여가를 나누고 자신들의 성장하는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뮤지컬 '성춘향' 관람에 42명이 참여하였다.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빛, 빛을 품다'는 다양한 소재와의 제약 없는 결합,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한 콘텐츠인 미디어아트와 사진수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발상의 전환을 꾀한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인후동 목공 조각단'은 목공 기본 기술을 배우고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목공품을 기부하면서 이웃과 공존하는 삶을 모색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부처간협력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지락 꿈지락'은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연 친화적 특성을 지닌 흙을 다루는 도예 수업을 통해 다양한 생활소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5월 독서문화프로그램 '동화랑 요리랑'에 80명이 참여하였다.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주제의 책을 읽고 그와 관련한 요리활동을 통해 아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사고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킨다. 문화의집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몽상 space'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활동으로 문화 소외지역 주민

들의 문화감성지수를 향상시키고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진행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확산하고자 한다.

8월 '꾸밈이 있는 네일아트'에 15명이 참여하였다. 주부들의 다소 투박한 손이 삶의 무게를 보여주지만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듯 고생 많은 손과 자신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꾸며보았다. 대한민국 생활축제 '소주, 생활문화시장으로 소풍가다'에 2,000여명이 참여하였다. 전주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활동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학술세미나,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함께 생활문화를 보고 즐기며 배우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었다. 생활문화 학술세미나 '문화가 있는 삶, 전주로 통하다'에 70여명 이상 참여하여 새로운 문화 활동인 생활문화에 관한 이해와 공유의 장이 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 'Creative Magic Show'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을 문화의집 공간으로 이끌어 무더위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갖게 하였다.

10월 아빠와 함께하는 '도예체험'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흙으로 빚어내는 둘만의 예술체험으로 숨씨도 뿜내고 서로를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동네방네 인문학특강 '가족의 스토리로 사랑의 탱크를 채워라'는 진화심리학을 기반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한다. '제6회 천년전주천년사랑축제'에 1,0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였다. 지역사회의 자랑인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 정신 실천하고 주민들의 힘을 모아 돕고 사는 사람 냄새나는 전주를 만들고자 한다.

11월 '고추장만들기'는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고 싶은 주부들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 양념 고추장 만들기부터 시작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논의의 장이 되었다. 아동보육시설인 삼성휴면빌과 문화촌 어르신을 찾아가 '몽상 space'사업을 진행하였다. 나와 우리들의 사용공간을 생각하고 그려보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문화감성지수 향상에 기여하였다.

12월 '가족시계 만들기'특강과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특강이 진행되었다. 들썩

들씩 예술제에 110여명이 참여하였다.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시간이 되었다. 작은도서관을 10,375여명이 이용하였다. 독서인구 확대를 책 읽는 마을 조성 및 지역의 쉼터이자 커뮤니티 센터 독서활동, 체험, 교육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월 ‘스스로 독서교실’은 방학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영화관람, 토론, 종이접기, 글쓰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친해지고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2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진행한 정월대보름 행사에 500여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 행사를 재현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준비하였다.

3월 무료특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문화향유기회 확대하였다.

4월 사랑의 ‘풋크림 만들기’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직접 제작하여 선물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지붕없는 공연장’은 지역의 유휴공간인 아중호수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매주 토요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의집 생활문화활동지원사업 ‘1+3평, 가드닝’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일상의 재해석’은 회화, 사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 곳곳을 돌아보고 스토리를 수집하고 콜라주기법을 활용한 작품제작 및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꿈다락 문화학교 ‘빛, 빛을 품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보잉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한다. 지역문화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역문화발굴 및 활성화 사업 추진한다.

5월 ‘메밀군 인형뜨기’는 4.23 책의 날을 맞아 드라마 원작 소설 ‘도깨비’를 읽

2014 - 2020

고 독후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하모니카 작은 음악회’에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지역주민과 인후하모 동호회원들이 함께하는 연주회이다. ‘춤추는 우리 동네 생활문화’는 생활문화동호회 의 공연과 체험 활동이 이뤄지는 마을 축제다. ‘다문화 체험교육’에 30여명의 아동을 모집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유·초등교육 필리핀, 중국, 몽골, 우즈베크, 베트남, 일본, 러시아 7개국을 총 8회차 진행한다.

6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에 200여명이 참여하였다. 지역주민들 곁으로 찾아가 문화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통해 주민 간 소통 및 문화향유의 기회가 된다. 인후1동&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용달샘 작은도서관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내 6개 작은도서관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7월 ‘어르신 낭독산책’은 지역의 자원봉사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연계하여 장기 요양중인 병원환자들에게 책 읽어주는 프로젝트다.

8월 청년기획 프로젝트 ‘흥.청.망.청’은 청년문화예술기획자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청년생활문화동호회를 조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문화주체로 성장하고자 한다.

9월 바늘로 그리는 세상 ‘쪽매숨씨’에 30여명이 참여하였다. 도서 ‘쪽매’를 읽고 조각천을 활용하여 생활소품 만들기를 한다. ‘평생학습한마당’에 문화의집 목공 동호회원들이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생활문화 체험을 하였다.

10월 ‘문화의집 open house’에 지역민 150여명이 참여하였다. 인후문화의집 프로그램과 동호회 활동에 기간동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둠으로써 문화예술활동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들썩들썩 예술제’에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시민과 인후문화의집 동호회원들이 함께 펼치는 문화공연이다. ‘인후1동 동민애날’은 지역자생단체들과 주민센터, 문화의집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축제다.

11월 ‘꿈다락 문화학교 연구모임’의 문화예술사레강의를 통해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단체의 역량 강화를 꾀한다. ‘리본으로 만드는 코사지’특강은 리본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본다.

12월 '제3회 바이올린 정기연주회'에 50여명이 참여하였다. 지인, 가족, 친구 등을 초청하여 서로의 정을 나누고 응원하는 시간이었다. 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찾아가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함께해요 빨간 코'는 요양병원을 찾아가 수공예 동호회가 정성들여 뜬 목도리 나눔과 공연행사로 사랑을 전달하였다.

2018년

1월 '스스로 독서교실'은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아이들 연령에 맞는 필독서를 선정하여 책을 가까이하고 만화 등 편독의 습관을 벗어나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해 준비한 방학특강이다. 무심코 버려지는 물건을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재활용품을 만들어 보고 아껴 쓰는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해 '재활용 필통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독서를 통해 활동소재를 찾고 게임, 풍선, 동물, 사물 등 다양한 형태의 것들로 만들어 보는 아이디어 활동놀이로 '풍선동화'를 진행하였다. 설을 맞이하여 연하장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꾸며보고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복을 기원하는 연하장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보았다. '독서 골든벨'을 통해 즐겁게 책을 읽고 흥미를 갖고 성취감을 고취시킬수 있는 활동이 되었다.

2월 '지붕없는 문화장터'에 126여명이 참여하였다. 지붕 없는 문화프로젝트를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의 공예 체험을 통해 전주 핸드메이드 시티 조성을 위한 저변 확대와 전주의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특별시의 기반 조성하기 위한 5개 문화의집이 연계사업이다.

3월 '카빙,우드스폰'은 'Makers 인후'를 만들기 위한 핸드메이드 프로그램 체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향유 기회 제공함으로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제 22회 설·대보름맞이 전통문화축전의 일환으로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진행한 정월대보름 행사에 490여명이 참여하였다.

4월 뜨개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통해 여자로서 삶을 주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인형뜨기'에 30여명이 참여하였고

2014 - 2020

총 3회 진행하였다. 복합문화지구 누에(Nu-e)와 전주 인후문화의집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빨간 우체통아 놀자’는 우표의 의미와 우체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체부 아저씨의 노고로 전달되기까지의 편지의 전달 과정을 알아보고 대상을 정해 편지를 쓰고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다. 지역문화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문화 발굴 및 지역문화인력 고용을 창출한다. 문화의집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1+3평, 막무가내 가드닝 in 마을’은 인후동 희망목수와 연계하여 도심의 유희지라고 할 수 있는 테라스, 벽면, 옥상 등을 활용한 가드닝 교육을 진행한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일상의 재구성’은 회화와 사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후동 지역 곳곳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후동 지역 곳곳을 돌아보고 스토리를 수집, 콜라주기법을 활용하여 작품 제작 및 전시를 준비한다.

5월 펠트로 바느질하고 붙이는 작업을 거쳐 정성 가득 카네이션을 만들어보고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를 진행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클래식 기타와 함께하는 지구촌 음악여행’은 스토리가 더해진 클래식 연주를 감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취미활동과 자기 계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재미나게 사는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여유를 제공한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동네 생활문화의 봄과 여름’에 580여명 참여하였다.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 프리마켓팀이 협업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되며 마중길, 아중호수에서 진행되었다

6월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동장’이 배치되었다. ‘나는 Cook King’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요리를 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찾아가는 생활문화 ‘즐거운 물입, 행복한 상상’에 400여명이 참여하였다. 생활문화동호회의 재능 나눔 공연 및 체험을 통해 소외된 지역주민들과 문화로 행복한 시간, 우리 동네 만들어 가기 위해 총 3회 진행되었다. 전주문화의집 직원역량강화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지역문화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문화 발굴 및 지역문화인력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된다.

7월 어르신 낭독산책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책 읽어드

리기,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한다. 지붕 없는 공연장에 600여명이 참여하였다. '엄마 나랑 책놀이 해요'는 유아와 엄마가 함께하는 책놀이 활동으로 동화책을 읽고 유아와 엄마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한 활동이 이뤄진다.

8월 수상한 김치통과 함께하는 '북노리 쿡노리'와 영화감상과 영화원리를 통한 '영화 읽기'를 통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한다. 목재문화진흥회와 함께하는 '인후문화의집 성인 목공 체험교실'을 4주 과정으로 차근차근 목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난이도를 단계별로 높여가며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문활동가양성과건사업 '희곡 씨부리기는 실버&청년 낭독회로 약 10여명이 참여하여 희곡낭독을 통한 독서토론, 글쓰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인문활동가양성과건사업 '인후살이 몇 헨가요?'는 지역의 유래, 지명, 설화 등 지역의 이야기를 조사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여 지역의 원주민, 이주민이 지역을 더 잘 알고 지역구성원으로서 자부심 고취 및 화합과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의 삶의 공간인 골목길과 주민의 이야기를 사진과 회화, 슬라이드 영상으로 제작하는 인문프로젝트사업 '인후 2018 우리 동네 왜 왔니?'를 통하여 통합 전시를 진행하여 지역의 이해를 높인다.

9월 체험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생활상식 및 방향제 첨가물의 유해성 알기 등을 통한 나만의 향수 만들기과 조각보를 활용한 케이프 스카프 만들기, 프랑스자수 배우기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에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지역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소외된 사람 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나눔을 실현하며 아중호수에서 진행되었다. '평생학습한마당' 체험부스 운영 및 프로그램홍보를 위하여 캘리그래피와 한코두코 동호회가 참여하였다. 광명에서 진행된 전국생활문화축제에 참여하였다.

10월 들썩들썩예술제에 340여명이 참여하였다. 문화의집 프로그램 및 동호회 회원들이 지역의 유희공간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지역주민들과 나누고 즐기는 축제다. '바느질 수다' 책을 읽고 수다를 떨면서 서로의 마음도 나누고 퀼트로 애장품인 가방도 만들어 보았다. 광목천을 활용하여 전통문양을 입히는 개성 있는 테이블 매트 만들기+인문교육을 병행하였다. 문화의집 Open house '뜻밖의 휴가'는 문화의집 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홍보

2014 - 2020

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무료 공개 참관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요리의 즐거움과 조리과정 주의사항까지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엄마와 함께하는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요리는 즐거워 ‘빠네 까르보나라 떡볶이’와 책 보수가 직업인 ‘를리외르 아저씨’를 읽고 직접 책을 보수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11월 삶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가꾸는 시 쓰기를 통해 진짜 시란 무엇이며 내 삶이 드러나는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서로 다른 삶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12월 동호회 작품전시회에 약 540여명이 참여하였다. 서학아트스페이스와 인후동 거리에서 펼쳐진 전시회를 통해 프로그램과 동호회, 기획사업 참여자들이 함께 한 해 동안의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2019 새해를 맞아 우리의 전통한복을 활용한 복된 향기 가득한 방향제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1월 인후1동민과 함께하는 인후공원 해맞이 행사의 문화공연을 준비하였다. 전주 온고을 역사와 지명이야기를 통해 인후동의 역사와 지명에 대해 알아보고 탐방하였다. 2019 전주문화의집과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장터 ‘꿀돼지 장터’에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여하여 문화공연과 수공예 체험을 함께 했다.

2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의 하나인 정월대보름 재현 행사에 전주시민 500여명이 참여하였다. 봄맞이 테이블매트 만들기과 나는 Cook King 등 방학을 활용하여 초등학생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에 맞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월 ‘다문화체험의 날’에 70여명이 참여하여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알아보기 위한 전통의상 입어보기, 음식, 전통놀이 체험 등을 총 4회차 진행하였다. 매직 쏘잉에 참여할 주민 40여명을 모집하였다.

4월 프랑스자수를 배우고 광목천을 활용하여 책갈피를 만들고 책을 담은 스트

링파우치를 제작하였다. 지역문화인력양성 파견사업을 통해 인력배치 및 활용한다.

5월 '신나는 예술여행, 달콤한 나의 집'은 대국민 문화향유 증진사업 '신나는 예술 여행'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연극 공연으로 주민 200여명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권역별 아동청소년 소통프로그램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은 지역주민자치와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자 기획되었다. 지역무형문화재 '방화선 명인'과 함께 부채 만들기 체험에 40여명의 아동이 참여하였다. 생활문화센터은 영활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 '미디어아지트 In who?'는 영상, 편집교육을 통해 인후문화의집의 역할과 생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위해 청년과 주민이 참여하였다.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우리를 생각해 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청소년의 미래를 디자인 하기위한 '책 친구'사업이 진행된다. 따로 또 같이, 우리동네 문화 아카이브 '인후에서 추억을 나누다'는 인후동의 사람, 물건, 이야기 등의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찾고 과거의 모습을 현재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인후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어 내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6월 지역 수공예활동가들과 주민들 간 지속적인 생활문화활동 전개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천연발효식초&밀크티 만들기, 가죽클러치 만들기, 책가방 에코백 꾸미기를 진행한다. '안골콘서트'에 주민 5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인후동 상가변영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센터, 인후문화의집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문화공연과 장기자랑을 통해 화합한다. 동네생활문화 매개프로그램 '뚝딱! 뚝딱! 인후목공제작소'는 지역공방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재미공방과 함께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역문화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전개한다.

7월 인문활동 '시인의 서재'는 전주지역 작가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 낭독, 글쓰기 등을 통해 글쓰기의 즐거움 알고 작가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한여름 2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문화의집 포토존을 만들었다. 아이들의 상상과 동화책 표지, 영화 속 장면을 활용해 포토존을 만들어 모두가 사진 찍고 놀다 가고 싶은 문화의집을 만든다. 시원하고 개성 넘치는 귀걸이를 만들어 보고 여름 패셔니스타에 도전해보는 수공예 활동 기회 제공한다. 지역문화인력프로젝트 지원사업

2014 - 2020

‘연극&뮤지컬 하자’는 주민들과 함께 연극과 뮤지컬 활동을 해보면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8월 여름방학과 휴가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버려지는 휴지심을 활용하여 펠트로 필통을 만들어 봄으로써 리사이클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원을 아끼고 소중히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본다. 여드름 피부에 좋은 천연비누와 한참 극성인 벌레로부터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버물리를 만들어 건강한 여름을 지내도록 기획되었다. 방학동안 더위에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아이스링크장에서 스케이팅을 즐기며 또래 간 소통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이 되었다. 방학을 좀 더 색다르고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 스스로 놀거리를 창작할 수 있도록하여 뽑기놀이, 의상체험, 뽀에로 인형 색칠 등 활동이 이뤄졌다. 작은 음악회 ‘인후 낭만 주의보’는 시민들과 한여름의 낭만을 즐기고자 기획한 작은 음악회로 동호회 및 문화예술 활동가, 지역주민, 이용객들을 초청하고 디저트 만들기, 뽕소를 마시며 재즈공연을 즐기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다. 찾아가는 생활문화 ‘오감만족선물’에는 420여명이 참여하였다.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곳곳에서 생활문화동호회와 공연 및 체험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문화나눔 실현 및 동호회의 지역 내 활동기회 제공하였다. ‘평생학습한마당’ 행사에 문화의집이 연합하여 참여하였다.

10월 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 인후’는 인후공원내 시사재에서 진행되었으며 3,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 전주무형문화재 명인과 생활문화의 달인, 수공예 체험부스 운영, 공연 등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 ‘수작(手作)’의 가치와 이를 통한 문화 나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찾아가는 문화나눔’은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수공예 체험을 즐기며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소외자 없이 누구라도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나눔으로 진행된다. 문화의집 성과공유회에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주민들을 초청하여 한 해 동안 문화의 집 활동 현황을 알리고 수강생 및 동호회 회원 간 교류를 통한 생활문화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전국문화의집 축제 ‘슬기로운 불편생활’을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하였다.

11월 올바른 가치관의 뼈대를 만드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고전을 접하면서 시대상을 알고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 갖기 위해 '고전단편읽기'를 진행하였다.

12월 들썩들썩 예술제에 150여명이 참여하였다. 동호회원들이 기획하고 준비하였으며 공연과 소규모 장터를 열어 동호회 교류의 장이 되었다. 전주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의집의 발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가 이뤄졌다.

2020년

1월 '떡국 먹go 나이 먹go'는 퇴색하고 있는 설날의 의미를 찾고 먹었던 음식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의 전통을 찾고자 하였다. 방학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펠트액자' 만들며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추억을 되돌아보고 펠트를 오리고 붙이는 활동을 통해 창의력 키우는 놀이활동을 진행하였다.

2월 코로나19 상황이 심화되어 2월 10일부터 별도 통보일까지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

5월 전주시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기본 지침으로 해서 5월 20일에 재개관하였다. 생활문화센터운영활성화 사업 '인후마중물 프로젝트'는 업사이클링 예술활동 교육 '잠자는 아트 깨우기'와 주민문화기획자 양성교육 '인후문화의집 서포터즈' 두가지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6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덥고 습한 여름이 불편한 상황에서 햇빛도 차단하고 더위에 대비하고자 '바람 솔솔 부채'를 만들어 보았다. 슬기로운 집밥생활을 위한 '자수러너 만들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문화가 점점 줄어들고 집밥 생활이 늘어나는 요즘, 예쁜 그릇과 정갈한 식탁보를 활용하여 슬기롭게 이겨내고자 기획하였다.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인후 메이커스 프로젝트'는 문화예술 협의체 구축 및 지역주민과 동호회 등의 협업을 통해 꾸준한 생활문화활동 전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코로나 상황 속 운영현황 및 향후 사업 계획을 논의 하였다.

7월 전주문화의집 직원역량강화워크숍이 팔복예술공장에서 5개 문화의집 직원

2014 - 2020

들이 모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교육 '고무신 신고 폴짝!'이 총 2회 진행하였다.

8월 전주시 '희망일자리 인력배치'로 1명의 인력이 3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었다. '원리를 배우는 놀이과학'은 여름방학을 맞아 원리를 깨치면서 배우는 놀이를 통해 과학을 흥미롭게 접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18일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별도 안내시까지 운영 임시 폐쇄에 들어갔다.

9월 비대면활동 '마음만은 벌써 한가위 송편 만들기' KIT를 배포에 주민 70여명 참여하였다. 가족간의 모임조차 자제해야하는 초유의 상황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한가위를 맞는 가족들을 위해 송편을 빚으면서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10월 11일 재개관 하여 19일부터 프로그램 이용을 시작 하였다. '메이커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동호회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고충 처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내부 점검을 실시하였다. 비대면 활동 '손끝에서 피어나는 보석십자수'와 손바느질을 활용한 코튼돌 만들기'를 통해 일상의 만남은 어렵지만 문화의집은 항상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아보고자 시간을 갖는다. 인후 특성화 사업 Makers 인후 'With 인후, 안녕! 100인의 손수건'에 100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과 개선 의견을 나누기 위해 펼쳐진 프로젝트이다.

'인후 마중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튜브를 통해 영상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11월 '인후 메이커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리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30일부터 지역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운영 임시 폐쇄로 전환되었다.

12월 '패브릭 가랜더 만들기 (KIT)'에 50여명이 참여하였다. 지속되는 방역 2.5 단계로 이동과 만남이 어려운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2021 새해를 맞는 서로의 소원과 버킷리스트 등을 담은 가랜더 키트를 제공하였다.



이해관계자진



주요 활동

1. 기초문화 · 예술교육

문화의 향유자에서 주민기획자로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다

인후문화의집과 기초문화 ·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문화 창작 활동 증대를 목적으로 2003년 인후문화의집이 전주시 5개 문화의집 중 가장 마지막에 개관을 했다. 1996년 국민 문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의집을 매개로 기초문화를 확산하여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했다.

2000년대 개관 초기 전주시에 문화예술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부족했고, 안정적인 삶과 더불어 대중문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으며 창의력을 중시하는 교육풍토까지 더해져 시작부터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50여종의 프로그램, 다량의 도서 비치 및 대여, 비디오방(비디오테이프, CD비치)에서의 무료영화감상, 10여대의 공용컴퓨터 비치로 편리한 정보검색까지,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춘 신개념 복합 문화 활동 공간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지에서 가깝고, 저렴한 수강료, 쾌적한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으로, 지역민의 문화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후문화의집은 문화향유 및 활동의 최적지로 급부상했다. TV나 공연장에서 즐기던 향유의 문화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고 예술적 감성을 키워가는 참여형 문화로의 발판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 이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문화센터를 오픈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 강화되면서 상설프로그램의 감소추세가 나타났다. 2012년 공립작은도서관 유치로 시설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더욱 세련된 공간 구성과 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2015년 생활문화센터 개관으로 기능을 확대, 강화하면서 이용자는 다시 늘어났다.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개발, 주민제안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의 변화를 주었고, 주민기획자를 꾸준히 양성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특강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 주체적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물꼬를 터 주었다. 또한 신규동호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의 재능 나눔 활동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참여자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함께 하는 주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다방면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인후문화의집은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문화를 새롭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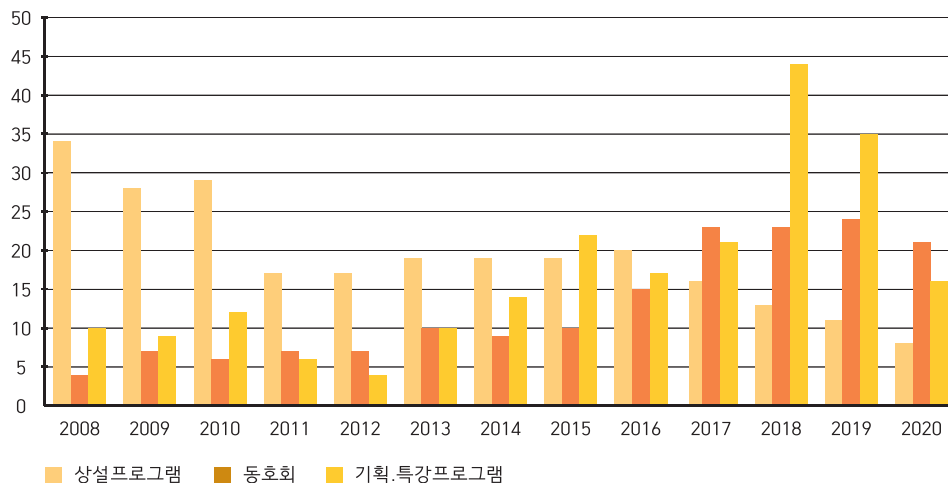
인후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인후동 안골네거리를 중심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주택가와 변화가 조성된 인후문화의집은 2003년 개관초기부터 기초 문화 확산을 위한 상설프로그램이 주로 개설되었다. 공간적으로 주거지에서 가깝고, 편리한 교통, 저렴한 수강료는 이용객들이 부담 없이 취미활동을 하며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전문예술인들의 문화의집 강사 기피, 사업비부족, 강의실 공간협소 등으로 문화수요가 공급을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참여자들이 많았었다. 그럼 지역민들에게 어떤 문화프로그램들이 제공되었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활동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인후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운영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았다. 통계자료는 연도별 결산서와 운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아쉽게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보관된 자료가 없어 운영현황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보도자료나 행사관련 리플렛 자료들을 조사하여 유추해볼 때 2008년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프로그램운영과 참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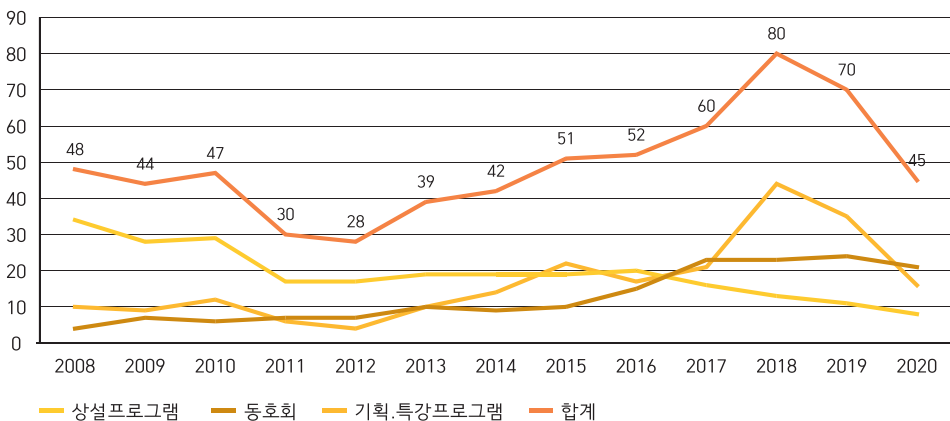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변동추이를 상설, 동호회, 기획특강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기간별 두드러진 변화요인으로는 먼저 3년마다 재 수탁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점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했고 변화된 부분이 사업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변화를 들 수 있고 셋째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 수강생들의 실력향상정도, 문화예술의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화해왔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초문화 확산을 주안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상설프로그램의 음악, 미술, 어학분야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프로그램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예술교육부분에 대한 보완과 창의력 발달에, 성인들은 여가활동으로 취미도 살리고 자기개발을 위한 참여가 많아 보인다. 음악분야 특히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등은 세미프로 수준의 실력을 보이는 수강생들도 있었으며 안골 어울마당, 동민의날 등 지역행사나 프로그램발표회, 소규모음악회 등에 참여하며 지역민들과의 문화교류를 시작하는 단계로 보인다.

운영프로그램 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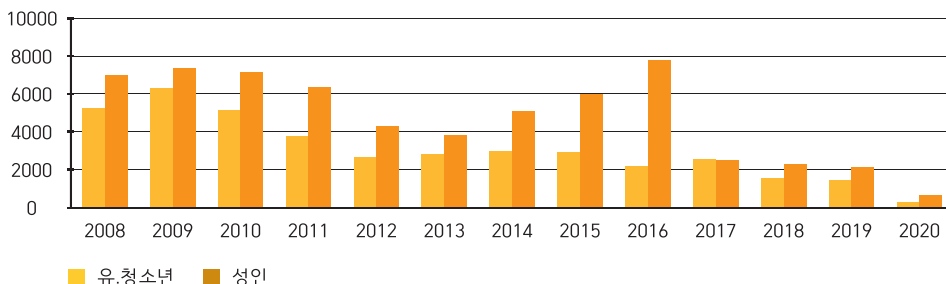
2011년부터 2013년은 인후문화의집의 정체기로 사업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상설프로그램을 통해 상당 기간 문화에 노출되고 수강과 중단을 반복한 이용객들은 새로운 문화를 찾기 시작했다. 또한 일부는 기초적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문가 과정을 위해서, 삼삼오오 동호회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향전환을 시도했다. 주변에 대형마트 문화센터가 문을 열어 경쟁이 되기 시작했고, 평생학습센터, 도서관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사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학교 또한 방과 후 교육을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설프로그램들이 하향세를 이루었다.

2014년부터 2016년은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여 기존 상설프로그램보다는 동호회를 조직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주체적 문화 활동가로 성장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문화욕구를 채워주고 특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험적 창작활동을 시도했다.

2017년부터 2019년은 그간의 인후문화의집 운영전략과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수강생들의 성장으로 동호회가 전년대비 두 배수 이상 조직되었고 문화의집을 매개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상설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요즘트렌트에 맞는 기획특강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여 참여자를 증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문화소비자와 동시에 생산자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다수의 주민기획자를 양성해냈다. 지역주민, 수강생, 동호회원들과 성과공유회, 예술제, 문화장터, 마을축제, 전시회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면서 참여자들과 인후문화의집은 함께 성장하며 더욱 풍성한 지역문화를 창출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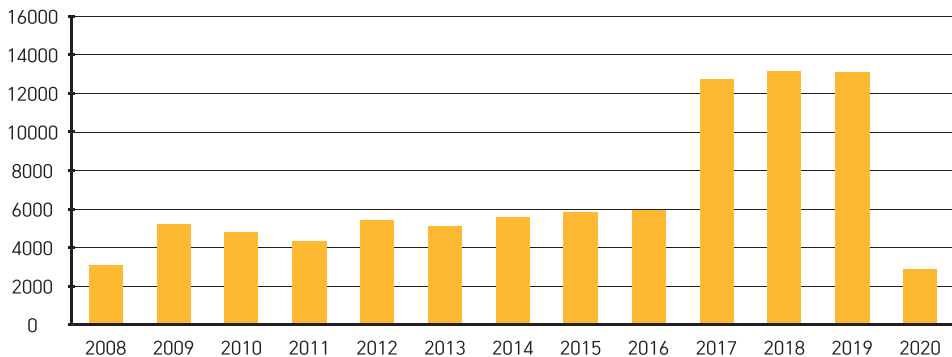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팬데믹상황(COVID-19)으로 문화 활동의 맥이 끊긴 한해였다. 공공문화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잦은 휴관을 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운영중단, 폐강, 동호회활동중단, 지역축제가 모조리 취소되는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운영, 키트를 통한 수공예활동, 화상회의, 동영상교육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을 실험해보는 변화의 한 해이기도 했다.

상설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다음은 기초문화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상설프로그램, 동호회, 기획특강프로그램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설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이다. 통계자료에 나타난 2008년 34개의 프로그램에 12,000여명의 지역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했다. 성인 57%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43%의 비율로 비교적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문화를 향유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부터는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청소년의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성인들은 10여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수강생들과 동호회를 조직하여 전문 강사를 통한 단순교육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주체적 문화 활동가로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 2017년 성인 참여자의 급격한 감소는 프로그램이 동호회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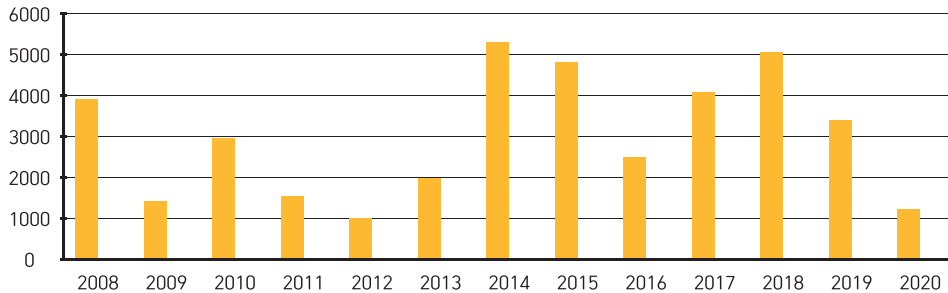
동호회 참여자 현황



개관 초기부터 2010년까지는 동호회조직 및 활동이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전문예술인들의 영역이라는 인식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 중 지역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꾸준함으로 성장한 수강생들은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쌓게 되었고 끈끈함으로 삼삼오오 모여 동호회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동호회 활성화 사업추진전략에 따라 프로그램의 동호회전환, 네트워크구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역사회 재능 나눔 등을 활발히 펼치면서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이들은 지역의 주체적 문화 활동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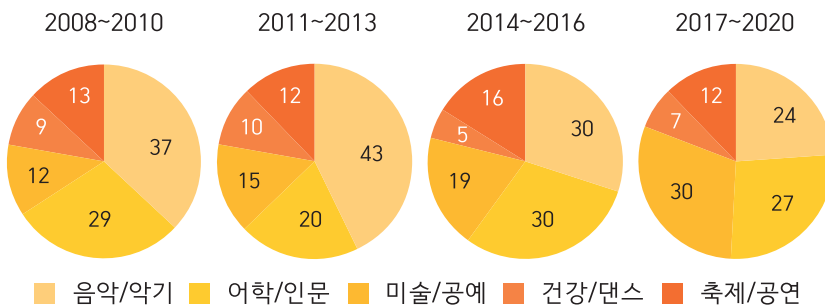
로서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축제를 열고, 수공예 체험 장터를 운영하고, 곳곳에서 봉사연주를 하는 등 지역의 누구라도 소외된 사람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소통과 교류의 장을 펼쳐가고 있다.

기획 특강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기획 사업은 외부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했고, 지역의 특색 발굴, 아카이브,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문화로 풀어보면서 문화공동체를 활성화 시켰다. 축제, 체험, 음악회, 수공예활동 등 주로 연도별 추진사업에 따라 참여자수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특강프로그램은 지역민의 문화 창작 욕구를 반영하여 최신 트렌드를 원데이 클래스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메이커스를 모토로 주민제안을 받아 기획에서 홍보, 실행, 결과피드백까지 협업을 통해 추진하였고 주민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장르별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비교(%)



그렇다면 인후문화의집이 지역민의 문화 창작 활동을 위해 그간 운영해 온 프로그램들을 장르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음악,악기/ 어학,인문/ 미술, 공예 분야가 일관되게 주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초기는 음악, 어학분야가 강세를 보이다 현시점으로 넘어오면서 공예장르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초기 음악, 어학, 미술 분야가 기초문화 확산을 위한 단순교육위주의 강좌 형태였다면 후반부는 주민기획자, 지역예술인, 지역공방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재능 나눔 프로그램이었다는 부분이다. 이는 지역의 누구라도 인후문화의집에서 문화를 창출하고 즐기고 나누는 기획자이며 인후문화의집이 지역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장르별 기초문화예술- 상설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명
음악/악기	지붕위의바이올린(A/B/C반)
	드럼, 천상의 첼로
	오카리나, 우쿨렐레,
	플룻으로행복한세상 (A/B/C반)
	추억의 통기타(초급/중급),스쿨기타
	색소폰아카데미
	만돌린오케스트라
	풍물아 놀자
	난타퍼포먼스
	어린이난타
	하모니카(초급/중급)
	그룹사운드, 보컬트레이닝

장르	프로그램명
미술/공예	전통한지공예
	천연비누
	예쁜글씨pop(초급/고급)
	도예교실
	서양화, 수채화교실
	종이접기
	만화/캐릭터
	핸드메이드 주얼리
	캘리그래피
	북아트
	비즈공예, 쉼트공예
	네일아트, 옷만들기
	수묵일러스트
	보태니컬아트
	낭만목수
건강/댄스	웰빙요가
	테라피요가
	힐링요가
	스포츠댄스
	아동발레
	쑈바댄스
	SNPE(바른자세교정운동)
	힐링댄스
	평양검무

장르	프로그램명
어학/인문	동화구연(유치부/초등부/엄마부)
	동화표현교실
	딜레마스타
	쏙쏙한자박사
	또래바둑
	글잘쓰는반딧불이
	한국사
	세계사
	역사랑노는아이들
	인문학강의
	창의력시사논술
	독서캠프
	중학논술
	樂 ENGLISH
	팝송영어
	바로바로통하는일본어
	스피치
	커피문화교실
	또래바둑
	창의연극
	주제별그림책이야기
	그룹사운드
	보컬트레이닝

2. 생활문화 동호회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의 문화를 나누며 행복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다. 인후문화의집 동호회원들이다. 이들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정기연주회, 축제·공연, 예술제등을 개최하며 지역문화의 대표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의집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어떤 일상을 나누며 활동하고 있는지 회원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신나는 드럼

깨워봐! 네 안의 열정을~ 바쁘다 바빠!

월요일 퇴근시간만 되면 정신이 없다. 빨리 마무리하고 드럼 치러 가야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친구를 따라 문화의집에 갔다 신나는 드럼소리에 끌려 무작정 시작 했다.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살다 보니 오롯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은 엄두도 못 냈고 시간이 흐른 뒤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라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 친구가 캘리그라피가 재미있다고 엄청 자랑을 해서 나도 글씨를 좀 배워볼까 하고 갔었는데 참재된 나의 예술적 감성은 다른 것에 꽂히고 말았다. 조용하고 정적인 것보다 생동감 있고 왁자지껄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나는 요란한 음악소리에 맞춰 쿵광쿵광 두드리는 드럼에 푹 빠져버렸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유명드러머처럼 흥내라도 내보고 싶지만 30분만 연습해도 다리가 떨리고 음정박자가 다 따로 논다. 이렇게 잘 안될 땐 스트레스를 푸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 회원들과 차 한 잔 나눠 마시고 이야기하다보면 재충전이 되어 또 재밌어지는 드럼이다. 발을 들이기가 무섭지 한번 내딛으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주어질 줄이야! 오늘도 나는 두드린다. 최신유행곡 ‘안동역에서’를!

목요기타

먼지 쌓인 기타를 다시 꺼내세요

음악에 관심 좀 있다는 사람 치고 기타한번 안 잡아 본 사람 있을까?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있는 악기가 통기타 아닌가 싶다. 처음엔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 시험공부에 쫓겨 그만두고 다음엔 아빠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배우다 포기, 그 다음은 장롱 위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먼지가 쌓여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 해의 레슨 모토는 “먼지 쌓인 기타를 다시 꺼내세요” 였다. 그런데 이곳 인후문화의집에서 그 말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만났다. 바로 이00 할머니, 올해 칠순이 넘으신 이 분이 처음 강의실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강의실을 잘 못 찾아오신 줄 알았다. 기타를 배우시기에는 너무 연세가 있으셔서 걸으러 보기에 무리라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수업에 참석을 하셨고 더듬더듬, 하나씩 하나씩 기타 지





판을 외우시고 간단한 리듬도 익히셨다. 몇 달 안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 곡 멋들어지게 부르시겠다는 목표를 세워 그 열정을 이어가고 계신다. 할머니의 주름지고 거친 손마디가 참으로 고와 보인다.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몇 분 더 소개해 드려볼까?

퇴직 후 농사를 지으며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가 무료함을 달래려고 기타를 꺼내들었다는 수강생! 실력도 출중하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도맡아 주시고, 직접 농사지으신 수확물들을 자주 나누어 주시는 바람에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으신 형님. 딸이 방치해둔 기타를 들고 무작정 이곳으로 왔다가 이젠 기타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서 절대 못 그만두겠다는 총무님. 지난주 새로 오신 연세 지긋하신 노(老) 신사 두 분은 생소한 일본 전통가요 부류의 가락을 연주해 주시고서는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왔다고 하신다.

이유야 어찌 됐건 사연이 있든 없든 기타를 잘 치고 싶다는 마음만은 모두 같다. 성격 좋고, 부지런하고, 거기에다 기타에 대한 열정도 넘치는 회원들과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오늘도 통기타 반주에 노래도 멋지게 한 곡 불러본다. 장롱위에 혹은 창고에 묵혀둔 기타를 일단 꺼내 보시라! 그 작은 행동이 씨앗이 되어 잠들어 있던 재능을 꽃 피우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천둥소리(同行同樂)

나이 50에서 70은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농악을 시작하고 10여년의 세월동안 간간히 여름전수기간을 통해 남원을 오간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짐을 꾸려 2박3일 회원들과 전수를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두드리고 두드리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지, 열정을 다해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의 어려운 가락들은 왜 또 이렇게 신비롭기만 하던지...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열공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동호회를 하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를 응원하고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들, 늘 MT를 떠나는 대학생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면 ‘방긋’ 웃음으로 반겨주는 ‘천둥소리’가 있어서 삶이 풍요롭다.

1월1일 해맞이부터 재야타종 행사까지 올해에는 유독 많은 공연과 대회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자신의 시간을 틈을 위해 내어주는 예쁜 마음 때문에 좋은 성과도 냈던 것 같다.

소박하지만 꾸준히 자신들을 키워내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앞으로 농악을 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많을지 고민 속에서도 내일의 꿈을 위해 오늘도 연주한다.

매일 매일이 새롭고 하루하루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 “천둥소리 파이팅 ~!!”

전주만돌린앙상블

‘월요일아침 / 오전 10시 / 문화창작실’ 천상의소리 아름다운 만돌린의 선율에 흠뻑 빠지는 시간이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10년 넘게 지속해온 전주 만돌린 앙상블 단원 20여명은 오늘도 변함없이 연습에 열중이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문화를 직접 느끼고 향유하는 자발적 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을 추구하고 외롭고 힘든 이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늘진 곳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봉사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결성 이후 전라북도 최고의 만돌린 단체로 성장, 안신영단장과 한혜정 악장을 중심으로 올해까지 8차례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고, 매년 한국만돌린 협회가 주관하는 한국 만돌린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전국의 만돌린 합주단과 함께 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라도 찾아가 만돌린연주로 사람들과 소통한다. 내년 봄엔 지인들과 가족들 시민들을 초대하여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실버세대인 우리 회원들이 딱 오늘처럼 만 건강해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버들강아지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숲길을 가는 것

숲길을 처음 갈 때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막막하고, 풀에 발이 채여 더디고, 풀 속에 숨겨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꾸준히 가다보면 어느새 길이 선명하게 나 있고, 돌부리에 넘어지지도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게 된다. 처음엔 힘들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생각만큼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걸 왜 하나 싶을 때도 많지만 그냥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라난 실력이 선물이 되어 안겨올 때가 있다. 그때의 기분이란 몇 시간 동안 등산을 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가슴 떨림과 같아, 다시 한 번 힘을 내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용기가 생긴다. 유준홍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라는 책에 “인생도처유상수”라는 말이 나온다. 인생도처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고수들이 있다는 말이다. 연습하는 것이 지루하고 고단하지만 무언가를 배우는 이 순간순간이 행복한 추억이 되고, 배울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살자. 바쁘다는 이유로 행복한 삶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가? 지금 뭐라도 배우지 않으면 행복은 내게서 더 멀리 가버리지 않을까! 날씨도 추워지고 어느덧 내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딩가딩가’ 동호회회원들과 기타를 친다. “기타 얼마주고 사셨어요” 오늘도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 나는 기타를 산 것이 아니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산 것이라 대답한다.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르샤



노래하면 즐겁고 함께 노래하면 행복해진다

나르샤라는 우리동호회 이름은 순 우리말로 ‘날아오르다’라는 뜻이다. 음악을 통해 꿈을 이루고 아름답고 행복해지자는 취지로 회원들이 이름 지었다. 음악을 좋아하는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다양한 회원들은 저마다 바쁜 삶의 이유로 하고 싶었던 활동을 못해 가슴 한 켠에 묻어 두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 보고자 결성된 순수 아마추어들이다.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정통 클래식음악을 전공한 수준 높은 지도선생님을 모시고 기초발성부터 가곡, 대중음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지도 받는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티타임을 가지면서 동호회의 발전방안, 수업방법, 정보공유 등 자생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회원 간 친목도 돈독히 다져가고 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시는 선생님은 “나르샤를 통해 무대 위에서 멋지게 노래하며, 삶의 주인공으로 완성되는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자”며 회원들을 격려하고 더없는 열정을 쏟아주신다. 우리회원들은 찾아가는 예술공연, 재능기부 등 수차례 공연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갖게 되었다. ‘노래하면 즐겁고 함께 노래하면 행복해진다’

꾸준한 노력으로 수준급의 노래실력을 습득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봉사활동을 계속해나가는 의미 있는 다짐을 나누고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하우올리

두려움과 설레임과 용기가 필요해

악기를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어 찾아왔다고 한다. 어려웠던 시절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 집안 살림,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다 보니 어느새 50이 훌쩍 넘어버렸고 헛헛한 마음만 가득 하다고 한숨을 내쉰다. 지금 늦었느냐? 이제야 내 시간이 좀 나는데... 나를 위해 멋진 삶을 가꾸고 싶는데...

손에 힘을 빼 주세요.

처음시작하고 새로운 곡을 배울 때는 잘 연주 하고 싶은 욕심에 긴장을 한다.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 “힘을 빼 주세요” 하며 잡아보는 손! 아이들 키우며 살림하느라 거칠어지고 굳어 뻣뻣해진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 눈을 마주보고 미소로 그 고마운 노고에 위로를 건네고 싶어진다.

양증맞고 귀여워 품안에 쏙 들어오는 우쿨렐레를 끌어안고 한음한음 코드를 짚어가며 줄을 튕긴다. 퐁 퐁 튀는 맑은 소리에 기분은 업 되고 노래까지

함께 부르니 한 번 더 업 되고, 오카리나의 청아한 소리는 마음까지 맑게 해 준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어제 처음 만난 회원도 어느새 오랜 친구처럼 음악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 틀리면 좀 어때! 얼굴 빨개지면서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보따리 한번 터지면 그만인 것을. 태어나 처음 서 보는 무대 우리의 첫 공연무대는 아중호수 들썩들썩예술제다.

하얀 블라우스를 맞춰 입고 우쿨렐레에 꽃을 달고 오카리나를 준비해 지금껏 연습해온 실력을 뽐내야 한다. 태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해본 적이 없는데, 긴장과 떨림으로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제 서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다. 즐겁고 행복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동안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았다.

나의 십팔번 ‘옛시인의 노래’

우쿨렐레와 오카리나의 장점중 하나는 어디든 들고 다니기 편하고 소리가 크지 않아 어디서든 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도 어깨에 내 친구들을 둘러매고 멋진 내 자신을, 내 삶을 가꾸러 나간다. 우리집 가까이 문화의집에서 동네사람들과 나의 십팔번 ‘옛 시인의 노래’를 부르며 음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움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





인후하모 새로운 삶에 무한도전 하라!

인후하모 힐링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세요~ 먼저 김정숙 선생님과 축하떡 커팅을 하였습니다. 큰 박수 짹짹!!! 하모니카로 매일매일 삶을 멋지고 새롭게 가꾸어가는 우리는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 음악가다. 몇날몇일 똑같은 곡을 열심히 연습했건만 막상 회원들과 지인들 앞에서 연주를 하려니 가슴이 두근두근 요동친다. 내 나이 70. 살면서 가슴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행복한 가슴 떨림 말이다. 연주를 멋지게 잘해내는 회원도 있고 너무 긴장해서 중간에 틀리는 회원도 있다. 최선을 다한 회원들 서로서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마구마구 보내준다. 하모니카가 멋져 보여, 퇴직 후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친구 한번 따라 왔다가....저마다 가지가지 사연으로 시작하게 된 인후하모 동호회는 벌써 5년이 훌쩍 지났다.

토요일아침, 예쁘게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하모니카 악기가방을 챙겨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문화의집으로 향한다. 주말이라 여행도 결혼식도 친구들 모임도 참 많지만 우리에게겐 하모니카 연습이 항상 먼저다. 이런 우리의 열정을 알아주듯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쌓이게 되었고, 음악회도 개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야외로 나가 버스킹 공연도 한다. 시민들이 노래도 따라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박수도 보내줄 때의 가슴뽕뽕함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 인후하모 동호회는 지금도 지치지 않는 노년의 열정으로 새로운 삶에 무한도전중이다. 삶이 무력하다 느껴지고, 친구가 멀어져 외롭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 가슴 떨리는 삶을 살고 싶은가? 인후하모 동호회와 함께라면 가능하다.



웰빙요가

요가로 균형있는 몸과 마음을....

‘자식들 귀찮게 안하고 살라고 요렇게 맨날 땡기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사는 동안 건강 할라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계단을 오르시는 회원들이시다. 요가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전신운동으로 몸의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기르고 무리 없이 근력을 강화하기 좋다. 그래서인지 저 마다 한 꼭지씩 사연을 가지고 오신다. 자꾸만 굽어지는 허리를 펴고 바른자세를 갖고 싶으신 분, 교통사고를 당해 뺨치처럼 걸어다녔다는 분, 고관절이 아팠는데 물리치료도 뭐도 다 소용이 없었다는 분, 요가 동작이 멋있게 보여 따라하고 싶었다는 분 등등 ‘요가는 가랑비에 옷 젖듯 꾸준함으로 계속 해야 하는 진행형 운동이다.’ 선생님 말씀에 모두가 옳다고 맞장구를 치시면서 10여년 경력의 베테랑 회원들이 경험담을 풀어놓으신다. ‘나 칠십도 넘었는데 몸이 유연해져서 활자세도 할 수 있어, 균형 감각이 생겨서 외발로도 설 수 있고, 뭉친 근육을 맨날 풀어주니까 병원갈일도 없고, 소화도 잘되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도 여기 왔다 가면 마음이 너무 행복해져~’ 오랜 시간 함께 만나며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주는 모습에서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따뜻한 정이 느껴진다. 하루 24시간 중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 시간 몸과 마음을 채우고 비우는 요가를 즐기면서 균형 있고 활기찬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란다.

쥬바러브

이 시대 최고의 관심사! 다이어트에 최고!

라틴음악과 함께 힘찬 함성이 지하에서 울려 퍼진다. 호기심에 이끌려 한 발 한발 소리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후끈후끈 열기로 가득한 사람들! 쥬바댄스 동호회원들이라고 소개한다. '시간 되시면 구경하고 가세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낯선 나를 배려함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동작을 하면서 하! 하! 한 번씩 내뿜는 구령소리는 보기만 해도 답답한 내 가슴을 뻥뻥 열어주는 듯 신났다. 난생 처음 해보는 몸동작과 라틴음악의 강렬한 선율, 반복되는 몸의 움직임에 신경 쓰며 더욱 박차를 가해보지만 나무토막처럼 뻗뻗한 내 몸 짓! 몸 따로 마음 따로 구나! 땀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시작한지 10분도 안 지났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와우, 매력덩어리 쥬바댄스!

어느 스포츠보다도 형용할 수 없는 묘한 열정과 흥이 있구나. 걷기도 헬스장도 작심삼일로 마감하는 나인데 벌써 일 년 가까이 출석하는 모범생이 되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지만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한 춤동작은 따라 하기 쉬워 부담도 적었다. 무엇보다도 내 몸의 변화가 가장 큰 소득이다. 30년간 한 몸처럼 찰살 달라붙어 있던 지방들이 자꾸만 집을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빠기 힘들다는 뱃살까지 ㅋㅋ. 이 시대 최고의 관심사!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께 쥬바댄스를 꼭 권하고 싶다. 운동과 취미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덤으로 챙겨보자.

한코두코

한코 두코 뜨다보면 잡념이나 스트레스는 안녕~~!

‘재미구덩이’에 걸려들었다. 뜨개에 관심만 있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한지 2년이 되어간다. 처음엔 코잡기도 힘든 분들이었다. 그들의 바늘아래 꽃도 피고, 예쁜 인형도 활짝 웃는다. 예쁜 뜨개 소품으로 집 안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한코 두코 뜨다보면 잡념이나 스트레스는 안녕~~!

뜨개방 활동은 일석이조의 파생효과를 낳는다. 그 ‘재미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다. 잠을 안자도 어깨가 아파도 손을 놓을 수가 없다. 하면 할수록 뜨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새로운 패턴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일 년을 떠도 못다 뜰 뜨개항목 리스트가 마감 된지 이미 오래! 매년 10월에 문화의집에서 작품전시가 열린다. 벌써 2회째를 맞고 있다. 솜씨들이 많이 좋아졌고 물건들은 다양해졌다. 그 어렵던 수세미 뜨기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로 해치우는 수준이 된지 오래다. 취미가 재능개발로 이어져 지역축제 체험 활동이나 재능기부 활동까지도 문제없이 소화하기도 하고 나아가 사회봉사까지 의미 있는 일에 앞장서기도 한다. 그 선봉에 송애경, 강경숙, 송인숙 회원들이 늘 함께한다. 근래 들어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늘었다. 젊은 엄마들이라서인지 열정도 대단하다. 그 열정만큼 숙제도 잘들 해오고 몇몇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오는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벌써 뜨개의 ‘재미구덩이’에 걸려들었다. 올 겨울엔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목도리를 함께 나누려고 준비중이다. 한코 두코 완성되어가는 뜨개작품처럼 동네사람들과 한코 두코 정으로 엮어가 보련다.



미녀와 봉틀

엄마들끼리 마음을 다독이고 나누고자 하나들 모이기 시작

내가 재능이 있다고요? 육아에 지친 엄마들끼리 마음을 다독이고 나누고자 하나들 모이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살림살이 이야기로 수다를 떨다가 문득 우리가 참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야기의 주제를 좀 바꿔볼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아이들 옷을 한번 만들어 입혀 보자는 의견이 모여졌다. 맨땅에 헤딩은 불가능!! 6개월정도 교육을 이수한 후 각자 재봉틀을 구입했는데 이집 저집 돌아다니자니 너무 번거롭고 모임장소가 없어서 고민하던 차, 아이들 프로그램 때문에 찾아온 인후문화의집에서 우연히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흔쾌히 수업공간과 기자재를 나눠주셨다.

아이디어회의를 하고, 원단을 고르고, 디자인을 해서, 재단을 한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이 열심히 돌아간다. 잘 안 되는 부분은 서로 가르치고 완성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주까지 숙제를 내준다. 함께하다보니 취향도 비슷해져 아이들옷이 단체복이 될 때도 있고, 이젠 좀 컷 다고 자기스타일을 요구하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엄마표 옷을 입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을 실컷 하고선 우리엄마최고 엄지척을 해준다. 너무 사랑스럽고, 참 행복하다! 좀 익숙해질 즈음 문화의집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제안을 받았다. 재봉과 옷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얼떨떨하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수강생모집, 홍보, 교육계획안까지 챙겨주시는 직원분들의 배려로 재봉기초부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 만들기 과정까지 3개월씩 나눠 수업을 하게 되었다.

주부로, 엄마로, 아내로서의 삶만 생각하며 살았고, 재봉틀 배운 것이 재능인줄도 몰랐는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재능을 나누고, 사회에 기부를 하게 되다니. 스스로 자부심과 성취감이 느껴졌다. 내년엔 의상 전시, 판매도 시작해보고,.....우리회원들은 내년에 무엇을 할지 목표를 세워 가고 있다.



미녀와 봉틀



물레야

물레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쁨 '도예'

산 속에서 커다란 가마에 장작불을 지피 도자기를 굽는 도공의 모습은 물 질만능 주의 사회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나의 바램이었다. 도 예가 일반인들에게 보급되던 초기에는 높은 비용 때문에 배우기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가까이 문화의집에서 착한비용으로 접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가웠다. 특히 자주 쓰는 생활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빈번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전한 먹거리, 그릇, 컵 등 거의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에 더욱 관심이 갔다. 흙을 주무르고 치고 단을 쌓아올리고,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창작과정에 처음에는 힘들기도 했지만 반짝반짝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기쁘고 행복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쁨이랄까? 손으로 빚는 대로, 정성을 들인 대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꼭 우리네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운 이웃들과 인연을 맺은 것도 큰 수확이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아파트 생활에서 도예가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언니, 친구, 이모님까지 많이 생겼다. 서로서로의 삶을 허물없이 내비쳐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말 못할 주부들의 스트레스도, 산후 우울증도 모두 잊고 삶의 활력을 찾아간다. 지극과 정성을 다한 못난이 내 작품에 우리집 대표반찬 김치를 살짝 올려보았다. 음식화보를 찍어도 될 듯 완벽한 조화다. 멸치도, 시금치나물도 무슨 반찬이든 썩 잘 어울린다. 투박하고 수수한 것이 모나지 않고 어울링 더울링 인연을 맺어가는 우리 물레야 동호회 사람들처럼 정이 간다.

오랫동안 함께 할 취미를 공유하고 동네사람들과 허물없이 만날 수 있는 인후문화의집은 나의 단조롭던 삶과 일상적 만남에 변화를 가져 왔다. 사회활동과 인맥이 넓어졌다고나 할까? 이젠 내가 이웃들과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며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캘리그래피 가슴뛰는 '행복'을 써내려가다

캘리그래피는 붓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손 글씨로 최근 광고 및 대중적 예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보 전달에 지나지 않았던 글씨가 이제는 감성을 표현하는 아날로그 디자인의 한 요소로 인정받으면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터치에 익숙한 우리들이 타자와 폰트가 아닌 서예와 캘리그래피를 쓰고 익히며 자신의 글씨에 집중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바라봄으로써 스스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먹물향기 그윽하게 퍼지고 벼루와 먹과 새하얀 화선지를 마주하고 앉았다. 판본체 가로선, 세로선 바른 선긋기 연습부터 시작한다. 어린 시절 한글공부 ㄱ, ㄴ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썼듯 캘리그래피 역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긴 호흡을 들이마시고 붓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한글의 구조와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정성을 들인다. 서예로 필력 다지고, 인격수양은 덤 ‘글씨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 했다. 물론 글씨 하나로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 할 수는 없지만 그날 그날의 감정에 따라 달리 써지는 작품을 보면 글씨에 어느 정도는 개인의 인격과 품위가 드러나는 것 같긴 하다. 마음을 정돈하고 차분히 연습하다 보면 나날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체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저것 나를 괴롭혔던 생활 속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온화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 ‘가슴뛰는 행복’을 써내려 가다 나에게도 그 누군가에게도 행복이 되는 작품을 써 내려 가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지인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지치고 힘들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멋진 글귀를 생각해내고 작품을 써내려 간다. 캘리그래피 엽서, 액자, 부채 등 나의글씨로 새롭게 탄생시킨 작품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나는 가슴 뛰는 행복이 느껴진다. 내 삶의 가치를 한 단계씩 완성해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보태니컬아트

그리는 순간만큼은 누구나 꽃으로 피어난다

“아이쿠 선생님!, 〰〰〰 그림 잘 못 그리게 방해를 봐야겠어요. 너무 잘 그리시잖아요! 안돼 안돼 우리 기죽어서!” 모두다 까르르 한바탕 웃는다. 이후 문화의집 꽃 세밀화 보태니컬아트 동호회에서는 잘 그리면 잘 그리는 대로로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우리들만의 즐거움과 스토리가 생겨난다.

“저기.....제가 꽃은 좋아하는데요.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고 성격도 엄청 급한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주눅주눅 자신 없어하신 분들도 서너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이 이런 예쁜 꽃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인줄 몰랐다면 무척 좋아하신다.

어렸을 때 꼭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형편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꿈을 접어뒀던 분들도 꽃그림을 그리며 한을 풀었다고도 하시고, 갱년기를 우아하게 이겨내기 위해 오신 분들, 또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육아 스트레스를 풀러 오신 분들도 있고, 깊이 있게 공부하여 작가의 꿈을 키우기

위해 오신 분들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모였다. 어떤 이유로 오시든 그리는 순간만큼은 누구나 꽃으로 피어난다. 자연과 아름다운 색들은 생명력과 치유와 위로를 품고 있기에 나도 모르게 덩달아 환하게 피어난다.

한 해 동안 함께 지내온 우리들 이야기 좀 나눠볼까?

‘무작정 꽃을 좋아하는 나! 우연히 인후문화의집을 들렀다 보태니컬아트를 처음 접했다. 좋은 분들과의 예쁜 만남, 완성되어 가는 나의 작품들을 보면서 아팠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딸아이 또래부터 60대 회원에 이르기까지 오고가는 수다 속에서 생활 속 삶의 지혜를 하나하나 배워가며 내 70대 인생의 깊이를 채워간다. 배움과 즐거움을 선물해 주고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이 귀한 공간에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처럼 내 삶의 꽃을 피워나가 보련다. ‘인후문화의집 보태니컬아트 동호회 파이팅!’ ‘무엇을 해야 하나 방황하다가 보태니컬아트라는 제목이 나의 발길을 끌었다. 식물을 자세히 묘사하여 그리는 활동이어서 그런지 수업을 시작하면서 서부터는 풀 한포기, 꽃 한송이 무심히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매일 매일 같은 듯 다른, 살아 숨 쉬는 것들에게서 자연의 오묘함과 신비로움이 느껴져 여지없이 카메라를 들이댄다.’ 올해는 우리들에게 감동의 한 해였다. 서툰 솜씨지만 작품전시를 세 차례나 해냈다. 지인들한테 선물도하고, 판매도 하고, 낯선 이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스스로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팝송영어

I will go on studying english~

아이 캔 스피크! 뽀뽀하게 공부한 흔적이 남아있는 노트를 보고 깜짝 놀라고 나날이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에 뿌듯하고 함께 웃으며 공부하는 시간 시간이 행복하다. 아침밥 차려주고 나서, 아니면 잠들기 전 영어 공부하는 나의 모습을 남편이 아이 바라보듯 하며 기특해 한다.

얼마 전 문인화 한일 교류전이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어 참석했었다. 일본 회원들과 함께한 저녁만찬 자리, 일본어가 되어야 대화를 하지. ㅋㅋ 서로 마주보며 웃기만 하고 식사만 할 뿐! 그때 문득 영어라면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름? 젊은 일본회원들에게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 봤다. “can you speak English?” 오 마이 갓! 용기를 내니 되는 구나! 손짓 몸짓 제스처를 써가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다. 완벽한 회화를 구사하지 않아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고 말이 통한다는 것 그 자체로 너무 행복했다. 그 후 더욱 나 자신에게 공부가 필요하다는 의무감을 심어주며 학창시절처럼 숙제도 하고 단어도 외웠다. 단어를 외우면, 잊어버리는 속도가 더 빨라, 외운 거 다시 외우고, 또 외우고, 꾸준함과 인내가 답이라고나 할까? 나는 일주일이 바빠서 너무 즐겁다. I will go on studying english~



북마스터클럽(BMC) 내 삶을 변화시킨 책읽기

내 직업은 10년차 농부다. 농사짓는 기술에 부족함을 느껴 전문 지식을 더 배우고 싶어 하던 차에 우연히 독서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는 홍보를 보게 되었고 2013년, 그 후로 지금껏 책은 나의 스승이 되었다. 독서하는 생활이 익숙해짐에 따라 세상 속에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던 습관이 내면의 성숙함을 찾아 독서를 즐기는 생활로 바뀌게 되었으며, 새벽까지의 술자리가, 새벽에 독서하는 습관으로 바뀌게 되어 세상을 이해하고 대하는 폭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어졌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모임이 해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던 때도 있었고, 한 달에 두 권의 선정도서 토론일은 학교에서 평가하는 시험처럼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배려", "쿠션" 등의 책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 받게 되었다. '책을 읽는 까닭은 책읽기가 행복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던가. 지금은 매월 두 권 이상 책읽기가 생활화되어 새로움을 깨우쳐가는 즐거움과 함께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다.



얼마전 BMC클럽회원들과 도산서원에 다녀왔다. 퇴계 이황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이곳에서 역사를 알고 선비들의 지혜를 얻어와 클럽의 후배들을 많이 양성하여 독서로 아름다워지는 전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BMC 클럽이 추구하는 진정한 책읽기의 쓸모다.

클럽의 리더이신 유희장님, 일년에 100권이상 책 읽기를 실천하고 계시는 이작가님을 비롯하여 우리 북마스터를 함께 지켜주시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책을 통해 일상의 지혜를 쌓고 인생길을 넉넉하게 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필로소피아

독서와 토론을 이어가며 삶의 길을 찾을 것이다.

필로소피아는 2014년 7월, 열 명의 회원이 첫 모임을 시작한 후로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만나 인문도서를 읽고 토론하고 있다. 동아리 이름인 ‘필로소피아’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가 합쳐진 단어로 ‘지혜에 대한 사랑’ 즉 ‘철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인문 고전 100여 권을 읽으며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기르고자 힘썼다.

인문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 철학이 상아탑에 갇힌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학문으로서 철학자들만이 향유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철학은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세계관과 다르지 않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점차 생각이 깊어지면서부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 나름의 규정을 내리고 삶의 방향성을 잡아 가게 된다.



삶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철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저명한 철학자들 역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자신과 타인, 세상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치열하게 토론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깊이 통찰하는 진정한 철학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삶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파리의 택시운전사』를 쓴 홍세화 씨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안 읽어도 되는 시대는 행복한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그렇지 못하다. 지배층의 담론들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세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않으면 휩쓸리게 된다."고. 한편으로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전범인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고 '악은 지극히 평범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자신의 책『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밝히고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결과 등에 대해 비판적 사유와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악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끊임없이 사유하고 성찰하는 철학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책 읽기를 계속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이 진실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니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우리 동아리는 진정한 삶에 이르는 길을 밟아왔고 지금은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삶에 이르렀다면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성찰하며 실천하는 삶' 이것은 보다 고양된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삶의 최고 형태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독서와 토론을 이어가며 삶의 길을 찾을 것이다.

풍당그림책

긍정적인 기억 "사랑해요, 예뻐요, 고마워요"

오늘 수업은 국화 카드 만들어 엄마, 아빠에게 편지 쓰기!

일주일 전 집 마당에 핀 국화꽃을 보며 국화를 활용한 수업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보통 무엇인가를 만드는 활동을 좋아한다. 특히 부모님께 드릴 선물은 더욱 정성을 들인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는 미션을 주자 형형색색의 국화꽃을 바라보던 아이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서툰 손놀림으로 목공풀을 바르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며 여기 저기 노랑, 하양, 보라빛 국화들을 카드에 장식해 나간다. 나름의 미적 감각을 최대한 동원해가며.

'선생님, '엄'은 어떻게 써요?' '응, '어'에다 미음... 옳지, 잘했다.' 6세 효빈이와 예준이는 카드를 쓰다 모르는 글자를 하나하나 물어가며 열심히도 쓴다. 평소 글씨 쓰기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7세 윤혁이도 쓰기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5세 주엘이도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해요, 예뻐요, 고마워요' 라고 적는다.





아직 소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5, 6, 7세의 아이들이어서 글씨 쓰기가 힘들 텐데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에는 조금의 불평도, 힘든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카드가 다 완성이 되었다. 도서관에서 다음수업을 준비하는 엄마들에게 아이들이 달려간다. 직접 만든 선물을 전하는 기쁨과 성취감이 아이들의 웃음꽃으로 피어나는 순간이다. 카드를 받은 엄마의 환한 미소와 칭찬은 오랫동안 아이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지향하는 참교육의 방향은 바로 이러한 점과 맞닿아 있다. 이를 테면 집 마당에 핀 흔한 국화꽃과 같은 소재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정서적 교감과 교육적 효과는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인후 문화의 집 풍당 그림책 동호회 활동은 사교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나의 교육관에 부합하는 공동체 모임이다. 또 엄마의 열정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자랑스러움과 긍정적 감정은 엄마와 아이 모두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엄마들)이 되어 내 아이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나는 이런 이유들로 이곳 인후문화의 집 풍당 그림책 동호회 활동을 너무나 사랑한다. 우리동네 아이를 키우는 많은 엄마들이 함께 활동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오늘도 수업이 끝난 후 집에 가서 국화 카드 만들기 활동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다.

3. 기획 사업

전주문화의집 20년사를 준비하며 개관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다양한 사업들을 들여다보았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했던 첫 사업부터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했던 동호회들의 성장까지 ‘인후문화의집’은 늘 설렘이 가득한 곳이었다. 사회적 이슈와 사건·사고들을 극복하고자 했던 고민들과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기에 유독 그리운 사람들이 18년이란 시간을 거슬러 하나하나 되살아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화의집만큼 다양한 이해가 모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도 없는 것 같다.

초창기 복권기금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수급가정과 저소득층을 문화의집과 연결하여 그들에게 전통문화체험, 문화기행, 박물관·미술관 교육, 음악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향유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문화의 역할을 복지의 개념으로 바라보았던 시기였다.

이후 평생학습과 커뮤니티 아트가 대두되면서 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동체적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내가 사는 곳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가 만들어졌고 주민과 동호회와 예술가들이 함께 기획에 참여하며 축제를 성장시켰다. 지역의 유래와 다양한 이야기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찾아가

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만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단지와 전라감영 복원 등과 연계를 통해 ‘차별화된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고 있다. 인후문화의집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마을만들기’, ‘韓브랜드로 숲새 바로 보기’, 전주공예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 인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함께 참여하며 동부권 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이처럼 문화의집 사업이 지속가능한 독자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다양성, 대표성, 지역성을 담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꺼리를 찾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제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동네 가게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누구하나 소외됨 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들의 역할을 찾아간다.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희망이 된다.





난치병어린이 돕기 '사랑 콘서트'

난치병 어린이돕기 사랑콘서트가

전주동물원, 한옥마을, 전동성당, 모악산 등에서 열렸다.

인후문화의집에서는 2005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와 취약계층아동을 돕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4회 거리콘서트를 열어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급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사랑, 아름다운 세상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음악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한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프로 연주자와 가수, 기획자, 인후문화의집 동호회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이 참여하고 뜻을 같이하는 협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7080 추억의 노래와 아이들을 위한 동요, 벨리댄스와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모아져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천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전주에 거주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어린이를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직접 도와줄 계획이니 인후문화의집으로 연락바랍니다.





일본 니시키와 해역, 조세이 탄광이 수몰 된 곳

일본 조세이 탄광 생존자와 만남

일 시 _ 2008년 2월 25일(월)

기행지 _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바다 속에 탄광이 있었다고? _ 책 『빨난 바다』의 주인공들 한 자리에



일제강점기 일본 땅으로 강제 징용되어 참혹한 노역에 시달렸던 조선인들이 많았다. 그 중에 조세이 탄광은 육지에서부터 바다 밑으로 10여 킬로미터까지 경도가 뚫려 있던 바다 속에 있는 탄광이었다. 1942년 2월 3일 바닷물에 수몰됨으로써 조선인 희생자 135명과 함께 역사적 진실마저 수장되고 말았다. 해마다 2월 3일 추모제를 지내며 원혼을 위로하고 있는 당시 생존자와 유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몰된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고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생존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잘못된 역사를 알려 줌으로써 아동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역사는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거울삼아 현재를 살아가며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지침이 된다.



국보1호 승례문 탐방

일시 _ 2008년 2월 25일(월) / 기행지 _ 승례문

2008년 2월 10일 승례문 화재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생존자와 만남 기행을 앞두고
날아든 비보...

국보1호 승례문이 화재로 무너져 내렸다.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
의 방화로 승례문의 상부가 상실되었다. 속수무책으로 불타고 있는 승례문
을 바라보며 눈물과 탄식으로 그 밤을 보냈다. 승례문은 조선 초기의 건실
한 장엄미(美)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조선시대 서울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이다. 원래 이름은 승례문이며,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
문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
으로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다. 지금
있는 건물은 세종 29년(1447)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수
리 때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역사성
으로 보면 국내 성문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이다. 우리는 훈민정음과
석굴암, 팔만대장경과 함께 세계인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문화
유산을 허무하게 소실시키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

천 개의 그림 타일로 만드는 “세월호, 기억의 벽”

일시 _ 2015년 1월 23일(금) 오후 1시

장소 _ 인후문화의집 3층

대상 _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아이와 어른 누구나 (150명)

비용 _ 그림타일 1장당 3,000원 (도판, 재벌, 안료 등 최소비용)



1차로 재벌구이까지 완성된 ‘세월호, 기억의 벽’ 사진

2015년 2월 14일 진도 팽목항에 설치 될 예정인 ‘세월호, 기억의 벽’은 세월호의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로 세로 각 10센티미터의 초벌구이한 도자기 타일에 세월호에 관한 이미지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뒤 다시 구워서 단단하게 만든 뒤 정해진 벽에 이어 붙여 완성한 벽화를 말한다.

시민들이 그린 타일마다 일련번호를 매겨 ‘세월호, 기억의 벽’에 붙일 예정으로, 기억의 벽이 완성된 후에 배치도를 통해 참가증에 접수된 번호로 자신의 타일을 찾아볼 수 있다. ‘세월호, 기억의 벽’은 2014년 11월 15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제작하기 시작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울, 서천, 안산, 대전, 전주, 팽목항, 파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에서는 1월 23일(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인후문화의집에서 김하은, 박예분, 정란희 아동문학가를 비롯하여 '전주독서동아리연합회' '동시읽는 모임', '어린이도서연구회'가 함께 진행하였다. '세월호, 기억의 벽'에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문학단체로는 '어린이와 문학', '어린이책작가교실', '어린이도서연구회',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어린이책진보모임', '한국작가회의 어린이청소년문학분과' 등이 있으며 한국작가회의의 자유실천위원회의에서 후원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 안산에서 팽목항 도보행진

'철저한 진상규명! 실종자 완전 수습!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1월20일 안산을 출발해 2월 4일~5일 전주를 지나고 있다. '세월호기억의 벽' 타일 작업을 했던 인후문화의집 앞 안골 네거리에서 잠시 멈췄다가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메이커스 in 이후

인간은 누구나 메이커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만든다.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천편일률적 디자인이 아닌 나만의 아이디어와 상상을 담아 구체화한 제품을 만든다. 손으로 만들어 내는 모든 것들.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직접 이뤄지는 열린 공방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메이커의 공동체육성과 성장을 지원한다.



라디오 출연<TBN교통방송> FM 102.5 인터뷰 중

그녀들의 수작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수다, 그녀들은 오늘도 작당 모임중이다.

바느질로 하나 된 중년여성들이 있다.

그 안에서 함께 또 다른 꿈을 꾸는 인후문화의집 한땀 동아리 들의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자.

「2012 문화의집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문화로 행복한 우리동네」 사업은 꿈을 찾고 싶었던,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모르고 지나치는 중년여성들에게 꿈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 그녀들은 바느질이라는 자신의 삶에 숨겨져 있던 일상의 발견을 통해 문화와 가까워졌다. 이렇게 공통된 주제로 이음새를 엮어 만난 그녀들이어서 인지 보이지 않는 끈끈한 공동체 형성을 이뤄냈다. 오늘도 그녀들은 숨겨져 왔던 재능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과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이 되면

자신의 이름보다“○○엄마”라는 타이틀에 익숙한 그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약속이나 한 마냥 양손 가득 무겁게 들고 온 음식들은 그녀들의 출석제



예쁜 곰돌이는 영아원으로 gogo~



크를 대신한다. 바느질로 한땀 한땀 추억을 만들어 가는 그녀들에게 빠질 수 없는 또 한가지, 주거나 받거나 그녀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수다.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그녀들의 이야기는 죄다 가족이야기 뿐이다. 주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있어 가족이 1순위인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시집 못 간 처자가 듣기엔 정작 본인들의 이야기가 없다는 게 이상하기만 하다.

“엄마 되든 다 그런거예요?!”

시집 못 간 처자의 철없는 말 한마디에 다시 돌아온 한마디.

“궁게 언능 시집가서 살어 봐~!”

그런 그녀들의 수다 속에 깨알만큼도 낱 틈이 없다.
그래서인지 그녀들의 수다에는 내가 접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미우나 고우나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
이상하게 알미운 시어머니, 이웃집 ○○네 엄마,
다양한 주제들로 달리기 시합을 하듯 누구하나 빠지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
오고 가는 대화의 끝은 언제나 그녀들의 깨알 자랑이다.

“어디 시집안간 처자 서러워서 살것어요?!”

“궁금하든 더 나이들기 전에 언능 시집가서 살아봐~!”

나이 짝 찬 처자의 마음을 멘붕 상태로 만들곤 하는 한마디지만, 그래도 속
없이 이날 이 순간이 기다려진다. 중년 여성이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쌓
아온 삶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그녀들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는 여자의 삶,
그리고 묵묵히 살아왔던 시간들이 스며들어있다.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이 접어들 수 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꿈,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 시간들, 서로 자신들만의 소통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지내다보니 그녀들은 이
곳에서만큼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자신의 재능을 자연스럽게 선보이고 있다. 너무 익
숙해져 자각하지 못했던 귀함을 인정하고 나니, 인정을 넘어 창조적인 작
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성원들간의 단합 시간을 통해 그녀들
은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통해 그 사
람을 이해하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녀들이 지금 이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추억을 통해 크나큰 의미를 만들
어가길 바란다.

수다스러운 시작을 알림으로 즐거운 여운을 가슴에 담고 집으로 되돌아가
는 그녀들이 새록새록 쌓아가는 추억의 그림자는 오늘도 따뜻하기만 하다.



인후동 희망목공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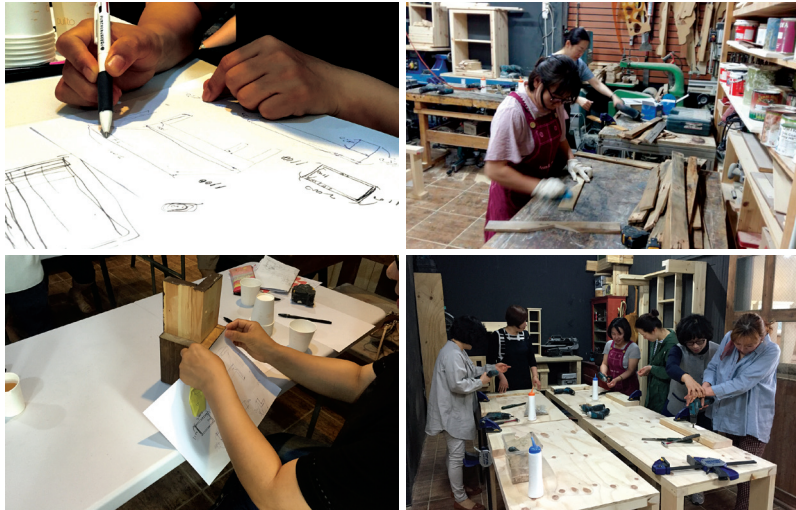
2013~16년 **인후동 희망목공소&조작단** 인후동에는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발견해내서 꿈 넘어 다른 꿈으로의 과제를 품게 할 희망목공소가 생겼다. 꿈을 찾는 사람,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곳에 다른 꿈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잇고 지내던 꿈을 찾는 곳 아이든 어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꿈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가 바로 꿈이기도 하다. 내재된 귀한 재능의 인정이 만들어 내게 될 자존감 형성을 통해 희망목공소는 문화의집에 꿈을 찾는 이들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동네의 재구성 내가 사는 동네의 곳곳에 새로운 창조의 손길을 더하는 일을 시작으로 우리 동네 안에서의 교집합을 이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꿈을 품은 희망목공소에선 !

- 내재된 재능을 시작으로 자신의 가치 표현
- 1호 목공소를 성공적으로 이뤄내 자체적으로 분점 만들기의 밑거름
- 목공소를 찾아오는 주민들, 주민들을 찾아가는 이동 목공소



- 목공소를 통해 소통하고, 情 많은 인후동으로 변화
- 자생적 활동이 가능한 공동체 육성
- 희망목수들의 꿈의 전도

요란한 공구 소리가 누군가의 발목을 잡기라도 한 듯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춰 선다. “뭐하는 거예요?”라며 묻는 사람도, 묻진 않아도 호기심 가득 찬 얼굴로 목공소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모두 요슬램프라도 발견한 마냥 신기한 눈초리로 목공소를 바라볼 뿐이다. 바라보는 눈빛마다 신기한 눈초리를 내보이는 걸 보면 요란한 공구소리보다는 조합되기 힘들어 보이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 눈길이 멈춰진 것 같다. 하지만 목공소에 모인 20대 청년부터 60대 어르신 모두 저들만의 꿈을 가지고 목공소를 운영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교집합상태다.

생활 속에 축적된 내재된 귀한 재능을 원동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희망 목공소는 자연스러운 이웃과의 소통으로 순환되며 단절된 이웃과의 소통의 매개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처음에 공구가 무섭다며 드릴도 제대로 잡기 어려워하던 중년여성이 지금은 대형 가구를 만들고 싶은 꿈을 품고 있을 만큼 목공소는 이제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하다. 그리고 지금의 희망목수 1기들은 내년에 모집할 목수 2기들에게 기술을 전달해가며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꿈의 전도를 이뤄갈 것이다.



‘모두의 삶이 행복하다’ 문화촌 골목안 사람들

1+3평, 막무가내 가드닝 도심의 재발견

상상을 더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다. 무단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들과 텃밭으로 쓰이고 있는 정리되지 않은 유헴공간들을 마주할 때면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삭막한 도심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

1+3평, 막무가내 가드닝은 2017년~18년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다. 이미 전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 거점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고 도시에 유헴 공간을 찾아 가든을 조성하였다. 도심의 유헴 공간에 참여자들의 상상이 더해져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교류와 생활문화 활동이 확대된다. 가드닝 사업은 단순히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경험을 실생활과 결합하며 나누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결성된 문화 공동체는 도시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며 자생적인 집단으로 성장한다.



“자꾸 바라보게 된다.”
마주하는 골목에 사는 어르신들과 함께 화단 정비



“누군가의 관심이,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
인후동 사천경로당 화단 정비





2019 희망목공소는 진화한다

똑딱! 똑딱! 인후목공제작소

개미공방은 목공의 매력에 흠뻑 빠졌던 인후동 희망목공소 2기 수강생이 차린 공방이다. 평소 자신의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싶어 했던 주인장과 인후문화의집이 손을 잡으며 재미난 일들이 생겨났다.

‘평소 로망이었던 목수가 되어본 날’

2019년 6월 씩씩하게 나무를 자르고 두드리고 칠하는 과정의 그들은 이미 작가였다. ‘은퇴하고 첫 문화활동인데 재능 있지 않냐’고 묻는 어르신과 이젠 남편만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장비를 들고 뿌듯해하는 참가자..... 서로 잘 몰랐던 동네 사람들은 친밀감 갑의 언니, 오빠, 형, 아우가 되었다.



‘모든 건 자연스럽게’

나만을 위한 배움에 그치지 않고 친구와 동네주민들을 초대하여 공방 오픈 하우스를 열고,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선생님을 돕는 일등 조력자로 문화 나눔을 실천하기도 한다. 이제부터 우린, 재미공방을 동네 재능 끈을 키워 내는 작은생활문화공간으로 명해야겠다.



찾아가는 문화나눔 & 축제

문화시설로의 접근성이 취약한 원도심 주택단지와 골목길, 빈 상가 등 주거지 인근의 문화공간을 발굴하여 공연, 전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거주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내재된 재능을 표출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공동체의 장 ‘마을축제’를 함께 만든다.

골목길 어귀를 돌아서 마주치는 상가와 육교와 공원은, 오늘도 우리들 가까이에서 늘 새롭게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뜻밖의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문화공연과 체험을 통해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소규모 연립주택단지과 어린이 공원 등을 찾아가는 행사로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017년 6월 인후공원사랑모임 회원들과 인근 유치원생들이 숲을 탐방하며 세대 간의 만남, 문화와의 만남이라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춤추는 우리동네 생활문화

일상생활의 친숙한 공간에서 친숙한 사람들과 진행되는 ‘춤추는 우리동네 생활문화’는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주민의 만남을 통해 생활문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위브어울림 아파트 놀이터와 금평초등학교, 첫마중길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금평초등학교의 경우 잔디밭에서 여름밤의 돛자리 콘서트를 컨셉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우천으로 부득이 강당으로 옮겼지만 열기만큼은 뜨거웠다.





어르신 낭독 산책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어르신들과 중·고등학교 자원봉사 학생들의 세대간 소통이 이뤄진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전래동화나 창작동화를 들려드리고 어르신들과 교감하며 집중력과 인지기능 회복에 도움을 드린다.

청소년들은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게 되고,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며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하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잘 극복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들썩들썩 예술제



프로그램과 동호회원들의 신나는 하루, “공연과 전시 모두 우리 손으로 준비해요!” 따라해도 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물어보면 숨김없이 다 알려줄 듯한 그들의 활동은 내 속에 잠들어 있던 본능을 스멀스멀 끌어올린다.
1년에 2번, 그들의 파티를 통해 우린 무언가에 도전할 힘과 용기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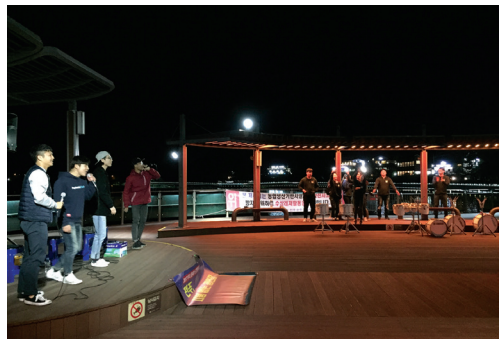


지붕없는 공연장 '아중호수'

‘예술이 있고, 문화로 놀기 좋은 곳’

시민들이 산책공간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던 아중호수에 멋진 무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산책에만 집중되고 몇 년째 방치되는 수변무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해 보였다. 그래서 2017년 봄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매주 토요일 13시 인후문화의집의 동호회원들과 지역의 가수들이 ‘예술이 있고, 문화로 놀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아중호수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열었다.

매주 인사를 건넬던 사람들과 안면을 트고, 힘내라며 쏟아지는 응원(?) 물품들은 커피, 빵, 치킨, 피자 등 종류가 다양해졌다. 다양해진 종류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 가던 길을 멈춰섰고 부드러운 바람보다 더 간지럽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유를 부렸다. 어떻게 하면 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오는 사람들이 늘었고 공연하기 좋은 계절엔 우리와 같이 시간을 나눠 쓰길 원하는 단체들이 생기면서 아중호수에 대한 이미지는 밝고 생기 가득해졌다.





예술캠프 끌림 I · II

도시의 익숙한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과 캠프가, 이웃과 이웃이 만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내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도심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가까운 문화향유의 장을 열어준다. 익숙한 공간에 새로운 시선이 더해진다면 문화향유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다시금 일깨워 줄 것이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열고 창의력 발산과 함께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예술캠프는 전주 문화의집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인후동육교 생활문화장터 깜짝장터

2014, 2015 장터가 열리는 날, 육교에서 만나요 !

깜짝장터는 내가 사는 공간에서, 내 이웃과 함께, 시민문화시장을 통해 소소한 일상문화를 복원해 보려는 의도를 담고 2014~15년까지 총 4회 진행하였다.

문화로 함께한 우리 동네

깜짝장터

육교문화장터

밤장은 인후동 육교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로서 관내광역의 3%를 뜻하는 곳에 7부하여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장터입니다.

깜짝장터 판대자 및 기획단 모집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장터를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갈 분들을 모집합니다.

- 문 의 : 인후문화의집(247-8800)
- 장터일시 : 8.22, 9.19, 10.17 / 14:00~20:00

RECRUIT	8.22 (목)	9.19 (토)	10.17 (토)
	14:00~20:00	14:00~20:00	14:00~20:00



유희시간이 많은 육교를 시민문화장터 장소로 만들기까지

유희시간이 많은 육교 위가 동네의 일상문화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어느 날은 공연이 열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이나 자신이 만든 물건을 가져와 팔기도 하며 육교 자체를 동네의 문화 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를 참여자들이 직접 한다.

자신의 삶터에서 문화(자신의 재능)를 나누고자 하는
참가자 & 기획자 모집!!

재능이 없어도 좋아! 집에 있는 물건만으로 충분해 !!

이런 물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때면....
그냥 몽땅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냥 팔기만 하면 재미없겠지~
판매금액의 3% 정도는 기부금으로 !!



[깜장 참가자 후기]

코큰공작부인의 우리동네 자랑

지난 10월 17(금),18(토) 인후문화의집에서 주최하는 문화장터 <깜장> 이라는 재밌고도 의미 있는 행사가 있어서 전통 매듭으로 만든 작품들을 가지고 셀러로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인후문화의집에서 주최한 문화장터 행사인데요, 문화의집 마다 각각의 색깔이 있는데 인후문화의집은 젊은 생각과 독특한 발상의 행사가 많은 거 같아요.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즐겁고 유쾌한 행사였어요.

무르 익어가는 가을 육교에서 펼쳐진 문화장터 <깜장>에서 [공작부인이 공작한 공작]의 코큰공작부인 이었습니다.

공작부인이 공작한 공작 대표_ 김윤정

(2015.VOL4 새늘)



1

가을이 깊어가는 거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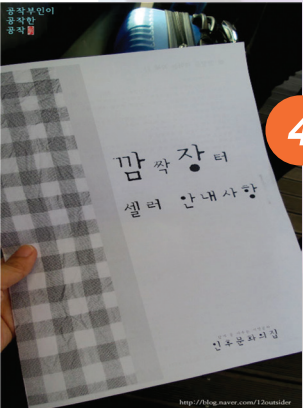
2

육교문화장터라고
써있네요. 이 육교가
안에서 보니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3

육교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 문화장터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물론 육교안에서
진행되었구요.



4

문화장터는 4시~9시까지
였지만, 자리배정과 안내를
받아야 해서 저희 셀러들은
2시에 모였답니다.
셀러 안내문 뭐가 있어
보이는 듯한 이 느낌..

■ 장장을 대하는 자세 !!

- 4시간 당일 준비
- 행사장소를 지켜주세요!! (물, 시간당수 4사~9사)
- 판매금액의 3% 기부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아요!! 금액은 자유)
- 서로의 자리를 사정없이 침범하지 않아요!! 침범의 부패를 지켜주세요!!
- 배치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터가 끝나고 배치를 정리해 내리지 않습니다 / 주변 깨끗하게 정리 (음식을 쓰러뜨리는 자는 직접 치운다 주재소~)
- 소문이나 주변 불미스러운 행위를 금합니다
- 분발성 : 외부비행물 꼭 출구전만 잘
- 화장실은 화장실로 향하여 화장실 이용 (화장실 안의 내 상자를 이용해 주세요, 10. 장터에 화장실, 화장실에 함께 입장(화장실, 화장실 안)의 행위를 주의합니다. (신장차량 포함)

장터장터 제주시

시간	활동내용
10:00	장터장터 제주시
10:30	장터장터 제주시
10:30~11:00	장터장터 제주시
11:00~12:00	장터장터 제주시
12:00~14:00	장터장터 제주시
14:00~15:30	장터장터 제주시
15:30~17:30	장터장터 제주시
17:30~20:30	장터장터 제주시
20:30~23:00	장터장터 제주시
23:00~	장터장터 제주시

5

셀러들에 한해서
현심? 하다고 소문이
난 조각하시는
작가님과 함께하는
캠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작가님의 집을 빌려주고
작품까지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기회였으나...
캠핑은 아쉽게도
참여할 수가 없어서...
패...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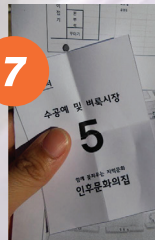
■ 장장을 대하는 자세 !!

- 4시간 당일 준비
- 행사장소를 지켜주세요!! (물, 시간당수 4사~9사)
- 판매금액의 3% 기부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아요!! 금액은 자유)
- 서로의 자리를 사정없이 침범하지 않아요!! 침범의 부패를 지켜주세요!!
- 배치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터가 끝나고 배치를 정리해 내리지 않습니다 / 주변 깨끗하게 정리 (음식을 쓰러뜨리는 자는 직접 치운다 주재소~)
- 소문이나 주변 불미스러운 행위를 금합니다
- 분발성 : 외부비행물 꼭 출구전만 잘
- 화장실은 화장실로 향하여 화장실 이용 (화장실 안의 내 상자를 이용해 주세요, 10. 장터에 화장실, 화장실에 함께 입장(화장실, 화장실 안)의 행위를 주의합니다. (신장차량 포함)

장터장터 제주시

6

감장을 대하는 자세 네~!네~!!
코큰 공작부인은 열심히 하였습니다~!!!
엄청나게 팔아서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
싶었으나...
ㅋㅋㅋㅋ 맘처럼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판매금의 3% 보다는
훨씬 많은 기부를 했다는 사실..
내 기부를 세상에 알려라~~~~~!!



7

셀러분들이 다 모이자 자리
배정을 위한 추첨을 했는데요.
두구두구두구~~ 전 공예파트
5번이랍니다.

8



바로 육교에서 아파트 쪽 젤 끝자리를
배정받았답니다.. 저기 뒤에 나무에
걸려있는 파라솔이 제 자리네요..

9



밤이 어둑어둑해져가고 있어요. 일교차가 심할 때라
중무장을 했는데도.. 으슬으슬~~여기 저기 기웃거리진
못했지만.. 옆 테이블에서 만든 핸드메이드 냄비잡이와
목수건 등등을 질렀답니다.. 우헤헤~~ 아조~고와요..
고와.. 아~ 사진을 못찍었네요..

10



육교위에선 이렇게
먹거리와 카페테리아가
운영중 이랍니다.. 아이들이
아주 신나했어요..
일상 속에서 무료해진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준 행사였네요.

육교에 이렇게 조명이.. 너무
판파스틱 해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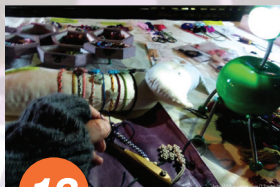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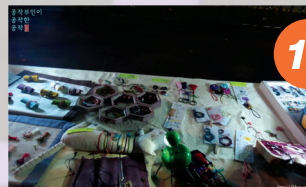
저도 자리를 지키며..
셀러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열심히~!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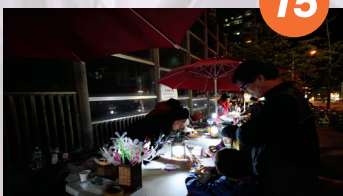
추위를 잊고자..
어두운 조명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ㅎㅎ
옛 생각도 모락모락 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드랬죠...

14



공작부인이 공작한 공작을 알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몇 뵙고..
으흐흐~~ 칭찬도 듣고..
으쓱~으쓱~

15



좋은일에 동참하신.. 먹거리파트..공예파트.. 다른 셀러분들
모두.. 너무너무 애쓰셨답니다. 기부금은 전북대 병원으로
보내서 소아암이나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될 거라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깜장후원금]

사랑으로 모은 작은 기적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꼭 하나 있다면, 한번쯤은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일 아닐까?

단풍의 절경에 마음을 빼앗겼던 어느 가을날, 인후동 아름다운 육교 위에서 열린 깜장(깜짝장터)의 셀러들은 사랑을 모았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즐긴 행사에서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준 것이다. 그 사랑의 모금액은 543,100원. 큰 금액은 아니었으나, 그렇게 모아진 모금액을 11월 26일(수) 전북대병원에 입원중인 35살의 이모양에게 기부했다. 만성신부전(신장의 기능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저하된 상태)으로 고생하고 있는 서른 다섯살의 이모양은 복막투석을 하며, 6살 된 남자아이를 병실에서 홀로 키우며 병마와 싸우며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며 아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의 마음만큼은 강인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머지않아 신장이식을 받고 희망찬 삶을 살아내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었을까? 꿈꾸는 그녀의 마음이 열굴에 그대로 전해졌다. 어떠한 말로 위로 할 수 있겠는가. 함께 마음을 전하는 수밖에... 금액은 작지만, 그 안에 모인 사랑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를 내뿜어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새들 2014 VOL.3)

2014년 543,000원 전북대병원 후원금

2015년 202,000원 인후동 장학금 지급



전주공예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난장 '전주수작, 인후'

‘유 · 무형의 유산이 만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 한다.’

2019년 9월 28일(토) 오후 1시~5시 전주류씨시사재

전주 5개 문화의집이 연합하여 각 권역에서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생활 문화 난장 ‘전주수작’을 개최하였다. 인후문화의집은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주류씨 시사재에서 ‘유 · 무형의 유산이 만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 한다’는 주제로 축제를 진행하였다. 과거의 생활 유산을 오롯이 지켜온 명인들의 예술적 가치와 장인정신을 이해하고 일상의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한 메이커들의 핸드메이드 작품들이 만나 수작의 미래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현대와 과거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공유 공간이자 지역주민들의 일상 속 ‘쉼’ 공간인 시사재는 모처럼 모여든 주민들의 수다에 폭 빠져 나른한 가을



날을 즐기고 있다. 앞마당을 가득 메운 달인들의 생활 솜씨자랑과 물 만난 동호회원들의 빛나는 무대 장악력, 뒷마당 놀이터에 아이들을 맡겨 놓고 여유 있게 체험을 즐기는 엄마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시사재의 앞 뒷마당이 개화기 의상을 입고 누비는 젊은 친구들과 지우산을 쓴 사람들, 한지발을 엮고 있는 아이들로 시간의 경계를 넘는 아스라함과 시끌벅적한 사람향기로 가득하다.

전주공예명과 함께하는 수작(手作)

전북 무형문화재 유배근(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31호 한지발)과 윤규상(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45호 우산장)을 만나 그 분들의 살아온 이야기와 우리가 지키고 미래로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보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우리동네 생활의 달인

보자기의 달인, 목공의 달인, 스토리의 달인, 자수의 달인, 사진의 달인,



가죽공예의 달인6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능력자들에게 배우는 빼어난 생활 속 비법, 따라하면 나도 달인 될랑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작

인후문화의집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동호회원들이 발벗고 축제에 참가하였다. 지금까지 오늘만 기다렸다면 그간 같고 닦아온 실력의 진검을 뽑아 들었다. ‘후덜덜, 무서버.....!!’ 20가지의 체험과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풍성한 공연, 어린이 놀이터가 마당안에서 들썩이고 있다.



드로잉 & 포토 에세이

우리가 매일 걷던 그 길을 익숙함이 아닌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숨은 이야기를 담아 보았다. 상가, 주택가, 골목 등을 돌아보며 사진을 찍고, 영상 촬영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려했던 아중상권과 의류상가로 가득했던 안골사거리가 경기 침체로 빈 점포가 늘어나는 걸 보면 안타까움이 생기고, 이전처럼 다시 10년 20년 쪽 번창하길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

일상의 재구성

점빵

스마일마트

추억의 한샘탕

인후동 향수에 빠지다

초인종

샴터, 옛 황토집

무진장으로 가는 길

점빵

이인주



모래내 시장 끝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가게가 하나 있다. 그곳은 간판이 없는 탓에 멀리서 보면 가정집인지 가게인지 분간이 힘든 곳이다. 가게라는 사실도 건물 앞에 쌓여 있는 물건들로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옛날 점빵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옛날 점빵은 가게와 가정집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점빵은 가게를 의미하는 전라도 사투리이다. 그마저도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점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른다. 당시에 어찌다 용돈이 생기면 점빵에 들러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곤 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점빵 앞을 지날 때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곤 했다. 하지만 용돈으로 살 수 있는 한정된 물건만 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떠오른다.

점빵은 어린 시절 문턱이 달게 다니며 바라보던 그곳을 닮아 있다. 누군가에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나의 한 때를 선명하게 재현하고 있다. 지금은 대형마트에 밀려서 겨우 자리만 보전하고 있지만 이곳은 나에게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스마일마트

이순자



매일 걷는 길이 있다. 그 길을 통과하면 원하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길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 불과했다. 그래서일까? 매일 맞닿은 길거리 풍경은 내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길은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길일뿐이었다. ‘일상의 재구성’ 프로그램을 위해 그 길을 걸었다. 그 길은 지난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던 길이였다. 당시 나는 7살, 10살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길가에 있는 수영장에 다녔다. 그리고 그 길을 3년 동안 반복해서 다녔다. 수영장 옆 마트는 수영이 끝나면 가는 필수 코스였다. 아이들은 수영을 배우기 보다는 과자를 먹기 위해 수영장을 다녔는지도 모른다. 최근 아이들에게도 그때에 대해 물었다. 아이들은 당시 버스비로 과자를 사느라 버스도 못 탔다고 했다. 그리고 늦었다고 야단맞은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나와 아이들은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당시 수영장 자리에는 병원이 있다. 그리고 그 마트에서는 구제 옷을 판다. 과자를 좋아하던 아이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길은 그대로 있다. 단지 길 위의 상가와 그곳을 걷는 사람이 변했을 뿐이다. 무심코 지나쳐 버릴 이야기를 우연히 길 위에서 만났다. 오늘도 인후동을 한 바퀴 돌아야겠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돌아야겠다.

추억의 한샘탕

박예분



나는 결혼 전까지 전주 경원동에서 살았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나서는 줄곧 인후동에서 살았다. 인후동에 얻은 집에서 아이 셋을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한샘탕을 애용했다. 어린 딸을 나를 따라 1층 여탕으로 갔고, 아들 둘은 남편을 따라 2층 남탕으로 갔다.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온 친정어머니와 여동생들도 한샘탕에서 목욕을 하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곤한 삶을 어루만져주던 시간이었다.

당시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들은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몰라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내 등을 밀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다. 그들이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혹은 이웃이어도 좋다. 목욕탕에서 누군가 내게 등을 내밀면 기꺼이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1층, 2층

1층 안, 1층 바깥

1-1, 1-2

주인, 101, 102, 3번

초인종

김예찬

인후동 주택가를 돌아다닐 때 문득 눈길을 끌었던 초인종. 오늘날 따로 방을 얻어 나간다면 십중팔구 원룸으로 들어가겠지만 예전에는 주택가 한 층을 빌리거나 혹은 방 한 칸 얻어 살던 시절이 있었다.

자식이 많으면 방을 얻기 힘들기도 했고 때로는 주인집 아이와 싸운 아이를 맥없이 혼내야 했던 일은 누구나 한번쯤 겪었던 시절. 그래도 안집과 바깥집, 1층과 2층이 북적북적 거리며 말 그대로 이웃사촌이 되던 시절. 이제는 낡디 낡아버린 어떤 것은 고장난 채 방치된 초인종을 통해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삶터, 옛 황토집

정진수

누가 살았을까! 지금은 빈집이 되어버린 인후동의 옛 황토집. 좋은 황토를 구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지은 집. 지금은 시골에 가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터.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며 행복을 그리던 집이 이제는 빈집이 되어 향수를 자극한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생각하며 일부러 찾는 황토집의 좋은 점을 찾아보았다. 첫째, 황토집은 숨을 쉬기에 습도조절, 항균, 소취효과가 뛰어나다. 습할 때는 습기를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습기를 발산하여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다. 둘째, 황토는 태양에너지의 창고이기에 축열효과, 온열효과가 있어 보온성이 뛰어나며 원격외선 방출로 신경통, 아토피, 천식 등에 효과가 있다. 숙면의 효과가 크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셋째, 황토는 음이온이 발생하고 전자파 흡수 효과가 있다. 넷째, 황토집에는 집진드기가 번식하지 못하고 항상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어 정신 건강에 좋다. 무엇보다 일반주택보다 수명이 길다. 그러나 빈집은 쓸쓸하다.



승강장



옛 모래내 정류소



인후동 정류소

무진장으로 가는 길

장면

별 좋은 하루
안골 네거리를 걷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빨간 시외버스가 들어와 사람들을 내려주고 있다. 내리는 사람들마다 손에 가득 든 보따리가 인상적이다. 두리번거리니 건너편에 직행버스 정류소가 자리하고 있다.

모래내시장 옆에 있었던 간이 정류소가 인후동으로 옮겨온 것은, 농고에서 인후아파트를 지나 안골사거리 쪽으로 새로운 길이 생긴 이후다. 벌써 이곳에서 23년째 무진장으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

자가용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출퇴근 시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15분마다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리며 자리를 메운다.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
저마다 마음의 무게는 다 다르지만
무진장으로 가는 길
나의 직장
나의 고향
나의 집
전주라는 공간 밖으로 나를 옮겨 놓는다.

4. 작은도서관

인후문화의집작은도서관은 2012년 10월 개관 이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커뮤니티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온지 어언 8년이 넘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학교,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인후1동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용자의 다양성과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역주민은 물론 학교등하교시 학생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주변 상가 상인들도 짬을 내어 독서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환경과 시설, 서비스제공에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고 현재도 계속 지역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반영한 10,000여권의 분야별 도서와 공기청정기, 제습기, 책소독기 등을 비치하여 책을 읽기에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검색용 컴퓨터 비치로 누구라도 원하는 도서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1층 출입구엔 도서반납함을 설치하여 시립도서관 못지않은 편리성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하여 타도서관의 책을 인후문화의집작은도서관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무엇보다 지역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인문학적 소양증진을 위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여러 분야의 공모사업과 기획프로그램, 인문학강의, 독서동아리, 원데이클래스 등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대면활동이 주를 이루었던 모든 활동들이 2020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사회변화에 발맞춰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처음이라 서툴긴 하지만 줌을 활용해 영상교육, 독서동아리토론을 진행하

고 있고 만들기 키트를 제작하여 활동 안내서와 동영상도 함께 배포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팬데믹 상황이 안정화되어 마스크 없는 평범한 일상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날을 고대하며 재미있는 책놀이, 인문학강의, 방과 후 독서교실, 작가와의 만남, 중학논술, 다문화체험 등 연령대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려고 한다.

늘 한 자리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해왔듯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만여 권의 양서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발길 닿는 대로 들러 마음의 양식도 쌓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도 느껴보시길 바란다.

1) 인문학 특강

급박하게 변화되어가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기계화되고 획일화 되어가면서 자칫 인간이 가진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보게 된다.

우리 삶을 재조명하고 인간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인문학특강을 통해 세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판단 할 수 있는 비판력과 통찰력을 기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오랜만에 기획한 인문학특강으로 많은 주민들의 관심 속에 김선태 교수의 ‘조선후기 그림의 멋과 아름다움’을 진행하였다. 조선후기의 그림 진경산수, 민화, 풍속화를 통해 시대상을 엿 볼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멋과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조선시대 산수화와 단원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의 이해 그리고 김정희와 조선말기 상황을 이야기 형식으로 흥미롭게 접근하여 주민들의 역사의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권팀리프의 저자 윤현주 작가의 ‘가족의 스토리로 사랑의 탱크를 채워라’는 가족인문학특강으로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로 인해 집에 머무는 아이들이 없어 탱크(집)에 사랑을 채울 시간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말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장춘실 선생님의 ‘예술과 생활의 조화’는 예술과 생활이 경계를 넘어 서로 융화되어 있는 삶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일상에 젖어든 예술과 생활의 조화로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서양예술이 난해하고 복잡한 예술이라는 생각을 탈피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조선후기 그림의 멋과 아름다움



가족의 스토리로 사랑의 탱크를 채워라

2) 독서문화

연령대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과 독서토론을 진행함에 있어, 책읽기의 즐거움과 독후활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접목하여 더욱더 친근한 이미지의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작은도서관과 함께한 ‘이야기 한국사’, ‘세계사’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진행된 장수 프로그램이다.

한국역사와 세계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야기 식으로 접근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스스로독서교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초등생을 대상으로 겨울, 여름방학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만화책 위주의 편독습관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코자 기획하였다.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아이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제공 친구들과의 돈독함도 쌓고 오고 싶은 도서관으로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되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20여 일 동안 진행되어 독서습관형성에 기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학교시간을 이용 도서관에 아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나는 Cook-King은 전주전통문화고등학교 조리과학과 학생들과 연합하여 책과 다양한 요리활동을 접목한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함께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호기심의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경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길 경험할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닐까 싶다. 요리가 그렇지 않을까.



스스로독서교실 ‘즐길거리’



스스로독서교실 ‘놀거리’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어리지만 요리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나아가 다양한 직업군 중 하나인 요리사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점점 퇴색되어가는 명절의 의미를 찾고 계승하고자 2020년에는 설날과 추석에 명절풍습, 명절음식, 전통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음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우리 고유의 명절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나는 Cook-King

여러 공모사업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도서관 개관과 함께 초등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요일엔 도서관에서 놀자’는 동화책 읽고 역할극해보기, 이야기 속 음식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작은도서관 문화가있는날’은 독서문화 활동 운영지원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전문독서문화예술활동 강사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독서



떡국 먹Go 나이 먹Go



마음만은 벌써 한가위 '송편 만들기'



문화프로그램이다. 매월 마지막주 '문화가있는날'에 강사지원으로 질 높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을 통해 지역 안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충전소로서 작은도서관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책친구'프로그램은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이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초등아이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주제의 독서활동을 통한 사고확장,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나와 우리를 생각해 보고 사회와 국가의 새로운 역사가 될 청소년의 미래를 디자인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5월부터 10월까지 총 25차시로 10명의 참여자들이 한명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흥미로운 수업이었다. 참여자들과 부모님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다문화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문화다양성 이해를 키워주고, 실물자료를 통한 오감체험을 통해 진정성 있는 ‘다문화 체험’을 유아, 초등 성인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동화와 풍선을 결합한 ‘풍선동화’, ‘수상한김치똥과 함께하는 북노리 쿡노리’,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엄마 나랑 책놀이해요’, 전주의 역사와 지명, 설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지역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불어 인후동의 지명 유래까지도 알아본 ‘전주 온고을 역사와 지명이야기’, 전주지역 작가와 작은도서관을 결연해 시와 글씨기의 즐거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



다문화체험



책친구

해 추진된 ‘시인의 서재’,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한 새롭고 참신한 인문 활동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인문 활동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한 ‘희곡씨부리기’, ‘도서관 포토존 꾸미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주제별책읽기, 학교밖 청소년디베이트, 애들아토토즐하자, 그림책으로 크는아이들, 중학논술 등 다양한 주제의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하였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늘 곁에 있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도서관 포토존 꾸미기



애들아토토즐하자



시인의 서재



중학논술

5.지역연계 네트워크 활동

전라북도&전주시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2004~2011)

공공기관과의 문화·예술에 관련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풍물교육부터 천연비누, 바느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학습하였다.



2006 천사들의 합창



2008 한스타일 천년전주 한지사랑!



2011 바느질 한 땀

천년전주 천년 사랑축제 (2016)

전주시와 전주시역 7개 천사동(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진북동, 인후 1·2·3동)이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남모르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계승하고 나눔 정신을 확산하고자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이다.



천사축제 - 천사 저금통



천사축제-리플렛



제6회 천사축제 공모전
그림부문 대상 수상작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4~2017)

2012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생들과 가족들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우리 사회에 가득해졌다.

문화예술과 함께 놀고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문이 열렸다.



2014 꿈을 만드는 아이들



2016 빛, 빛을 품다



2017 꿈다락 연구모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012~2018)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부제 아래 문화와 예술의 활동이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지역 내 건강한 문화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지원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대해 고민하고 문화콘텐츠로 재탄생 시키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2 인후동 향수에 빠지다



2017 일상의 재해석



2018 일상의 재구성

전주문화재단

지붕 없는 공연장 (2017~2018)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 5개 문화의집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거리와 광장 등 유휴공간을 예술 동아리 공연과 청년 버스킹 공연, 공예품 전시·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과 문화광장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7 지붕 없는 공연장



2018 지붕 없는 공연장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2018~2019)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문화의집과 동호회가 연계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장이 되었다.



2017 함께해요 빨간코



2018 즐거운 물입, 행복한 상상



2019 오감만족 선물

동네 생활문화 매개 프로그램 (2019)

지역 내 생활 속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생활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다. 동네 공방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난다.



오리엔테이션



오픈하우스



독막 독막 인후 목공 제작소

인후1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협의회 등

구)안골어울마당, 현)인후동민애평날(2004 ~ 2019)

2004년 개최한 인후문화의집 축제 안골어울마당은 2010년부터 동민애평날로 명칭을 변경하며 인후동 자생단체와 연합한 지역축제로 성장하였다. 지역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5 제2회 안골어울마당



2010 동민애평날



2018 안골거리의 향연

전주시 문화의집 연합네트워크

뜻밖의 휴가, 꿀돼지 장터, 전주 수작 등 축제 (20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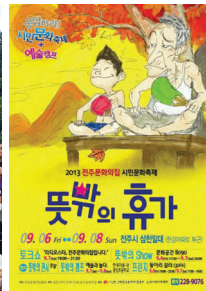
전주 문화의집은 꾸준한 연합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한 거점으로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전주 문화의집
페스티벌 '여인락'



2019 전주공예명인과함께하는
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 인후'



2013 전주문화의집
시민문화축제 뜻밖의 휴가

문화의집 워크숍(2009~2020)

전주문화의집 연합 워크숍은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문화 현장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친목을 도모한다.



2011전주 문화의집 워크숍



2016 성과공유워크숍



2020 전주문화의집 역량강화 워크숍

문화의집 포럼(2008 ~ 2016)

생활문화확산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모색한다.



2008 전주 문화의집 포럼



2011 전주 문화의집 포럼
창의적인 시민의 삶과 문화의집



2016 생활문화 학술세미나
문화가 있는 삶, 전주로 통하다

국립전주박물관

정월대보름행사 (2017~2019)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의 하나인 정월대보름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재현하여 주민문화공동체 실현하고자 한다.



2017 정월대보름



2018 정월대보름



2019 정월대보름

전주시 평생학습관

전주평생학습한마당 (2005~2019)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발표의 장으로 학습자의 학습의욕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관람과 체험을 통해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축제이다.



2005년 제1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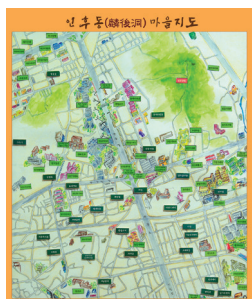
2012년 제7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2019년 제14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생활학습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인후동에 기린이 산다' (2008)

기린 린(麟)과 뒤 후(後)자로 쓰여진 인후동은 성격이 온순하면서도 은혜와 선의, 풍요를 상징하는 기린을 상징한다. 넉넉한 인심을 베풀 줄 알고, 따뜻한 선의를 이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잊혀져가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기억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공동체를 꾸리기 위한 취지의 작업이다.



인후동 마을지도



합죽배미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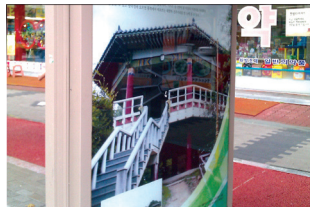
팔죽배미 행사

생활학습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 인후동 희망사다리 네트워크 (2010 ~ 2012)

작은나눔의집, 웅달샘도서관, 인후비전센터, 전일중학교, 동북초등학교, 기린초등학교, 동중학교, 세이브더칠드런(새움지역아동센터), 도담지역아동센터, 인후문화의집 총10개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문화 콘텐츠 개발과 자발적인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다.



2010 평생학습 마을축제



버스승강장 지역 아케이드



2011 명주골 동지축제

평생학습기관 파트너십을 통한 판소리 교육 (2005 ~ 2011)

전주시민이라면 소리 한 대목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시작한 사업으로 판소리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했다.



2005 천년전주사랑 전통체험



2007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 발표회



2011 전주시민 한소리 하기 명창대회

6. 인후아카이브

인후문화의집의 가장 큰 매력은 지역을 이해하고 기록하려는데 있다.

2004년부터 격월로 제작된 소식지 ‘안골사람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일과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마을의 옛 풍경과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포켓북과 판소리가 되어 현재로 건너왔다. 이곳에서 태어나 아직까지도 마을을 사랑하여 떠나지 못하는 사람의 사연과 앞으로 변화할 이 지역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적어 놓는다. 지역의 특색 있는 과거를 찾아내고 현재와의 만남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 1) 소식지 · 자료집
- 2) 축제를 아시나요?
- 3)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소풍
- 4) 명주골로 떠나는 가을소풍
- 5) 도마다리 이야기
- 6) 박승교님의 인후 살이 60년
- 7) 인후동의 과거와 미래_종광대2구역재개발지역

1) 소식지 · 자료집

안골사람들 (2004~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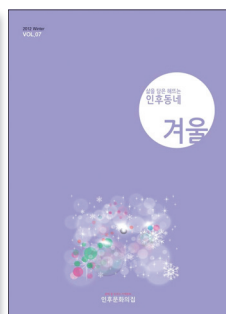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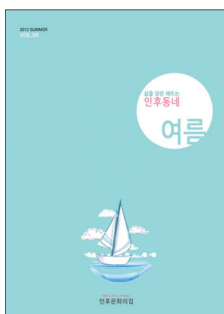
- 안골소리
- NEWS
- COLUMN
- 살면서 좋은 것
- CULTURE
- 인물포커스
- 숨은 일꾼들
- 인후동 스토리텔링
- INFORMATION



삶을 담은 해 뜨는 인후동네 (2011~2013)



- 작가노트
- 인후동 포토에세이
- 지역의 활동가를 찾아서
- 독서나눔 프로젝트
- 생활의 발견
- 바람이 끌여온 추억하나
- 아름다운 사람살이
- 인후문화의집 수강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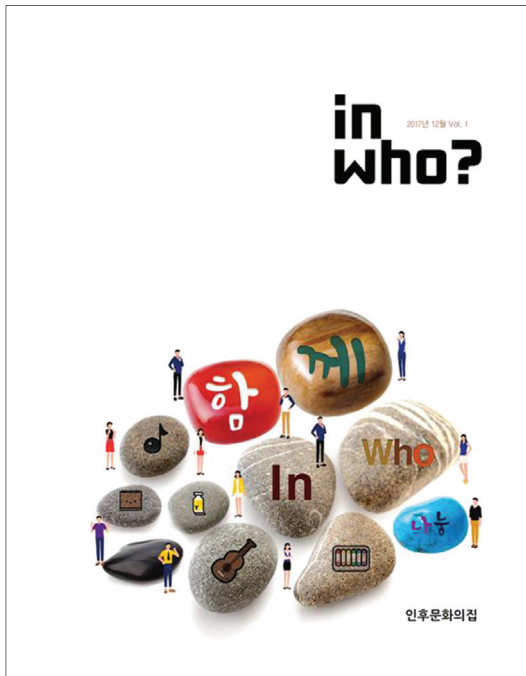
새들 (201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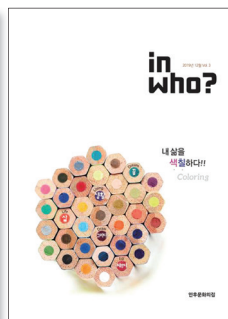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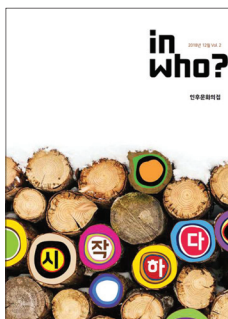
- 문화로 행복한 우리 동네
- 아름다운 사람살이
- 바람이 끌여온 추억하나
- 독서나눔 프로젝트
- 생활의 발견
- 함께하는 지역문화



in Who? (2017~2020)



- 사업현황
- 생활문화플러스
- 주민제안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공연
- 문화나눔 협력사업
- 문화의 일상화
- With 인후
- Makers 인후
- 책마을
- 독서문화플러스
- 프로그램 및 동호회활동안내



단행본 마을조사



2009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소풍 '창작판소리 왜망실뎐'

- 왜망실 지역주민 10분의 인터뷰
- 창작판소리 '왜망실뎐' 사설
- 왜망실의 명소 '일출암'
- 구술조사 과정
-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소풍' 풍경



2010 명주골로 떠나는 가을소풍 '창작판소리 명주골뎐'

- 명주골 / 명주골 언덕배기로 유명한 용수마을
- "성실함 때문에 맨주먹으로 여까지 왔어"
- 夫婦, 용수마을에 빠지다
- 봉사하려고 시작한 일이 성화 봉송에서 시민의 장까지
- 운명으로 키운 9남매 / • 창작판소리 '명주골뎐'



2012 인후동 향수에 빠지다

- 인후동의 지명유래 및 역사 • 문화 자원
- 같은 장소 다른 느낌 인후동 현지답사
- 열정을 더하다 / • 근대문화의 공간 군산에 가다
- 용수마을과 용수마을 사람들 이야기
- 포토에세이



2018 인후 살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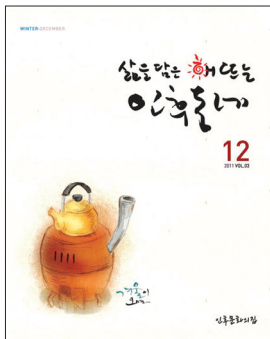
- 인후동을 들어서며 / • 팔죽배미 이야기
- 시사재와 삼한국대부인 묘 터
- 박승교님의 인후 살이 60년
- 종광대2구역 재개발과 그린슈퍼 이야기
- 인후사람들의 이야기



2018 일상의 재구성

- 그림 과 사진을 통해 인후동이라는 공간을 재구성
- 11명의 참여자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29작품 수록

2) 축제를 아시나요?



2011년 겨울호

모두의 축제,
서로 편 가르지 않는 것이 축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모두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수월래.

가수 싸이의 ‘챔피언’이라는 노래 중 일부
분이다. 그저 재미있는 대중가요의 한 소
절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축제의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서로 편 가르지 않고 모두가 소리 지
르며 즐기는 것. 그런데 이러한 축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축제는
‘노는 것’, ‘즐기는 것’ 이상으로 생각보다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말
사전에서 ‘축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축제(祝祭)

1.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잔치’, ‘축전’으로 순화.
2.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제물을 준비
하고 의식을 치르던 과정, 즉 종교적인 제의를 중심으로 펼쳐진 종합예술
을 축제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또 카니발 축제처럼 축제 기간만큼은 평민
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사회통합의 역할을 해
주는 축제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축제의 성격 이외에도 오늘날은 경제성
이나 유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축제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축제의 의미
가 매우 광범위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축제들은 ‘축제의 장’을 통
해서 지역민들이 잠시나마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일상의 활력을 찾는 계기

를 마련해 준다. 그런 가운데 축제 속에 문화 정체성을 가미하여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들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제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지역 전주의 비빔밥축제, 한지축제, 음식문화축제 등이 그러한 예이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마을 인후동에는 어떤 축제가 있을까? 사실 왠지 지껄하고 거창한 것만이 축제라고 할 수는 없다. 서민들의 소소한 일상들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묵어온 한(限)까지도 축제로 승화될 수 있다. 평민이건 양반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축제이지 않은가?

그런 일례가 우리 인후동에 있다. 2009년에 왜망실 노인들의 소소한 옛날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그것을 창작 판소리로 만들어서 세상에 선보인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소풍’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인후문화의집이 주관하여 시작된 축제가,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마을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초복 날을 ‘왜망실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

‘왜망실의 날’은 그저 조그마한 어느 마을의 마을잔치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수많은 일상 중에 하나이며 그 속에서 카니발을 꿈꾸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축제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익숙한 것들을 낫설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매일 매일을 축제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김주희

3) 왜망실로 떠나는 가을소풍

“주민여러분, 오늘 용계마을 3번째 모정에서
마을잔치가 열립니다”

2009년 10월 16일 (금) 17:00



2009 창작판소리 '왜망실던'

왜망실이야기

왜망실은 왜막실이라고도 하는데,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막은대미재에 세워놓은 허수아비를 보고 그 옆 골짜기를 넘어 오다가 모두 죽었다 해서 왜망실, 또는 정유재란 때 죽지 않은 왜구들이 지금의 용계리나 아하리에 들어가 막을 짓고 살았다 해서 왜막실이라 부르기도 하였다는 두가지 설이 있다. 왜막실 혹은 왜망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막은대미재에서 살은 왜놈들이, 여그서 살은 놈들이 그리 들어갔든개버. '왜막실'로. 어. 그전이는 왜막실여. 왜막. 왜놈들이 막을 짓고 살았다 허서 왜막실여. 지금은 이름을 갈아서 왜놈이 망했다 허서 '왜망실'인디, 그전 어른들 말은 왜놈이 그리 숨어들어가서 살어서 막을짓고 살어서. 왜막 막을짓고 살았었다. "

35년간 통장직을 수행한 송태현 할아버지는 김해 김씨의 족보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족보상에서는 마을 이름이 봉광리(鳳廣理)로 적혀 있더라. 봉광리라는 이름 그대로 넓은 들에 새가 많다는 뜻으로 마을 이름으로는 신뢰할만한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중론이 모아졌다.

왜망실이나 왜막실은 모두 구전에 의해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봉광리는 문헌상에 나와 있는 명칭이니 확실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여 마을 이름을 봉광리로 개명해 달라고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창작판소리 왜망실전

사설 _ 최기우(극작가, 최명희문학관 기획연구실장)

소리 _ 이용선, 최재구(소리꾼)

전주동쪽 어금니같이 깊고깊은 왜망실(음원1)

야트막한 산들이 둘러싼 전주는, 서쪽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황방산, 천잠산, 매봉산, 모악산, 남쪽에서
동쪽으로 금성산, 학산, 남고산, 고덕산, 숫재, 방산,
두리봉, 산첩첩 물넘실 푸르고 푸른 고장이라. 헌데,
전주에서 육십년 칠십년 산 사람도 왜망실의 두리봉
묵방산에 올라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인데, 첩첩한
산등성이 겹겹한 봉우리 그만큼 청정한 곳이라.

아중저수지 지나 전주의 어금니처럼 깊고깊은 왜망실은 골짜기 안쪽부터
아래로, 어금니아자 아래중자 아중마을, 어금니아자 아래하자 아하마을,
용용자 시내계자 용계마을, 이실재자 발전자 재전마을, 이렇게 네 개의
작은 마을로 이뤘는데,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철철 넘치고, 산봉우리도
빛이나는, 도심인근 혼치않은 흥겨운 마을이라.



전주동쪽 어금니같이 깊고깊은 왜망실
바람불면 숲거리 느티나무 난분분 훑날리고
복숭아꽃 배추꽃 열무꽃 연분홍 꽃잎물결
한아름 별달품은 아중재 도화별천지라네
참나무향 그윽한 숫재 두리봉 묵방산
한발두발 성황당 돌무더기 소원을 쌓고
손없어도 천년제사 지낼 사람 있다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 천하명당이라네
사람들의 구성진 웃음은 또 어떠하리
움켜쥐기보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왜망실 사람들이라

한분한분 눈물도 웃음도 깊더라(음원2)

왜망실에 이런저런 사연도 깊지만, 얼마나 재미진
분들도 많은지. 차마, 실명거론은 못허것고, 재미진
할매 한 분 만났는데, 그 할매한테,
“영감님은 살아 계세요?”하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럴싸했었다.

“영감님은 살아 계세요?”

“있으나마나여.”

그 할매 젊을적은 전주 시내며 평화동까지 걸어 다녔다는 말에, “평화동까지
걸어 다녔으면 시간 많이 걸렸을 것인데, 얼마나 걸렸어요?” 하고 물으니,
“몰르지. 아, 그때는 시계가 있가니? 시계 없으께 그냥 대충 땡기는 거지.
지금이야 식모도 시계 차는 시상이지만, 우리가 닭구새끼 텔꼬 다닐 수도
없고,”

(누군지 아시것소? 알만허지요? 잘 들어보시믄 이따가 나와요)

조사단이 몇날며칠 일삼어 돌아댁김서 만난 어르신이 적지는 않은디,

한분한분 눈물도 웃음도 깊더라.

언제나 흥겨운 전주대표 소고재비 김형철 할아버지

고생도 눈물도 웃음이라 말재주꾼 정복순 할머니

왜망실 첫 번째 대학생 엘리트 정규화 할아버지,

삼십오년 청렴지기 영원한 통장님 송태현 할아버지

얼굴가득 인자한빛 따뜻하고 소담해라, 유복례 할머니

앞마당 당산나무 왜망실 안녕비는, 정대식 할아버지

낡은자전거 페달밟아 고향으로 출근하는 김용기 할아버지

먼저떠난 부군을 그리워하는 애뜻한 정이라, 최복례 할머니

범씨하나 허투루 앓는 정직한 농사꾼, 최완석 할아버지

아들딸 호강잔치 휘모리 가락으로 살고계신 김덕문 할아버지

인생사 자글자글 주름굴 심난해도 웃음소리만은 맑고 청아한데,

왜망실 마을 어르신들 천수천세 만수만세 만만세, 만세만세 만만세.





왜망실, 왜막실, 와막실, 봉광리(음원3)

이곳 왜망실은 조선말엽 전주군 용진면, 일제강점기
원주군 용진면이었다가, 이승만때 다시 전주시
우아동으로 편입돼 지금에 이르렀는데, 왜망실 부르는
이름부터 참으로 많고도 험난하겠다. 지금이야 왜망실로
일체가 되었지만, 왜망실, 왜막실, 봉광리, 기와골,
가막골, 와막실.



저어기 산날망에 기와굽는 가마가 두어개 있었는데, 1907년 도시계획으로
성곽성문이 모두 철거된 풍남문 기와가 모두 여기에서 나왔겠다. 그래서
기와골, 가막골, 기와와자 막막자 와막실.

정유재란때 남원성전투서 기세등등해진 왜놈들이 전주로 진입하면서 막은대미
재에 세워놓은 허수아비를 보고 그 옆 골짜기인 원수너미 쪽으로 넘어오다가
매복하고 있던 관군한테 참패를 당했는데, 왜놈들이 넘어 오다가 모두 죽었다
해서 왜망실.

가장 황당한 마을이름은 왜막실이라. 그때 패잔병들이 조선에 귀화하고 마을
저어쪽 골짜기인 산막골서 막을 짓고 살았다, 해서 왜막실이라 부르기도
했다는데,

아, 생각을 해 보소. 이 마을만 해도 묻지마라 갑자생이 솔찬히 많고,
징용이네, 광산이네, 일본놈만 떠올리든 지금도 치떨리는 사람들이

수십인디. 어떤 시러배 아들놈이 왜놈들 살았다는 흔적을 마을 이름에 그대로 남겨뒀것는가. 그냥 말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증자도 없이 지어낸 이야기가 겻지.

그러다 보니,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것다. 송태현 어른신이 겪은 이야기 하나. 어느 대학에서 교수들 칠팔명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묻기를,

"여그는 투기가 많이 산답서요?"

"투기요?" "투기."

"투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 소리가 아니고 투기가 많이 산답서요?"

곰곰 생각해도 모르것다. 궁게 똬소리를 그렇게 하냐, 다시 물어보니,

"왜놈들. 쉬였다고. 왜놈들이 여그서 막치고 살았담서요?"

"똥이여?"

그 놈 먹살을 톱, 허니 붙잡고는 정신이 얼얼하도록 혼썰을 내는데,

"어떤 놈의 교수가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릴 하냐? 근깨룽, 똥여, 그러믄은

여그서 막치고 살았응께 튀기들이 많다 이거여. 양씨 김씨 이씨 똥 그 사람들이 다 튀기라고?"



그 교수놈들 손살같이 내뺄면서도, 교수 모양새 안빠질라고 그랬는지, 저 양반이 도대체 왜 욕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고개를 갸웃 갸웃 하는 것이었다. 믿거나 말거나.

각설하고,

이 동네서 오래 산 김씨네 족보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불렀던 이름을 찾았는데, 이름하야 새봉자에 넓은광자 봉광리. 본시 산이 넓게 마을을 감싸고 곳곳에서 산새들이 우짖지는 고즈넉하고 착실현 동네라.

해방부터 이 동네서 살았다는 정대식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여고는 한국전쟁 나던때도 사람들이 같이 단합이 돼서 서로 누가 뭐 찍고 헐뜯고 그러지 않았어. 좌익이니 우익이니 해췄고 그러질 않았어. 윗마을도 아랫마을도 인심만 좋았어. 지금도 타지서 사람들 오면은 하나 그런거 없어.”

하믄, 그무선 인공때도 인심좋은 이 마을에 왜놈들이 살었다고 왜막실이 웬말인가? 지금 시상이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 외국 사람이랑 결혼을 많이 하니까, 별 일도 아니지만, 왜놈하고 조선 사람하고 섞였다고 대놓고 말허믄 그게 교순가? 시러배아들놈이지.

여튼, 예뻐왜자에 아득할 망 다실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마을마다 물물이 아득하고 예쁘게 이어진 모두를 다 갖춘 왜망실 마을들이 조상대대로 무탈하게 살아온 것은 커다란 은덕이라.

당노로 시들시들 현 최완석 어르신 마눌님도 씻은듯이 낫고, 얼굴도 못보고 시집온 정대식 어르신 마눌님도 토실토실 살쭈 찌시고, 최복례 어르신은 이승서 못다한 인연 꿈속으로 이어지고, 왜망실 주민 모두 한평생 해로하고, 수복과 자손만대 번영을 비나이다.

굽이굽이 왜망실은 초록을 닮았구나

바람담고 태양담은 씨앗내린 땅이라네

웃음에 슬픔있고 슬픔에 웃음있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년을 노래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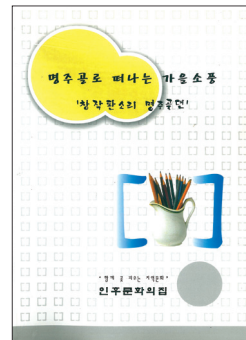
딩기딩기 덩실덩실 에헤라 흥을시키고

노랫소리 신명나는 왜망실이 최고로세

4) 명주골로 떠나는 가을소풍

“주민여러분, 오늘은 금평경로당 모정에서
마을잔치가 열립니다”

2010년 10월 29일 (금) 11:00



2010 창작판소리 '명주골연'

전주시 인후동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은 전주사람 좋아하는 기린봉의 북쪽이라, 기린봉의 '린'자 빌어 인후동이라 하였는데, 세상인심 얻은 연 후, 선비들의 고장이요 지우산의 고장이요 부채의 고장이요 명주베의 고장이라.

어디 그뿐일까.

무주진안 장수사람 무진장 많이 사는 인후지지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도 시개발 거치면서 갈 곳 몰라 애태우던 타지사람 한마음에 모여 살던 어질고 후덕한 인심인후 고장이라.

기린봉서 불작시면 선린사를 가운뎃다리마냥 두고 양쪽으로 낮은 산자락이 쪽 뻗었는데, 인후동이 본시 낮은 산기슭에 오붓소붓 자리 잡은 마을들이라.

명주골 토박이 정창규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여가 전부 오지였지. 76년도 구역정리 하기 전에는 여그 쪽 가면서 논만 좀 있고, 전부 산이여. 시내 나갈라면 꼬불꼬불 꼬불꼬불 조그마한 길이 놓고 앞에 있고. 집이 있었가니? 모래내 거기 조금 있고. 지금 시장 있는 데로 거리 전부 논이었잖어. 전부 논이여, 논.”

지금 논과 밭은 관공서 아파트 대형마트에 밀려 죄다 사라지고, 충기 좋은

어르신들 가웃가웃, 기억으로 남았는데,
 호랭이 내려오던 범터 한배미
 낮도깨비 나왔던 가재미골 도채비골
 버드나무 피꼬리집 유지앵소혈 명당 진버들
 진버들서 고개넘어 움푹파인 친구렁
 내동내동 안골마을 안골서쪽 농원마을
 김씨선산 와우형국 뚱뚱고개 쇠뚱바우
 양상군자 도덕골 스님공덕 도마다리
 무당살던 물탕골 달래밭던 달룻갯재
 성황당으 서낭나무 서낭탱이고개
 화약창고 화약골 명주난다 명줏골
 심씨들이 만든방죽 심방죽
 밀가루로 새경주던 밀가루방죽
 팔죽쭈던 팔죽배미 함죽선으 함죽배미
 비단천 색색명주 한땀한땀 수놓듯이
 인후동 옛사람들 살던곳이 여럿이라

외양뜰서 농사짓던 새터사람이며, 15년간 인후통장 유재봉 이순자 부부, 용수마을 경로당 일등공신 백옥례 할머니, 모진 세월 버텨내며 손자 셋 든든하게 키워놓은 박례순 할머니, 가슴으로 낳고 키운 9남매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김영숙 할머니같이 부지런한 인후사람 산논산밭 만들면서 시나브로 모여 살다, 도시개발 지구개발 앞으로뒤로 좌로우로 옮기기를 수차례,

전주동물원 짓는다고 심지 뽑아 찾아든 예전 용수마을 출신 박순임 할머니, 권리금 20만원 땅 받아 집짓고 터 내린 김한술 백옥례 부부도 인후동 산증인이라.

지금은 옛 흔적 눈 씻고도 못 찾지만, 해방되고 만주서 돌아온 귀환동포 김만근 할아버지 숙사마을 기억이 또렷한데, “먼여 들온디는 구숙사고, 난중 들온디는 신숙사여.”

해방난민 전쟁난민 구호주택 숙사마을
 귀향동포 구속사요 생계곤란 신숙사라
 구청사서 뜯은나무 얼기설기 지었구나
 방한간에 부엌한칸 다다다닥 붙였는데
 별빛하늘 이불삼고 빗물받아 밥해먹고
 몸널곳이 생겼지만 날품팔이 신세라네
 설움설움 하던중에 반딧불이 만났는데
 대나무를 칼로깎아 우산대를 만들고선
 땃살마다 종이붙인 종이우산 너로구나



오갈 곳 없는 고된 몸, 눈물바람, 한숨바람, 울화치미는 세월 가고, 오늘이
 행복이요, 인후동이 그 바탕이라. 어르신들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인후동이 좋을시고.

명주골 비단길

비단이장사 왕서방도 눈이 휘둥그레질 비단길이 전주에 있었으니, 인후동
 어르신들 까까머리 시절까지 윗비단리 불릴만큼 비단명주 산지였던 전주시
 인후동 도당산 아래 명주골 명주골 명주골이라. 본시 사람 구경 힘들던 이날
 망에 사람들이 들던 때가,

동학농군 힘찬함성 전주부성 들이치고
 갑오경장 개혁바람 상투꼬리 잘릴때라
 글방선비 난을피해 깊은산골 찾았던데
 전주선비 걸음걸음 되똥되똥 양기작양기작
 느릿느릿 나릿나릿 여드레 팔십걸음

“아파, 이 정도론 되얏긔지. 참말로 겁나게 멀리 와브렀다.”

죽을 힘 다해 찾아와서 자리 잡은 곳이 전주부성서 시조 서너 수 읍을 지척
 거리라.

선비님네 건지산 도당산 화전일귀 생활혈적, 금강산도 식후경 배불러야 양반인 것을 그때서야 알았는데.

“북문 밖의 한 노인이 명주 베를 잘 짠다는데 그 양반 혼장삼아 베라도 짜보세나.”

하냥없는 선비님네 상전벽해 꿈꾸면서
뽕나무 곳곳심고 누에고치 길렀는데
금지옥엽 섬섬흰손 주홍베를 올라타고
일광단 월광단 명주한필 짜보는데
발걸음도 느린양반 손놀림이 빠를건가
강태공이 세월났듯 늙은소 흥정하듯
여물썩는 소입처럼 처영사안 ——,

하늘님이 성정깊은 인후동 사람 위하느라 그랬는지, 전주사람 드문드문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넘눈에는 굵뜨고 느렸지만 실금실금 뽑다보니 한올한올 가늘고도 질긴것이 명품중의 으뜸이라.

선비님네 명주베가 이름나기 시작하는데, 한적했던 골짜기에 명주베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드니, 남문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하루같이 오일장날이라.

이름 없던 이 마을에 이름도 생겼는데,

명주베의 으뜸산지 조선최고 명주고을
명주처럼 결이고운 선비들이 사는구나
한올한올 섬기는맘 길길마다 새겨졌네
완산고을 명주골 명주골 명주골이라.



헌데, 이를 어찌하랴.

동풍에 수수잎 꼬이듯, 죽염나무 도깨비 꼬이듯, 쓰레기통 파리 꼬이듯, 마수걸이 외상걸리듯, 흥시먹다 이빠지듯, 인후동의 탄탄대로 명주실타래 꼬

이웃 얹히고설키기 시작하는데, 하이고오, 어찌꼬오…….

일제강점기 쪽발이들 선비후손 모여사는 명주고을 눈엣가시 어찌 아닐건가.
속이 뻔뻔이 똥구멍보다 못 현 그놈들이 명주골 코당은곳에 공동묘지 만들
었으니, 이동면공동묘지 금암공동묘지라 불리는 바로 그곳이라.

정창규 할아버지 말씀을 듣자오면,

“여시며 개며 온갖 들짐승들이 무덤가를 파헤치고 망자옷을 뒤집어쓴 개들
이 귀신처럼 쏜살같이 내달리곤 했는데, 하아, 무서버라.”

손톱 끝에 스쳐도 생채기 남는 명주필 같은 마음 가진 명주고을 선비들이 그
어찌 견딜 수 있단 말인가. 명주 올같이 가느다란 끈으로 온 몸을 죄는 것 같
았으리.

1970년대 후반에는 육지구 구획정리사업까지 벌어져 결국 명주골 명성이 온
데간데없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과거 명성 지키는 옷가게들이 하나 둘 모여
들어 명맥을 유지하고, 여관이름을 따 해금장사거리라 불리던 곳을 명주골
네거리로, 그곳에서 전주역까지는 명주길로 부르다니, 호화롭던 명주골 옛
영화여, 다시 찾아 오시겠네.

한올한올 섬기는맘 길길마다 새겨졌네

완산고를 명주골 명주골 명주골이라.



5) 도마다리 이야기 ²⁾



인후동에는 본래 큰 물길이 없었으며, 단지 작은 규모의 모래내가 흘러 내렸다. 이 모래내가 서낭당이름 지나 진안으로 가는 길과 만나는 이곳에 있었던 다리를 도마다리, 도매다리라고 하였으며 인후교 라고도 불렀다. 이 다리는 원래는 구수다리라고 하였는데, 도마다리라 불리게 된 이유가 전해져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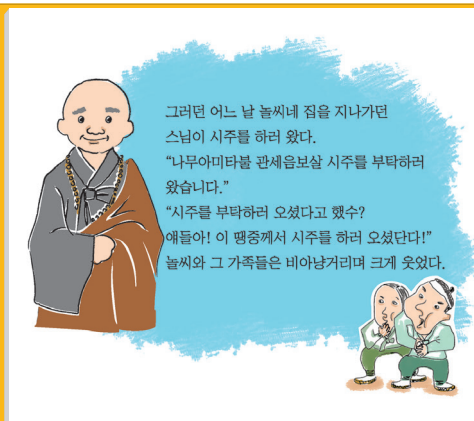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2) 『향토전주사』, 1984, 전주문화원



옛날 옛날 800여 년 전에 조세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놀씨 문중의 집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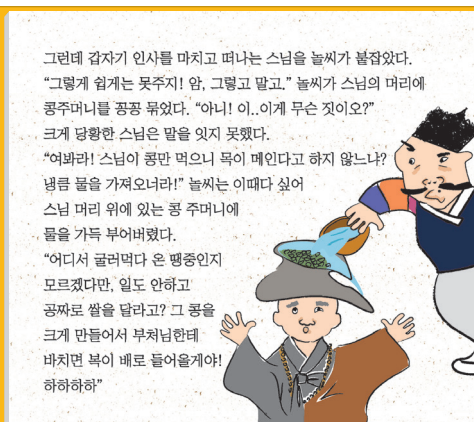
그 집안은 자손 대대로 부자였는데
욕심만 많고 이웃의 배고픔은 나 몰라라 하여
인심이 야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놀씨네 집을 지나가던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주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시주를 부탁하러 오셨다고 했수?
애들아! 이 땀중개서 시주를 하러 오셨단다!”
놀씨와 그 가족들은 비아냥거리며 크게 웃었다.



잠깐 생각에 잠긴 놀씨는 웃음을 멈추고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콩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꺼내들었다.
“스님, 제가 재산이 없어서 콩 밖에 줄 것이
없으니 이거라도 괜찮으면 가져가슈!”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를 마치고 떠나는 스님을 놀씨가 붙잡았다.
“그렇게 쉽게는 못주지! 암, 그렇고 말고.” 놀씨가 스님의 머리에
콩주머니를 꽂종 뒀었다. “아니! 이..이게 무슨 짓이요?”
크게 당황한 스님은 말을 잊지 못했다.
“여봐라! 스님이 쫄만 먹으니 목이 메인다고 하지 않느냐?
냉큼 물을 가져오너라!” 놀씨는 이때다 싶어
스님 머리 위에 있는 콩 주머니에
물을 가득 부어버렸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땀중인지
모르겠다만, 일도 안하고
공짜로 쌀을 달라고? 그 콩을
크게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바치면 복이 배로 들어올게야!
하하하하”



스님은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쳤다.
“아이쿠 머리야! 아이쿠 내 머리! 살려주세요!”
“그 스님을 당장 내쫓아라! 예헐!”
이렇게 놀씨는 먹을 것을 얻으려
오는 사람들이나 스님들을 골탕 먹이고
내 쫓는 것을 즐겨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사는
마을사람들에게 물었다.
“나무아미타불, 여보시오! 지나가던 사람인데
잠시 물어볼 것이 있소이다.”
“그러시오, 내가 아는 것은 전부 대답해드리리다.”
“저기 저 큰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놀씨? 허허. 놀씨라면 야박하고 성질 더럽기로
소문이 자자~하지. 옹고집이 울면서 팔죽배미로
도망칠 정도면 말 다한거 아니요? 잊게제도
한 스님이 호되게 당하고 서낭당으로 갔다니까 쫓쫓.”

이 말을 들은 대사는 고약한 놀씨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마음씨도 나쁘고 야박한 놀씨가 어떻게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던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소는 옛날부터 신성하고 귀한 짐승으로 여겨졌다.



놀씨네 집안은 대대로 죽은 조상들이 기린봉 하리에 묻혔는데
그 곳이 바로 소가 었드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또한 소에게 밥을 담아주는 구유(구수)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놀씨네
마을 다리 이름이 구수다리라고 불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좋은 땅에 조상을 잘 모신 덕도 있지만 그렇게
신성하고 귀한 소랑 관련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대사는 한가지 죄를 내었다.
재물을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수다리’를
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도마다리를 건너시려구요?
이 도마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내 엇전 한냥씩 드리리다.”
여리둥절한 행인들은 재빨리 돈을 챙기며 물었다.
“도마다리? 난 처음 들어보는데? 자네, 들어본 적 있는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도매다리?”
“도매다리가 뭐여! 도마다리라는구면, 귀 좀 열고 다녀 이 사람아!”
“이름이 어찌되었든 돈도 벌고 좋네! 도마다리? 거 이름도 참 좋구면!”

그 모습을 바라보던 대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 곳을 건널 때마다
도마다리라고 하면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요! 도마다리
한번 잘 건너는구나! 다들
한마디씩 하시오들!”



이렇게 대사는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엇전 한냥씩 주면서
‘구수다리’를 ‘도마다리’로 부르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신성한 소와 관련이 없어져 놀씨 집으로
재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사람들에게 구수다리는 도마다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날 재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고, 이번 해는 농사도 잘 안되고 힘들구면,
아무래도 이 마을을 떠나야겠어.”
“그렇게 말이여, 나도 이제 농사짓는
일을 그만뒀야겠구면.
다른 마을로 가서 장사나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가족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 쫓쫓.”



대사의 생각이 맞았다.

구수다리가 도마다리라고 불리게 된 이후부터
조세마을은 점점 가난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떠나버렸다.
땡땡거리던 부자 놀씨네 집은 인심을 잃어 아무도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고, 일꾼을 구할 수도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니!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떠나가니 우리 눈과 발일은
누가 하나?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거 아닌가!”
이때 옆에서 놀씨 부인이
한가지 제안을 하였다.



“여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여는 것이 어때요?
그럼 사람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놀씨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울거니! 역시 내 마누라구면,
이제 살 방법이 생겼구나!”



다급해진 놀씨는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소문을 듣게 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몰려들어 배불리 먹었다.
“아니 저 야박스러운 놀씨가 웬일이래?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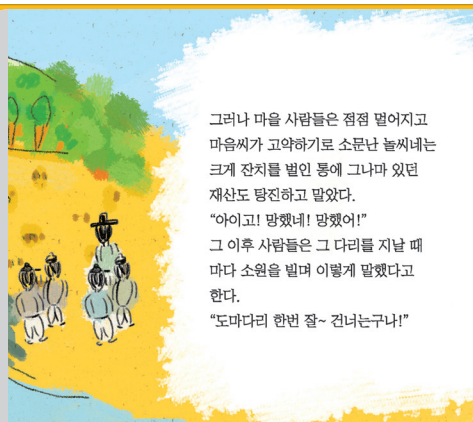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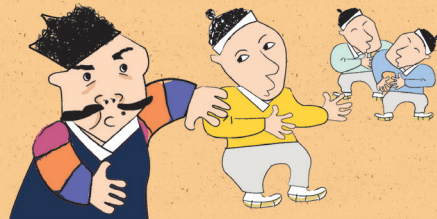
“내 생각엔 아무래도 이 다리 덕분인 것 같아. 어이, 안그런가?
도마다리라고 하면 복을 많이 받게 될 거라는데!”



“거 도마다리~ 도마다리~ 하나까
이렇게 먹을 것도 생기질 않나!”
“듣고보니 그런 것 같구먼!
난 앞으로 여기 지날 때마다
도마다리 건너네~ 할 것이니 내가
부자 되면 이 다리 덕분인줄
알게나!”

마을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일들이 도마다리 덕분이라고 믿었고,
잔치를 벌이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놀씨는 크게 놀랐다.

“아이고! 잔치를 벌이면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이게 뭐가?
아! 여보게들 그냥 가면 어떡하나,
가지 말고 내 맘쯤 들어보게!”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마을씨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놀씨네는
크게 잔치를 벌인 틈에 그나마 있던
재산도 탕진하고 말았다.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그 이후 사람들은 그 다리를 지날 때
마다 소원을 빌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도마다리 한번 잘~ 건너는구나!”

6) 박승교님의 이후 살이 60년



이후동 살이의 시작_코치산(도당산)의 추억

저는 1957년도에 이후 1동에서 태어났어요. 유일여고 옆(현 송정 서미트 아파트 자리) 마을에서 태어나 이사는 서너 번 했지만 지금까지 이후동에 서만 계속 살았어요. 그 당시 이후1동 주민 센터 부근이 거의 논과 산, 밭이었어요. 안골사거리에서 유일여고까지 도로도 어릴 적 뛰어놀던 야산이었어요. 옛날 이후동의 도로는 서낭탕이에서 기린사거리, 삼성서비스센터, 유일여고 앞, 기린아파트, 이후 포스코더샵 아파트(구 신우아파트) 사이에 편도 1차선 도로가 소양, 진안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였지요. 지금은 골목길처럼 생겼지만 당시에는 제법 큰 도로였어요. 그리고 모래내에서 생명과 학교(구 농업고등학교), 동중학교 앞길로 해서 홈플러스로 가는 좁은 도로가 봉동, 고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동네 뒷산이 도당산이에요. 지금은 이후 공원으로 더 많이 알려졌지요. 우리는 도당산을 ‘코치산’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모르

했습니다. 산꼭대기를 군부대 용어로 고지라고 하는데 아마 그게 구전되다 보니 ‘코치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상에 인후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옛날에는 방공호처럼 만들어져 있었어요.

도당산 꼭대기에 올라서 바라보면 북쪽방향으로 저 멀리, 지금은 사라진 화장터와 공동묘지가 보였어요. 아중천변이 있는 동쪽으로는 논이었고 남쪽으로 하평, 진버들, 가재미 마을은 다 논이나 밭이었죠. 지금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인데 어렸을 때는 한참 올라가서 꽤 높아 보였어요. 어릴 적 겨울 방학에 눈이 많이 쌓이면, 동네 형들이랑 새벽부터 집집마다 돌아가며 서로 깨워주고 ‘산에 올라가자’고 불리내서 도당산 꼭대기까지 오르기도 했죠. 그때는 추위를 피할 곳도 없고 입을 것도 별로 없어 꽤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덤벼대며 뛰어놀던 그때가 마냥 즐거웠어요.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었네요. 저 도당산! 이제는 저 산만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네요.

어린 눈으로 보면 제법 컸던 방죽

유일여고 앞을 진구렁이¹⁾라 하는데 그 안쪽 마을을 ‘뗏집 동네’²⁾라 불렀어요. 논 가운데 작은 방죽이 서로 멀지 않은 곳에 두 개 있었고 우리는 위 방죽, 아래 방죽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안골 사거리에도 제법 큰 방죽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 보안대가 있었던 선변 아파트 자리에 방죽을 만들었는데 새로 만들었다 해서 거기는 ‘신방죽’이라 하고 안골 사거리는 부락 이름을 따서 안골 방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크지 않았던 방죽이 어렸을 때는 제법 크게 보였어요. 어릴 적 뛰놀던 학교 운동장도 지금 보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듯 말이에요. 당시에 방죽은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하니까 논 가운데 있던 작은 방죽들은 개인이 만든 방죽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안골 방죽과 신방죽은 제법 큰 방죽이었지요.

제가 초등학교 3~4학년 때쯤으로 기억해요. 우리 동네 논 가운데 작은 방죽에서 썰매놀이를 하다 얼음이 깨져서 빠졌는데 밖에 있던 동네 형이 건

1) 질척거리는 진흙 구렁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일대가 습지여서 생긴 지명

2) 뗏장으로 지은 오두막

네 준 막대기를 잡고 가까스로 빠져나왔던 적이 있어요.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 두껍지 않은 얼음은 썰매를 타면 약간 위, 아래로 움직여요. 우리는 구름다리라며 오히려 그걸 더 재미있어하고 즐겼거든요. 그 지점을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데 좀 천천히 지나갔던가 봐요. 그러다 제가 빠진 거죠. 만일 그 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얼마나 추웠던지 그 추운 겨울날에 물에 흠뻑 젖은 채 집에 와서는 부모님께 혼날까봐 얘기도 못하고 옷을 몰래 갈아입었던 기억이 나요.

안골의 1960년대 풍경_ 신작로와 전깃불

당시 안골은 정말 한적한 시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제가 살던 마을은 큰길 따라서 골목길에 수십 가구가 살던 동네였어요. 어느 마을이고 집을 빼면 거의 논이나 밭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유일여고에서 안골 사거리 큰길 북쪽이 주택단지로 변했지만 당시는 ‘강당산’이라는 작은 산이었어요. 우리 동네와 안골을 잇는 산길이었지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어머니께서 보리, 깨, 콩, 고구마, 감자 등을 짓던 밭에 안양에서 포도나무를 사다가 심어 이 동네에서 포도과수원을 제일 처음 하셨어요.



포도 과수원에서 찍은 박승교님 가족사진/ 현재 송정 서밋 아파트 부근 / 1967년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는데 아마 1960년 중반쯤이나 됐을 겁니다. 우리 동네는 그래도 전기가 빨리 들어 온 편이에요. 그때 나이는 어렸지만 전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천정에 전기 배선 공사를 해놓은 걸 마루에서 누워 올려다보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도 전기가 정말 들어오는 건가 싶어서 신기했죠. 그때는 등잔이나 호롱불로 불 밝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옛날 대다수의 집들이 초가집이었어요. 우리 집도 원래 초가집이었는데 아마 그때쯤 지붕을 기와로 교체했을 겁니다.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변하니까 단순히 지붕만 변한 게 아니고 새로 지은 집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전주 아파트 문화의 부흥기 1970년대_인후 주공 아파트

1970년대만 해도 전주시에 아파트가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전주에서 아파트가 주거공간으로 부흥하던 초기에 인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규모가 작은 연립 주택들이 몇 있었고 효자동 주공 1단지 아파트가 인후 아파트보다 조금 앞서 들어섰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후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원래 야산이나 밭, 과수원이었어요. 당시에 놓고, 모래내 쪽으로 길 따라 가려면 한참을 돌아 가야해서 가끔 그쪽 산길을 가로질러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안골 사거리에서 생명 과학고로 가는 길이 산길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산길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 당근밭이 있었는데 오가며 주인 몰래 당근을 캐 먹은 적도 있었지요.

그 시절에는 일반적으로 처음 얻는 신혼집은 부엌이 딸린 방을 월세나 전세로 얻는 일이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새로 지어진 인후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많았어요. 일단 깨끗하고 편하잖아요. 그때부터 생활에 편리한 아파트가 새로운 주택 문화를 선도하는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1980대 초반에 선배들이 인후 아파트에 입주해서 집들이 할 때 가보면 편리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소 좁기는 해도 주택 셋방보다는 훨씬 낮고 편리하니까요. 13평짜리 아파트에 방이 두 개, 거실과 싱크대 딸린 주방과 화장실이



인후아파트 2단지 놀이터/1983년 /박종대님 개인 소장

있었죠. 그리고 난방은 연탄보일러였어요.

그 당시 아는 선배님이 1982년에 인후 아파트 2단지로 이사를 했는데 500 만원에 입주했다고 해요. 주로 13평이 주종이었는데 22평은 제법 큰 평수의 아파트였죠. 그래서 22평에 입주한 사람들은 제법 자부심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다지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1단지 22평에 사는 우리 선배가 은행을 다녔어요. 금융권, 공무원, 교직처럼 대체적으로 소득이 좀 괜찮은 사람들, 그때만 해도 중산층이라고 봐야겠죠. 그 시절,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바로 자기 집 장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1970년대에는 부엌 딸린 단칸 셋방에서 신혼집 출발을 많이 했지요. 그때 당시 인후동, 우아동 일대에 부엌 딸린 단칸 셋방 보증금이 1~2백만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

서 돈 모아 이사 가는 곳이 인후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22평짜리 아파트는 제법 잘사는 사람들과 보면 돼요.

인후 아파트 생활과 사람들

인후 아파트 초창기에는 30대~40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전체적인 인구 연령 분포가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세대는 결혼을 일찍 한 세대들이니까 입주민 자녀들이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였어요. 그러니 당시 아파트에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지요. 요즘은 아쉽게도 아파트 놀이터에 아이들 모습 보기가 힘들어요.

인후 주공 아파트 재개발 논의

그 때 당시 재건축 조합 사무실이 이 앞에 있는 전북은행 안골지점 2층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원래 재개발이 순조롭게 잘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여기 인후 아파트도 재개발하면서 좋지 않은 얘기도 좀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차츰 인후동을 떠나면서 오래된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인기가 떨어졌어요. 오래되고 소형 평수였던 인후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변 상가도 주변 지역에 비해 점점 낙후되기 시작했죠. 그 시점에 중앙업체에서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높았죠.

그래서 인후 아파트 1단지는 휴 플러스 아파트가 24~25, 32~33, 43, 57평으로 총 1,236세대가 입주를 했고 인후 아파트 2단지가 위브 어울림 아파트로 24, 44, 45, 52평으로 총 1,549세대가 입주했어요. 그때 조합원들은 평당 410만 원 정도에 분양됐고, 일반분양은 그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거의 4~5천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 전에는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4백만 원대였는데 그때부터 5백만 원 중반대로 뛰기 시작했어요.

잊혀진 인후동의 추억_동진공업사, 팔죽집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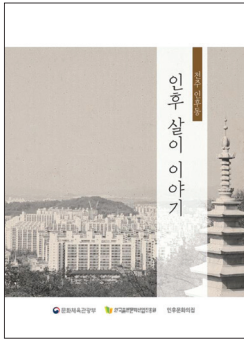
제가 아주 어렸을 적 기억 속의 건물은 지금 별로 남은 곳이 없어요. 한 2~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많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은 거의 없어요. 그나

마 삼호아파트 너머 철물점 옆 골목에 옛날 모습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아직도 토담이 그대로인데 사람이 살지 않아서인지 보기에는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전주교 방향으로 조금 가다 보면 우측에 ‘동진공업사’라고 있어요. 그곳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자리인데 ‘인후자전거포’였던 길로 기억해요. 옛날에는 자전거 수리점을 자전거포라고 했어요. 간판이 따로 없고 세로 나무 현판에 ‘전주 1호 자전거포 허가’라는 표기가 있었어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오가다 보면 할아버지가 동네 자전거를 고치시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 바뀌어 있더라고요. 마음씨도 좋으시고 자전거를 아주 잘 고치셨는데.... 아마 살아 계셨으면 아흔 살도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가 없어지고 공업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인후동에는 아중리 지역에서부터 내려오던 냇가가 있었어요. 도마다리, 작은 모래내 다리, 큰 모래내 다리(현 모래내) 복개도로를 따라 쭉 이어지던 물길에 있었습시다. 지금은 복개가 되어 물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복개한 도로를 복원한다면 희미해진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작은 방죽들을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좋고 여름철에 전주가 아주 덥다는데 물길, 자연 생태의 방죽 같은 것이 다시 복원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제 기억 속의 방죽 자리는 형태조차 없어지고 건물과 도로가 차지해서 요원한 바람이라 생각합니다.

저한테 인후동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 군 생활 3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60년을 넘게 살아온 내 고향입니다. 지금의 인후동은 옛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떠난 사람들도 그리워 다시 찾는 곳이 고향이라는데 저는 인후동의 변화를 보면서 살아왔지요. 저는 지금껏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 본능이 자리해 있는 거 같습니다. 옛날의 어려운 시절도 살아봤고 지금은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풍요로움도 좋지만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 이웃들과 친밀했던 인심, 자연의 풍경 등을 생각하면 그 시절이 그리웁습니다.

7) 인후동의 과거와 미래_종광대2구역재개발지역



2019 인후 살이 이야기

성황당 회전 교차로를 돌아 언덕을 따라 오르
면 ‘종광대’라는 이름의 동네가 있다. 최근 전
주시 재개발 관련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언급
되는 지명이지만 일반적으로 전주 시민들에
게는 다소 생소한 지명이다. ‘종광대’라는 지
명은 동초등학교 정문 맞은 편 높은 계단을
따라 오르면 그 유래를 알 수 있다. 이곳은 과
거에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제
를 지내던 연단과 종광대가 있던 곳이다. 본래

이 근처는 전주시 최초의 성황당이 있던 곳으로, 현재도 이 일대에 많은 점
집들이 남아 있다. 노송동을 포함한 이 일대는 후백제 시대 도성 안에서 번
성했던 마을이었고 종광대, 물왕벌, 서낭당 등 역사적 스토리가 풍부한 지
역이다. 그러나 현재는 구도심으로 잊혀졌다가 새롭게 변화될 재개발을 앞



*종광대2구역 재개발 구역

두고 있다. 종광대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171-1번지 일대의 총 310여 세대, 총 3만여㎡ 부지에 지상 15층 규모로 500여 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종광대 일대는 오래된 집들이 많고 지대가 높아 비가 많이 오면 석축이 무너지기도 한다. 이 지역의 석축과 기반이 불안정해서 오래전부터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비어있는 주택들이 많아 치안과 미관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신일중학교와 동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종광대 재개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종광대를 마주하고 있는 동초등학교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교생이 4500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도시 개발 사업으로 상당수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현재는 240여명(2020년기준)의 학생들로 운영되고 있다. 재개발 논의가 오가면서 경제 생활권과 학군에 민감한 젊은 층의 이주가 늘어 현재 종광대는 노년층의 주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종광대 재개발 논의 어디까지 왔나

2006년 국토해양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전주시는 주택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 지구 등 모두 38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이후 해제가 계속되면서 재개발이 본격화된 곳들이 늘고 있다. 아울러 종광대 재개발 사업은 2018년 7월 30일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통과해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³⁾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과 비대위측의 마찰로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종광대 재개발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

평일 낮에 종광대 인근 골목에서 만나게 되는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이거나 주변 학교의 학생들이다. 주로 무료한 낮시간을 보내기 위해 삼삼오오 골목에 모여 담소를 나누시는 어른들이 대부분이다. 동네 어르신

3)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

들에게도 인후동 종광대 재개발은 예민한 화두이다. 골목을 거닐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방앗간 삼거리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종광대 재개발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주민1) “나는 그냥 재개발 안했으면 좋겠어. 하지 말라고 좀 해봐요.

내가 이 동네 산지가 벌써 30년도 넘었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

주민2) “그래도 동네가 심난하니 언제까지 이려고 있어.

개발하면 좋지 왜그랴.”

주민3) “그 보상금 나오면 얼마나 된다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 돈으로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린슈퍼’/ 전주시 덕진구 반태산길 72

그린슈퍼 이야기

종광대와 기자촌 지역은 재개발을 앞두고 동네 주민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현재는 대낮의 골목길에도 사람의 발길을 찾기가 힘들다. 점점 이웃들이 떠나고 골목이 잊혀져 갈 때,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서 종광대를 지키고 있

는 사람들이 있다. 벌써 40년 넘게 인후동 옛 골목을 지키고 있는 ‘그린수퍼’ 조순자 사장님은 인후동과 중광대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몇 안되는 주민이다.

중광대와의 인연, 70년대 중광대 풍경

제가 1977년도에 완산구 투구봉에서 살다가 가게 자리가 났다고 해서 우리 큰딸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벌써 이 동네에 이사 온지 50년이 다 되어가요. 우리가 이사왔던 그 시절에는 동네에 큰길도 없고 구루마 다니는 길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차들도 없었고 저 방앗간 길 앞에서 물건 떼다가 구루마로 실어다 날랐어요. 그 뒤로 가게 앞에 이 길이 났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이사하던 날이 12월 3일이었는데 눈이 녹아서 팔죽 끓여 놓은 것 마냥 길이 질퍽질퍽했던 기억이 나요. 이삿짐을 방앗간 앞에 푸고 골목 안쪽 집까지 리어카로 날랐어요.

새집으로 이사 한다고 광목에다 풀 먹여서 깨끗이 바느질한 훌청 이불을 머리에 이고 왔는데 동네 집들이 ‘옴팡집’⁴⁾이라 지붕이 얇아서 전기줄에 각 걸려 철푸덕 떨어져버렸어요. 그날 질퍽한 길에 이불 떨어 진진 내가 죽어도 안 잊혀요. 그렇게 집을 풀고 난생처음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상호도 없이 그냥 ‘담배집’이라고 불리었어요. 안쪽 골목에서 가게를 23년 정도 하다가 그 후에 도로가 나면서 현재 자리에 가게를 지어서 슈퍼를 시작했어요.

그 시절 동네 슈퍼 이야기

제가 처음 동네 슈퍼를 시작할 때만해도 이 골목에 가게가 다섯 개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만 남았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보니까 저기 방앗간 위에도 가게가 하나 있었고 우리 옆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가게가 제일 컸어요. 그때는 ‘담배표’⁵⁾가 중요했어요. 거리 제한을 두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담배표가 있어야 유리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가게만 담배도 팔고 공중전화도 있어서 우리 가게 손님이 제일 많았어요. 그 시절에는 동

4) 작은 초가집

5) 담배판매권/소매인이 일정한 지정거리 안에서 담배 판매가 가능한 권리

네에 집들이 다다다닥 붙어서 사람들도 많이 살았어요. 지금은 집만 많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시절에는 다들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연탄도 낱장으로 두 장씩 사던 시절이에요. 그마저도 연탄을 못 사면 밥을 못 지으니까 더러 굶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 때라서 밀가루도 포대로 못 사고 저울에 달아서 조금씩 사다가 수제비 해먹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큰 항아리 독을 땅에다 묻어두고 매일 쪼불을 태워서 소독한 다음에 매일 주조장에서 술을 받아서 팔았어요. 그때 동네 애들이 주전자 들고 막걸리 심부름 많이 오고 그렸어요. 그 당시 막걸리 한 주전자에 30원 정도 했어요.

저녁 5시쯤 되면 동네 사람들이 바가지를 들고 와서 두부하고 콩나물을 사러 왔어요. 그때는 비닐봉지가 흔하지 않아서 손님들이 바가지에 콩나물 10원어치, 20원어치씩 사 갔어요. 손님들이 바가지를 안 가져오면 종이봉투에 담아 줬는데 우리가 갈색 밀가루 포대를 풀어서 가위로 재단하고 모서리에다 풀 붙여서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김장철이 되면 배추도 밭떼기로 사다가 저 방앗간 앞까지 차가 와서 퍼 놓고 가면 리어카로 실어 다가 팔고 집집마다 배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장사한 덕분에 우리 애들 다 가르쳤어요.

우리 가게는 도토리묵이랑 청국장 찾는 손님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재미로 집에서 끓여보니까 맛있어서 손님들한테 팔기 시작했어요. 도토리묵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가을이면 우리가 지리산까지 가서 도토리 주워다 팔았어요. 지금은 불법이지만 옛날에는 새벽부터 지리산에 가서 도토리 줍느라 밤에 오고 그랬어요. 도토리묵은 항상 없어서 못 팔았어요. 이제는 중국산도 많이 팔고 하니까 찾는 사람이 줄었어요.

지금은 콩나물이나 밀가루 사러 오는 사람은 없고 이제 동네 할아버지들이 담배랑 술 이나 사러 와요. 공산품 찾는 손님은 이제 거의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서 옛날처럼 동네 슈퍼에서 미원이나 간장 같은 걸 사가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에 물건을 가져다 놓기도 힘들어요.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안 팔리면 재고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이 동네에 과자 사 먹는 애들도 없어요.



재개발 사업, 여전히 남겨진 과제들

이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 년이 다되어가요. 처음에는 개인이 한다고 해놓고 한 번 엮어졌어요. 시 허가는 받았는데 주민들 협상이 잘 이뤄져야지요. 이 동네는 집들만 많지 실제 사람 인구수는 얼마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려고 하지 이런 동네에 살려고 안 해요. 이제 ‘그린슈퍼’도 재개발로 철거되면 이 가게도 닫아야 해요. 이제 제 나이도 여든인데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아서 외상 준 것도 가끔 까먹어요. 물건 재고 확인해서 주문도 해야 하고 쌀이랑 소금도 배달해줘야 하는데 혼자서 힘들어서 우리 큰딸이랑 사위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새벽마다 청국장 삶고 도토리묵 찌느라 밤이면 쓰리지듯이 자요. 우리 딸이 저보고 일중독이래요. 저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딸은 빨리 아파트가 들어서야 가게를 접을테니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여기가 더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대로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마음들이 복잡해요. 그것도 아직 보상 문제가 남아서 아파트는 아직도 먼 이야기 같아요.

종광대를 나오며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사장님께서 매일 만드시는 국산 도토리묵 맛이 궁금했다. 먹어 본 묵 맛은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이 묵 맛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 더 귀하고 맛나게 느껴졌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곳은 낙후되어 밀려나고 또는 재개발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도시의 섭리일 것이다. 이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종광대의 모습은 몇 년 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광대는 인후동의 성장하는 내일이 될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인후동의 종광대를 다시 돌아봐야 할 이유다.

이해관계의 집

IV

사람들



이명연_인후문화의집 초대관장

인후문화의집 초대관장 역임(2003~2004)
전주시의회 의원(7, 8, 9, 10 代), 전주시의회 의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
제11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의원



인후문화의집의 문을 열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내 고향과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갚으면서 살라고 가르
쳐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
게 되면서 동네 자율방범대원부터 북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거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후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던 시기에 인후동이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전주시의 가장 마지막 문화의 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우리 동네를 위한 문화시설이니 자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응모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행정학을 전공하고 연극을 한 덕분에 문화 기획안 작업을 맡게 되었고 다행히 준비했던 기획안이 통과되어 저희 주민 자치위원회가 수탁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화의 집의 운영을 맡아서 해줄 관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기획부터 맡아서 준비해왔으니 관장도 직접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개인 사업으로 통신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비상임직에 월급 90만 원 정도의 관장직을 맡아 달라고 하니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후동을 위한 봉사직이라 생각하고 관장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박봉이다 보니 다른 지원자가 없어서 제가 인후문화의집 초대관장이 되었고 직원 2명과 함께 인후문화의집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후문화의집 운영 당시의 지향점

제가 인후문화의집의 관장을 맡았던 2003년은 전주시의 문화공간이 아직 많지 않았던 시기였고 점차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화의 집 강사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는데 강사님들과 저희는 수익성보다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교육을 보급하는데 더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교육을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하고 보급하는데 의미를 두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연극의 추억, 고마운 강사님들

문화의 집 관장으로서 처음 해보는 문화사업이라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연극을 했던 사람이라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지역민들에게 연극 프로그램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지역주민들과 연극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료 프로그램이어서 그랬는지 참여율이 저조해서 2개월 만에 접게 됐습니다. 기획한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제 역량이 부족해서인가 싶어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초창기 인후문화의집을 함께 시작한 강사님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분

들 중에 중국어 강의를 해주셨던 조선족 여성 강사님 한 분이 떠오릅니다. 중국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한국 남편과 재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분이셨는데 남편이 경제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아서 본인이 중국어 교육을 하고 싶다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 수강생들을 모집해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강사님께서 ‘그 당시 한국살이가 무척 힘들었는데 인후문화의집에서 중국어 강의 하면서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었다.’ 고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 분은 동화구연 수업을 하셨던 강사님으로, 당시 남편의 사업실패로 힘들었던 시기에 우리 문화의 집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화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뿐만 아니라 강사들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전주시문화의 집,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성장

저는 예전부터 문화의 집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왔습니다. 보통 문화의집이나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기관이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요자들의 제안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은 얼마나 있을까요. 특별하고 거창한 사업보다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집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영해야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처럼 66만 인구의 도시에서 6개의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부족하고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도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당연히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좋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문화의 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배영태_인후문화의집 운영위원장

인후문화의집 운영위원장
돼지저금통 운영(2009~ 현재),
인후사랑회 회장(2019~ 현재)



인후동과의 인연

20여 년 전에 인후동에서 몇 년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2011년부터 지금의 식당(돼지 저금통/인후 1가 773-9)을 운영하면서 인후동과 인연이 깊어졌어요. 저는 제가 수익 활동을 하는 지역에 조금이나마 환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활동이 ‘인후사랑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인후 동민의 날’ 행사와 안골 콘서트 추진위원회를 통해 인후문화의집과 협업을 해오면서 그 인연으로 지금은 운영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문화의 집 운영 예산과 프로그램 의결을 통해 운영을 조율하는 일이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와 문화의 집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으로서 주민의 여가와 문화생활이 우리 동네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동네에 문화의 집이 있는 덕분에 첫째, 주민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인후문화의집은 독창성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 몫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후문화의집 프로젝트는?

우리인후동 행사 때마다 오프닝 공연을 맡아주는 천둥소리 풍물동호회와 아이부터 성인까지 온전히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인후문화의집에 바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0인치 화면으로 게임을 하게 해주거나 실내 암벽등반처럼 몸을 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활동과 게임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게임하지 말라는 잔소리보다는 건강한 환경의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 **IT 관련 프로그램:**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과 유튜브 업로드 관련 교육과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이 채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체험도 해보고 '1인 기업인'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 **차 없는 거리 행사:** 차 없는 거리행사를 주기적으로 운영해서 문화의집 수강생들과 지역공방들 작품을 같이 홍보하고 전시 • 판매하면 지역골목 상권도 살아나면서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인후 버스킹:** 거리에서 지역 정치인과 지역 주민들이 정책 토론회를 한다거나 재능기부 형식으로 골프 원 포인트 레슨도 하면서 인후동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곽민중_인후1동 주민자치위원장

인후1동 주민자치위원장(2019~현재)
주) 비앤디 대표, 인후1동 마을계획 추진단장



인후1동 속의 인후문화의집

저는 인후문화의집 초대관장님이었던 이명연 의원님의 권유로 2016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2019년부터는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후1동 마을계획 추진단장으로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을 마을 주민들과 실정 조사하고 토론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바라본 인후문화의집은 우리 인후동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더불어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시사에서 인후문화의집 주관으로 했던 행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공연을 위한 무대와 체험 부스를 설치해서 진행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인후1동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집은 문화 소외계층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듯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지만 문화 소외계층들에게는 그것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후문화의집이 문화 소외계층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후동에 맞는

문화기획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

인후동은 신규 유입 인구도 많고 50~70년 이상 거주해왔던 토박이들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령기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기획해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교육을 접해본 사람들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강생들이나 문화교육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문화의 집의 관계

문화는 행정의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의 집은 중앙 정부의 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면 문화가 아니라 획일적인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지역민에게 놓아주고 지역민들 맞춤으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원하는 문화 욕구는 다를 수 밖에 없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지역 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범죄율도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인숙_‘여미다’ 패브릭 공방

‘여미다’ 패브릭 공방 운영(2018~)
프랑스 자수 ‘쏘잉매직’ 동아리 운영
‘1+3평, 막무가내 가드닝’ 프로젝트 참여



패브릭으로 다시 꿈꾸다.

15년 전부터 옷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서 전북 여성회관에서 옷 만들기 강좌를 2년 정도 수강했던 적이 있어요. 그 뒤에 첫아이를 임신하고 키우면서 잠시 쉬었다가 이후 문화의 집의 패브릭 강좌 덕분에 다시 취미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문화의집 실장님께서 이 ‘미녀와 봉틀’ 동아리를 제안하셨고 문화의 집에서 동아리 회원 모집



지역주민 체험부스운영

공고와 홍보를 해주셨어요. 저희 동아리는 누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패브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초보자, 경험자 구분 없이 다 함께 서로 성장하는 관계로 시작했어요. 서로의 작품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극도 받으면서 함께 성장했어요. 오히려 강사님에게 교육 받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후문화의 집과 함께해온 시간들

저는 문화의 집에서 재봉틀뿐만 아니라 수채화 강의도 관심이 많아요. 패브릭 공예 작업에서 식물과 꽃 자수 놓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의 구조나 형태를 익히고 싶어서 보태니컬 프로그램도 참여해봤어요. 보태니컬은 식물 하나를 세밀하게 본다면 수채화는 그림의 구도나 배치를 익힐 수 있어요. 저는 패브릭 천도

하나의 캔버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에 구도를 잡고 자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패브릭 작품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모방하기보다 본질적인 이해를 통해 저만의 작품을 하고 싶어서 항상 연구하고 더 배우려고 해요.

인후문화의집에서 제가 좋아서 취미로 해오던 패브릭 공예를 지역주민들과 플리마켓과 인후 동민의 날 행사에서 체험 부스로 운영하기도 했어요. 끈으로 묶는 스트링 주머니에 염색용 크레용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자기만의 주머니를 만드는 체험도 하고 청바지 업사이클링 작업으로 브로치 만들기를 하면서 인후동 주민들과 즐거운 경험을 나눴어요.

패브릭 공예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끈기를 가지고 배우

는 것은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장 이익만 얻어가려고 하시거나 시큰둥하고 열정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운전면허 취득했다고 처음부터 운전 잘하지 못하잖아요. 재봉틀도 작동법만 배웠다고 다가 아니예요. 내 손으로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강사로서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물어보신 것 이상으로 알려주고 싶고 더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작업실 공방

집에서 취미로 패브릭 공예를 하다 보니 항상 집이 산만하고 작업의 능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독립된 공방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커서 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공방을 열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은 휴식과 일을 분리할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막상 공방을 운영해 보니 일반 소비자분들이 핸드메이드와 공장 시제품의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아요. 기계식으로 대량 찍어내는 시제품과 달리 개인공방에서는 저처럼 혼자 모든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여미다 공방 내부모습

에 없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외면하는 소비자들을 만나면 참 안타까워요.

내 삶을 변화시킨 인후문화 집

저는 인후문화의집에서 취미로만 생각했던 분야를 제 경력과 직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보통 다른 문화교육기관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그치는데 인후문화의집은 제가 가진 재능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셨고, 덕분에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으니 지치 않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박미라_‘개미공방’ 목공예공방

인후동 희망목수 1.2 기 참여, 개미 공방 운영(2018~ 현재)



인후문화의집에서 시작된 목공과의 만남

2014년에 인후1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다가 문화의 집에서 목공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봤어요. 제가 그 전부터 목공에 관심이 있었는데 현수막을 보니 이번 기회에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는 언니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가 목공 수업에서 처음 만들었던 작품은 스톨 의자였는데 강사님이 가구를 만드는 기본 준비부터 설계 디자인들까지 손수 해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 주셨어요. 강사님이 재단을 해주면 저희가 직접 사포질부터 시작해서 조립하고 페인트칠하고 말리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다 해봤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시간씩 작업을 하다 보니 한 작품을 완

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달씩 걸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희 목공 프로그램은 내가 갖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목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당시, 제 나이가 40을 넘기면서 인생을 새롭게 시도 해보고 싶은 시기였어요. 때마침 인후문화의집에서 목공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목공을 하면서 제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제가 땀 흘린 과정으로 완성된 작품을 보면 뿌듯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음 해에 다시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는 강사님을 도와서 초보자분들을 돕기도 했어요. 그 수업은 폐자재로 업사이클링한 목공품을 좋은 곳에 기부하는 프로



똑딱똑딱 인후목공제작소 프로그램운영

그램이었는데 버려지는 가구들을 새롭게 만들어 초등학교 도서관 벤치를 만들어서 기증한 적도 있어요. 작품을 완성해서 필요한 곳에 보낼 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취미가 직업으로 '개미 공방'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통해 목공을 취미로 배우다가 욕심이 생겨서 전문적으로 더 배우기 위해 강봉석 강사님 공방에서 전문가 과정을 시작했어요. 무거운 목재를 들어 나르고 위험한 기계들을 다루는 일이 무섭기도 했지만 목공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재밌었어요. 선생님의 공방에서 교육을 마치고 막상 제 공방을 열려고 하니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고 작은 공방에서 1200x2400 사이즈의 목재를 손질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장비는 주로 중고 구입하고 선생님의 공방에서 1차 재단을 해서 옮겨다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방을 운영하는데 수익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다면 저는 아마 공방을 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주로 콘솔이나 책상, 선반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침대 같은 큰 가구도 제작 의뢰하시는 손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기초과정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방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목공은 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수강료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직접 침대도 만들어 가신 분도 있어요.

작년에는 인후문화의집에서 제가 운영하는 목공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도 했어요. 기본 설계부터 목공 작업까지 하면서 참여자들이 무척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목공 프로그램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아쉽게도 다음 학기 수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후문화의집은 저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준 고마운 곳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재능기부나 봉사도 하고 싶어요.

이명주_‘다현꽃담’ 공예공방

캘리그래피 강의, 수묵 일러스트 강의
다현 꽃담 공방 운영



캘리그래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그림이 좋아서 다시 늦은 시기에 미술 조형학과에 편입학을 했어요. 다시 대학에 가서 수묵을 중점으로 배우고 졸업했어요. 제가 아이가 다섯인데 그 당시 아이가 어릴 때여서 아



이가 보채면 유모차에 태우거나 등에 업고서 문인화 난을 치기도 했어요. 아이를 키우며 공부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림이 좋았어요. 하얀 종이에 먹이 스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마치 하얀 화선지를 나르는 붓이 된 것처럼 행복했어요. 하얀 화선지 위의 먹이 제 삶의 한 줄기가 되어줬어요. 그 매력에 빠져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캘리그래피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붓을 잡아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캘리그래피를 시작하게 됐어요. 캘리그래피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는 지금처럼 강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림이 좋아서 했던 일이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아니었는데 주변에서 강사로 가르쳐 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인후문화의집에서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인후문화의집과의 인연

제가 인후문화의집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기 성은숙 실장님과의 인연에서 시작됐어요. 실장님은 제가 강사를 시작하게 전부터 저에게 관련 자격증을 배우고 자기 계발을 열심히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기존에 인후문화의집에서 캘리그래피 프로그램을 하셨던 강사분이 그만두시면서 제가 그 자리에 지원하게 됐어요. 처음 수업을 하다보니 초창기에는 수업자료를 회차마다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얼마 못가서 프로그램의 구성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만의 교재를 만들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캘리그래피 1급 강사 준비하던 시절부터 해왔던 저만의 글씨체들을 모아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하나의 서체만 가르치는 편이 더 쉽고 편하지 않냐고하시는데 저는 이왕이면 수강생분들에게 다양한 서체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캘리그래피에 그림을 더하다

캘리그래피는 그림과 접목해서 작업할 때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캘리그래피 수업을 하시는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함께 수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프로그램 2시간 안에 그림과 글씨까지 같이 지도하기에는 무리였어요. 그래서 글씨와 그림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 캘리에서 수묵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따로 운영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글씨와 그림을 더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수강생분들도 더 만족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

작년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분들과 2020년 캘리 달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수강생 10여명이 각자 나만의 그림과 글씨로 탁상용 달력 12개월을 꾸미는 작업이었는데 그림과 글귀를 골라 작품을 완성하는데 4주 정도 걸렸어요.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은 드렸지만 열 두달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작년 연말에 인후문화의집에서 수강생들의 캘리 달력을 문화의 집 올라오는 계단에 전시해주셨어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수강생들의 작품이잖아요.

캘리 작품 퍼포먼스도 기억에 남아요. ‘인후문화의집에서 꿈을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커다란 화분에 꽃들을 가득히 그려서 인후문화의집이라는 공간에 오시는 수강생분들을 꽃으로 표현했어요. 그런 퍼포먼스는 처음 제안해봤는데 기대보다 반응이 좋아서 보람 있었어요.

박혜란_힐링요가, 테라피요가 대표

힐링 요가, 테라피 요가 강의
푸루나 요가센터 원장, 한국 요가 협회 전주 푸루나 요가 지부장



말아서 지금까지 10년 정도 하고 있어요.

요가를 하며 만난 사람들

전주시 주민센터 공무원인데 휴직계를 내고 우리 요가 프로그램에 수강생으로 왔던 분이 있어요. 한동안 다니시다가 복직하느라 요가 수업을 못 나오셨는데 이번에 인후1동 주민센터로 발령받고 오랜만에 저를 찾아 왔더라구요.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줘서 반갑고 고마웠어요. 항상 오전 10시 타임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할머니 7~8분이 고정적으로 오시는데 문화의 집 개관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17년 정도 꾸준히 참여하고 계세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정말 성실하게 와주시고 큰 병 없이 건강하신 모습을 보면 참 다행이다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문화의 집 선배님들이세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마치 펭귄처럼 뒹뒹뒹 걸으실 정도로 거동이 불편했던 수강생 한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자세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 돌리기만이라도 꾸

인후문화의집 담당 프로그램 소개

제가 인후문화의집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맡아서 해온 지 벌써 10년 정도 됐네요. 2010년 3월 즈음으로 기억해요. 원래 문화의 집 개관 당시부터 요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제가 2010년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힐링 요가와 테라피 요가를

준히 해보자고 해서 꾸준히 하시더니 점차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다른 자세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송천동에 있는 아들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도 송천동에서 버스 타고 오셔서 가장 1등으로 출석하세요. 소양에서 우리 요가 프로그램에 오시는 어머니 한 분도 결석 없이 성실하게 오세요.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연락으로 못 오신다고 알려주실 만큼 애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오시면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간식을 꼭 주고 가세요. 요가를 하면서 어머니들의 따뜻한 정이나 마음들을 많이 받아요.

요가의 매력

요가는 건강과 밀접하다 보니 요가를 배워보신 분들은 자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꾸준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가하는 과정에서 동작이 틀어졌는지,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는 않았는지 자세 교정을 해드리면서 스킨십 하고 서로의 호흡을 나누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연대감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 강사는 기술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생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진정성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요가는 수강생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

요가는 새로운 변화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60이 넘은 나이인데 인후 문화의집 수강생분들처럼 저를 기다려 주시고 반가워 해주시는 분들이 어디 또 있겠어요. 큰 변화보다는 지금 나와주시는 수강생분들과 꾸준히 지속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요.

웰빙요가 동작지도



이근순_‘네잎클로버’ 대표

기타공연팀 ‘네잎클로버’
구이 어르신 밴드 ‘이팔청춘 봉사단’ 지도
어르신 노래 교실 강사



인후문화의집과의 인연

제 나이 49살, 한창 좋았던 시절에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힘든 마음에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걱정하던 후배가 인후문화의집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으니 같이 가지 않겠냐며 제 손을 끌어주었습니다. 그 당시 인후문화의집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기였는데 25명 정원에 40명 가까이

지원할 만큼 인기가 높아서 간단한 오디션을 보고 선발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만돌린이라는 악기가 생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쿨렐레처럼 작은 악기인데 기타 반주와 잘 어울리는 악기입니다. 전주시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인후문화의집이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은 전주시에 있는 만돌린 공연팀이나 다양한 기관의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후문화의집 운영을 맡고 계셨던 홍성렬 관장님께서 예술 공연에 관심이 많으신 덕분에 저희 공연팀을 위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신 덕분입니다.

어릴 적부터 꿈꾸던 음악

저는 학창 시절에 기타 연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넉넉한 부모님 밑에서 부유하게 자란 덕분에 피아노도 오랫동안 배웠고 평소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

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후문화의집에서 10명 남짓한 수강생들과 박성만 선생님께 통기타 수업을 배우면서 기타 연주와 노래도 부르는 통기타 연주팀 ‘네잎 크로바’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 공연팀이 많지 않았던 시기여서 저희 팀은 인후문화의집 행사뿐만 아니라 단오날 행사, 비빔밥 축제, 소리 문화 축제, 거리 버스킹 공연을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꿈을 키우기 위한 노력

공연 경험이 늘면서 공연에 대한 제 꿈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타나 노래 강의도 찾아서 듣고 서울까지 레슨받으러 다니면서 더 많이 배우고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음악에서 실기만큼 이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난타 공연 붐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 난타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난타 프로그램이나 기타 연주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라고 기관 관계자들의 권유도 받게 되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 강사를 하며 만난 사람들

저는 교도소에서 재소자 대상으로 기타 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여성 재소자들에게 기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제

가 교도소에 기타 연주와 노래 수업을 하러 가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미리 악보도 외워올 만큼 다들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한번은 ‘얼굴(신기복 노래)’이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누군가 하나 울기 시작하니 다들 따라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음악으로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수업에 참여했던 재소자 중 한 분께서 ‘선생님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라며 달력에 편지를 써서 보내줬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참 행복하고 보람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과 노래 교실 수업을 하면 사계절 반찬 걱정이 없습니다. 쌀과 고추장, 된장, 김치까지, 수업 다녀오는 날이면 항상 제 차에는 선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벌써 9년째 완주군청에서 할아버지들로 구성된 ‘이팔청춘’ 밴드공연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흘러간 옛 노래들로 공연을 해서 완주군 행사에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인후문화의집에서 주관하는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모금행사 공연 ‘사랑 콘서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거리 공연을 하지 못하지만 1년에 네 번씩 정기적으로 거리 공연도 해왔습니다. 저의 재능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인후문화의집에서 만들어진 공연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마음입니다.



사랑의 하모니와 함께하는 난치병 어린이돕기 사랑콘서트

나의 친정같은 인후문화의집

제가 남편을 잃고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저를 인후문화의집으로 이끌어 준 후배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만약 그때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참 힘든 시기를 더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인후문화의집에서 만들어진 수업을 듣고 이후에 네요 크로바 공연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분들이 인후문화의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후문화의집의 작은 도서관에는 좋은 책들도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으니 여러분도 배우고 노력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었을 때 인후문화의집을 만나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후문화의집 근처를 지나갈 때 문화의 집 간판만 바라봐도 마치 친정집처럼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 노년기에 접어들어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어르신들과 즐겁게 음악 수업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의미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문화의 집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배우고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켈리 작품 퍼포먼스도 기억에 남아요. ‘인후문화의집에서 꿈을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커다란 화분에 꽃들을 가득히 그러서 인후문화의집이라는 공간에 오시는 수강생분들을 꽃으로 표현했어요. 그런 퍼포먼스는 처음 제안해봤는데 기대보다 반응이 좋아서 보람 있었어요.

곽삼례_천둥소리 대표

‘천둥소리’ 풍물 동호회 회장
난타 프로그램 강사



저는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은 편이었는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힘든 일 하지 말어라. 우리가 너 하나 시집은 보내줄테니 힘들게 직장 생활할 거 없다.’ 하셔서 젊은 시절에 사회 생활도 못해보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만 살았어요. 그러다 막내딸이 세네살 무렵에 인후1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는데 장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무작정 막내딸 손을 잡고 풍물연습실 구경을 갔어요. 연습실의 시끄러운 악기 소리에 저희 딸은 싫어 하더라구



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어서 어린이집만 가거라. 그러면 이제 나도 여기 와서 신나게 배워야지.”

그렇게 1년을 꼬박 기다렸다가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켜놓고 바로 풍물 교실에 왔어요. 어린이집이 쉬는 날에는 회원분들이 연습하면서 같이 봐주시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저희 아이가 그 난장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연습 마치고 사람들과 점심도 먹고 같이 어울리면서 제 삶의 힐링이 된 것 같아요. 풍물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참여하느라 집에서 지낸 시간보다 여기서 보낸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것들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여기 인후문화의집에서 비즈 공예, 스포츠 댄

스, 난타 프로그램도 배우고 풍선 아트를 배워서 우리 아이 유치원 졸업식 때 풍선 아트로 장식도 해줬어요. 그때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줘서 저도 보람있었어요.

풍물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만 살았어요. 예전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 키우고 살아야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저는 원래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걸 잊고 살다보니 제 삶이 많이 지쳐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풍물 소리를 듣고 제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제가 풍물을 시작하면서 제 삶도 변하게 됐어요.

제가 풍물을 시작한 덕분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려 살면서 제 얼굴에 웃음이 돌아

오니까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구요. 엄마가 행복해지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면 아이들에게도 그 표정이 읽히더라구요. 저는 밖에서 풍물 연습하느라 시간 보내고 돌아오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주지 못한 만큼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그 당시 풍물을 시작한 덕분에 아이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도 더 화목해졌어요.

저희 ‘천둥소리’는 인후1동 주민자치센터 풍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1999년도에 만든 풍물 동아리예요. 저희처럼 풍물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오셨다가 ‘천둥소리’ 동아리 회원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인후1동에서 하는 행사마다 오픈 공연을 맡아서 해왔어요. 벌써 제가 20년 넘게 풍물을 해오다 보니 이제는 거의 모든 가락과 사물 악기를 골고루 다룰 줄 아는 편이에요. 처음 5년 정도는 그저 배우러 다니고 즐기는 수준이었다면 그 뒤부터는 조금씩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치배(악기 연주자)뿐만 아니라 풍물의 전반적인 일에 관심이 생

겼어요. 그래서 열두 발도 배우게 됐고 춤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렇게 열심히 배우다 보니 지금은 다른 수강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인후문화의집에서 풍물 동호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끔은 힘이 부치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고고 장구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있어요. 저는 장구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잘나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수강생들보다 먼저 오랫동안 해왔던 분야를 소개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수강생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저도 행복해요. 제가 인후문화의집에서 풍물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가요. 저의 힘든 시간을 치유해주고 오늘날 저의 일과 사람들을 있게 해준 감사한 곳이에요. 저에게 이곳은 마음속에 또 다른 집처럼 느껴져요.



한혜정_‘전주만돌린앙상블’ 대표

전주 만돌린 앙상블 연혁

2004/전주만돌린앙상블 창단, 2010~2016/정기연주회

2018~2019/수상한 만남 ‘만돌+니카’콜라보 콘서트



음악과 함께 하는 삶

저희 아버지께서 학교 교직에 계셨는데 그 당시 저희 집에 젊은 음악 선생님께서 하숙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어려서부터 음악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주여고 3년 동안 합창단 활동을 정말 즐겁게 했는데 지금도 그 시절 친구들과 추억이 많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대를 다니던 70년대 초에는 3년간 전주 시립합

창단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결혼도 하고 남편 따라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 교직도 그만두고 엄마와 아내로만 살았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아이 키우는 평범한 엄마들처럼 다른 엄마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인후문화의집에서 '만돌린'이라는 악기를 배우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004년, 그때만 해도 만돌린이라는 악기가 생소할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만돌린 악기 소리를 듣고 그 매력에 빠져서 고민도 없이 바로 시작하게 됐지요. 만돌린은 이탈리아의 민속악기로 기타와 비슷하게 생긴 모양인데 몸통 뒷면이 아몬드처럼 둥글게 생겼어요. 이탈리아어로 아몬드를 뜻하는 말이 '만돌라'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돌린은 만돌라, 만도 첼로, 만도 베이스로 구성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기타 연주와 아주 잘 어울리는 악기예요. 제가 만돌린을 연주해보니 만돌린은 시니어에게 정말 좋은 악기예요. 연주할 때 지판을 잡다 보면 손가락에 힘도 생기고 악보

를 읽으려고 집중을 하면서 치매에도 좋은 것 같아요. 양손을 쓰는 악기다 보니 두뇌에도 좋고 항상 음악을 가까이 할 수있어서 정서적으로도 좋아요.

전주 만돌린 앙상블을 소개합니다.

저희 전주 만돌린 앙상블은 일주일에 2번 정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은 인후문화의집, 화요일은 우진 문화공간에서 매주 모여서 연주 연습을 해요. 특히 월요일에 연습하는 인후문화의집은 저희에게 너무나 좋은 연습실을 제공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월요일 연습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습하는 날인데 제가 저희 앙상블 악장 겸 단장으로 연습을 지도하고 있어요.

앙상블 회원들과 매주 2번 이상 만나다 보니 정말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나 자식들도 매주 2번 이상 만나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활동하는 회원분들이 24명 정도인데 거의 결석 없이 스무 명 가까이 참석하



고 계세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는 교직 출신인 분들이 많아요. 초대 단장이셨던 정선옥씨도 사범대 출신이시고 올해 새로 들어오신 신입 단원분들도 교직 은퇴하고 오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교사 출신들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은퇴하신 교수님, 공군에서 직업군인 이셨던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만들어진 앙상블에 오시기 전에 오카리나 동호회나 기타 연주팀, 합창단에서 활동하셨던 분도 계세요. 이렇게 회원분들의 이력은 가지각색이지만 만들어진과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겁게 하고 있어요.

만들린 앙상블이 지나온 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요양원에 가서 어버이날 음악 공연 봉사도 하고 전주 교도소에서 재소자 대상으로 공연도 했어요. 그리고 마음사랑병원에서 초청 받아 환자분들에게 공연한 적도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저희를 불러 주시는 곳만 있으면 언제든 회원분들과 열심히 공연을 다녔어요. 저희는 공연이 잡히면 무대에 대한 긴장감 덕분에 오히려 활력소가 돼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즐기고 있어요.

올해는 연초에 신입 단원 네 분이 새로 오셔서 저희 앙상블에 새로운 기운을 돌아 주

셨어요. 기본적으로 악보도 읽으실 줄 아시고 제가 목요일에 추가 연습을 시켜드렸더니 금새 따라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소리문화전당에서 열렸던 희망콘서트 공연 무대도 함께 올랐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많이 취소되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 공연 덕분에 저희가 기운을 낼 수 있었어요.

만들린 동호회 활동을 하며 삶의 변화들

제가 5년 전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할 때도 만들어진 연습을 쉬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고 힘들 때 만들어진 동호회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셨어요. 저는 만들어진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음악은 사람을 늙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제 나이가 올해 71인데 이 나이에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다는 것도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앙상블 회원분들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독서동아리 ‘북마스터 클럽’



‘북마스터클럽(동아리 리더 유영란)
BMC’를 소개합니다.

북마스터 클럽(이하 BMC) 은 2013년 전주 평생학습센터 ‘독서동아리 길라잡이 양성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출발한 동아리이다. ‘북마스터 클럽’이라는 이름은 책과 독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master’가 되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은 초기 회원들과 새로 오신 회원들까지 모두 1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은 주로 60~70대의 은퇴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후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에서 월 2회 정기적인 독서모임을 갖고 있다. 도서 선정은 회원들의 관심 주제나 읽고 싶은 책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동아리 리더가 관련 도서

들을 분기별로 미리 선정해서 함께 읽고 있다. 동아리의 리더인 유영란님은 화가로 활동하는 작가로서 도서 선정을 할 때 예술뿐만 아니라 문학, 인문, 사회 주제의 책들까지 폭넓고 다양한 도서를 소개하고 있다. 동아리 모임은 미리 공지한 책을 읽고 함께 모여서 서로 느낀 감상이나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방식이다. 그리고 모임에 앞서 리더가 도서 내용에 관한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 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때문에 미리 책을 읽지 못했거나 독서모임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BMC 회원들은 독서모임을 통해 은퇴 후 삶의 영혼을 살찌우고 있다고 말한다.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고 편하게 서로의 소감이나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좋아요. 같은 책을 읽어도 읽는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밌어요.”

“책 속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여기 회원 분들에게서 인정과 지지를 받기도 해요. 우리는 모두 책을 좋아하는 공통의 취미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곳에서 서로에게 좋은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콩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됐어요. 여기서 책 읽는 습관이 들면서 모임에서 읽는 책 이외에도 농사와 마케팅에 관련된 책들도 더 찾아서 읽고 있어요. 덕분에 제가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BMC는 정기적인 독서모임 이외에도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다. 전주독서동아리연합회에서 활동하며 최만식 탁류길, 조정래 문학관, 서울 윤동주 문학관, 박경리 문학관 등 다양한 곳으로 문학기행을 다녔다. 문학기행을 통해 작가의 문학세계를 깊게 이해하고 느끼면서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자격으로 독서대전에도 참여해 전국의 다양한 독서동아리들의 사례 발표를 연구하기도 했다.

내 삶의 영혼을 살찌우는 ‘북마스터 클럽’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일과 관련된 전문서적들도 읽고 다른 책들도 찾아보면서 책 읽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저는 새벽이면 혼자서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을 가져요.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좋아했던 술자리도 줄고 덕분에 건강도 얻었어요. 가끔은 책에서 읽은 좋은 글귀들을 자녀들이나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해요. 아이들과 소통이 늘면서 아버지로서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BMC 활동을 하면서 제 삶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동아리에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참 좋았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저 모양이 변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기도 했어요. 그 책을 읽고 우리 회원들과 서로 이야기 나눴던 시간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김동주_모모미술관

삼례문화예술촌 모모 미술관 관장
서양화 화가, 필로소피아 동호회원



‘모모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례예술문화촌 모모 미술관의 관장, 김동주입니다. 저희 모모 미술관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술 전시를 기획 운영하는 지역 미술관입니다. 주로 우리 지역의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작품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관의 이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관람객분들이 많으신데 ‘모모’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하엘 엔데의 ‘모모’ 책 속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공간이 되고 싶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작가들의 ‘이모저모’를 알리고 싶다는 뜻에서 ‘모모’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인후문화의집과의 인연

저는 서양화를 전공해서 그동안 개인전과 아트페어 활동을 해왔고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미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인후문화의집 성은숙 실장님께서 평소 책을 좋아하던 저에게 ‘필로소피아’ 독서 모임을 추천해주셨어요. 덕분에 필라소피아 독서모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인후문화의집 작은 도서관에서 7~8년째 독서 모임을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는 모두 40~50대 여성으로 평범한 가정주부, 피아노 전공자, 컴퓨터 전공자, 철학전공자까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을 통해 같은 책을 읽



모모 미술관 전시실 내부

고 서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저희 길라잡이를 해주고 계신 황희정 선생님께서 좋은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게 이끌어 주고 계셔서 지금까지 잘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필로소피아 독서 모임 이외도 인후문화의집과는 미술 관련 프로젝트로 서로 협업하기도 해요.

문화 예술이 지역 사회와 어떤 관계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

저희 모모 미술관처럼 지역기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은 대형 기획을 하고 싶어도 지원금의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저희는 사립 미술관과 달리 공간 대여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

아요. 그리고 저희는 전시 의뢰가 아닌 기획전시다 보니 전시 주기가 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 지원금이 여유롭다면 다양한 작가를 섭외할 수 있고 규모있는 전시와 다양한 홍보도 해줄 수 있을텐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 재능있는 작가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작품을 더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느라 작품 활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작가들을 더 많이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 지역 예술을 성장시키는 첫걸음

문화 예술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외에서 아트페어 전시에 참여했을 때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와서 전시를 구경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원하는 작품은 부모의 일부 도움을 받아 직접 구입하는 모습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예술 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직접 소비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 작품을 감상의 목적보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

아요. 이름있는 대학 출신의 화가나 유명 타이틀이 있는 화가들의 작품이 아니면 소비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전업 작가들의 생계가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안목을 키우면 어른이 돼서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을 소비하는 주체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 예술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예술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술관을 운영하다보면 기획전시뿐만 아니라 체험과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느껴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어린이 전용 미술관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미술관을 즐기는 기본 에티켓이나 작품에 대한 해석을 주입식으로 알려주기보다 스스로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미술사의 발전은 감상자들에 의해서 성장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 예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의 집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의 공간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아름_인후문화의집 기획팀장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너 지역문화인력양성과정 한 번 들어볼래?
생활문화매개자 과정인데 너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문화가 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문화?
그래서 그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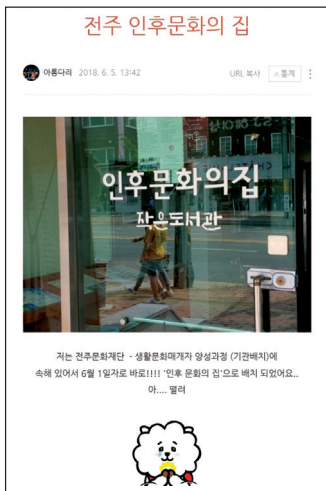
2018년 당시, 나는 여행에서 막 돌아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던 시기였다. ‘늦은 나이지만 서울로 올라가서 배우를 준비해볼까? 1년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하나?’ 그 때 마침 처음 뮤지컬에 발을 디딜 때부터 알고 지낸 오빠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20대부터 계속 해왔던 영어 강사 일을 계속 할 건지, 아님 직종 전환을 해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도전하는 문화 관련 일은 어쩌면 되면 좋고, 안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였다. 그 어떤 부담도, 욕심도, 거리낌도 없이 ‘생활문화’에 대한 설렘과 상상만 안고 지금의 인후문화의집에 배정을 받았다.

“인후동? 한 번도 가본적 없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 들었던 생각은 ‘당황’이었다. 전주에 5개의 문화의집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살면서 수능 볼 때만 와봤던 낯선 동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약 1달 동안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분위기 파악도 하고 ‘문화의집’의 과거 행적과 현재 정보를 찾아보고 관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문화의집은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해 왔고 많은 공부가 될



첫 출근의 기록을 담은 나의 개인블로그

요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문화의 직접적 소비자들과 대면해서 만들어 가는 문화는 굉장히 흥미로웠다. 생활문화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문화의 최전선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모든 것이었다.

“사진이요? 어디를요? 인후동에 담긴 우리의 일상을요?”

원래 이 일을 하기 전엔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궁금한 것이 없었다. 무엇이든 나만 잘하면 되고 가까운 친구들 근황도 무관심하며 복잡하게 굴러가는 사회현상도 그저 그러려니 해서 주변의 타박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기획자로 살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모든 행동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낚설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

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부한 것이 아니고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또 다른 시야가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오래된 것을 그저 옛것으로만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할 것인지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하며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생활문화기획자는 이런 숨어있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찾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은 지금 현직에 종사하면서도 나를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깨게 만들었던 사업이 「인후에서 ‘추억’을 나누다」였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 문화기획자로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과 사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별것 아니라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한사람의 인생이자 지역의 역사이자 기록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도 문화기획자로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소소한 문화적 행복을 찾아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기획자 한아름’에게 기대해본다.

오충렬_전주시 평생학습관

소속: 전주시 평생학습관

업무: 시민 인문학과 인문 세미나 기획 운영

저서: 나는 자출사다 /2018 /북컬처



니다. 그래서 저는 인후문화의집을 떠올리면 편안한 공간이라고 느껴집니다.

문화기획 실무자로서 바라본

인후문화의집 프로젝트들

인후문화의집을 떠올리면?

저는 인후문화의집을 떠올리면 문화의 집이 위치한 ‘안골’의 지명처럼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인후문화의집은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찾아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며 인후1동 생활문화의 중심축 역할을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후문화의집은 예술 교육이나 다양한 취미 생활을 위한 교육도 일상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특히 작은 도서관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도 좋은 사례로 손꼽을만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인후문화의집 작은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오며 가며 반가운 얼굴들 보러 편하게 다니고 있습

플리마켓

시사재와 육교에서 했던 플리마켓은 저뿐만 아니라 인후1동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후동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음식도 만들어 팔고 동네 공방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역 공동체의 순기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 문화예술캠프

예전에 인후문화의집 3층에서 참가자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도심 속 캠핑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때 참여했었는데 지금도 그 캠핑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낮에는 인후1동 골목을 다니며 동네 투어를 했는데 골목길을 걸으며 인후

둥을 새롭게 보는 경험이었습니 다. 동네 투 어 때 저희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일이 있 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아들이 혼자 있으니 문화의 집으로 말없이 데려가신 바람에 다 른 가족분들과 다 같이 찾아 헤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에는 문화의 집 3층에 가족 마다 텐트를 치고 모여서 가족 장기자랑 무 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는 마을 목욕탕에 가서 목욕 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도시에 살면 서 이웃들과 함께 잠을 자고 아침을 같이 맞이할 일이 흔치 않은데 인후문화의집 덕 분에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실무자 네트워크

전주시의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 는 네트워크 모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인후문화의집, 세이브더 칠드런, 도담지역아동센터 실무 자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지역에 대한 고민 을 나누면서 저희 실무자들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인후문화 의집이 실무자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맡 아 했었습니다. 사실 기관 실무자들은 서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때 업무 추진 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점이 많은 편입니다. 저는 그때 실무자 네트워크에서 함께 했던 공부와 지금도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 고 있습니다.

사람과 공간을 잇다.

제가 평생학습관에서 근무하다 보니 다양 한 활동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 을 이어 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후문화 의집 작은 도서관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 는 독서 동아리 ‘북마스터클럽’과 ‘필로소피아’가 그 예입니다. 그 당시 독서동아리 길 라잡이 양성과정에서 신생 독서 동아리들 이 생겨났는데 안정적으로 활동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동아리 활동 지 원을 해줄 기관으로 인후문화의집을 추천 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니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캠프 ‘끌림’ 참여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Talk Talk 'with 인후, 안녕'



Talk Talk,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

여기 인후문화의집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인후 서포터즈'이다. 문화의집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고민한다. 인후서포터즈들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할 지역주민들과 인후문화의집 운영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무자들과 협의하며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눈다. 지금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인후서포터즈회의

인후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는 모임

“이번에는 패브릭 공예로 우리가 직접 만든 물품을 지역의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니까 리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식에 방향제 재료를 쓰면 향기도 나고 좋지 않을까요?”

“저도 의견 내도될까요? 우리 아이가 안전벨트 할 때 앉은기가 작아서 목이 쓸리거든요. 그래서 배하고 가슴에 삼각형을 크게 만들어서 보호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사용이 늘었으니까 천 마스크랑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면 어때요? 길을 걷다 보면 주머니에서 빠지거나 잃어버린 마스크들이 많이 보여요. 저도 스트랩을 써보니까 마스크도 잘 챙기게 되고 좋더라고요.”

“패브릭 공예 전문가: 면 생리는대는 생각보다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요. 인체에 닿는 거라서 천도 아무거나 쓸 수 없고 바느질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초보들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올해는 친환경 관련된 아이템 위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천 마스크나 면 생리대를 만들어서 주변 여학교에 가서 필요한 친구들에게 선물해도 좋고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스크와 스트랩을 다음 주 모임 때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 해보게요.”

“일단은 천 마스크를 샘플로 하나씩 만들어 보고 대량으로 만드는 문제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스트랩은 코바늘로 새우뜨기를 해서 만든 거예요. 문구센터에서 고리도 사이즈별로 팔고 있어서 만들기도 간단하고 쉬워요.”

인후문화의집 서포터즈는 지역 문화에 관심 있는 참여자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을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올해는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일회용 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00인의 손수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지금은 손바느질 먼 마스크 제작을 추진 중이다. 인후 서포터즈들이 어떻게 만나 함께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인후 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프랑스 자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재능을 쓸 수 있다는 말에 참여하게 됐어요.”

“작은 도서관에서
엄마들과 책 모임을 하면서
인후문화의집을 알게 되었고
여기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인후문화의집에 처음 왔어요. 제가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즐겁게 만들면서 놀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보통 아이 엄마들이나 친구들과 만나면 뻘한 이야기로 수다 떠는 일이 전부인데 여기서는 사람들과 좋은 취지로 만들기 활동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기대돼요.”

“아이 키우며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의미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인후문화의집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만들기하고 재밌게 놀면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만든 것을 기부도 한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태평동에서 켈리와 수제도장 작품을 만드는 ‘탐나랑’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성은숙 팀장님과 인연으로 인후문화의집에서 팝아트와 수제청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요즘 쓰레기 줄이기 활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사업이나 친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추천하고 싶은
인후문화의집 프로그램은?

가드닝

가드닝을 배우면서 간단한 목공과 식물 식재법을 배웠어요. 저희가 배운 가드닝 기술로 우리 동네 노인정 정원을 꾸며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식물 기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유익하고 보람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추천하고 싶어요.



소모임(동호회)공간



여기 인후문화의집은 평소 소모임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 이예요. 저도 이곳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공간을 마련해주셔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소모임을 만들고 활동해 보시길 바라요.

프랑스자수



자수를 배워서 제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정말 행복해요. 동네에서 거리 전시하는 것도 재밌었고 주민들이랑 체험부스 진행하는 것도 보람 있었어요. 그래서 자수 배우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인후문화의집과
'인후서포터즈'

“100인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손수건을 선물하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홍보도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획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졌어요. 안골 사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은 아주 많은데 정작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적은 것 같아서 저라도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기존의 수강생들은 꾸준히 오시지만 새로운 수강생들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저희 같은 동네사람들이 새로운 수강생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후 메이커스 활동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만든 것들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사교의 영역이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이나 우리 지역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현재 줌바댄스나 공연을 위한 교육 공간이 협소해요.

문화의 집은 다양한 연령층이 오는 곳인데 아이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없다 보니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방해가 되고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공간도 마련되면 좋겠어요.”

2020년 새롭게 단장한 인후서포터즈는 ‘함께 꽃 피우는 지역문화’를 운영목표로 18년 동안 성장해온 인후문화의집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꾸준한 기초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 왔고 특화사업발굴, 찾아가는 문화활동, 마을축제 등은 다채로운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며 참여를 촉진시켰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욕구는 더욱 다양해졌고 수강생들 또한 단순 참여자에서 프로그램 제안자, 강사 그리고 공방대표로 성장하며 문화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렇게 성장해온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서포터즈를 구성해 ‘With인후, 안녕’을 목표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전주 문화의집 20년

인후문화의집 편

발행처 | 전주문화의집협회

발행인 | 한천수

편집인 | 고미숙

글쓴이 | 고미숙, 성은숙, 한아름, 고금례, 양지희

발행일 | 2021. 02. 26.

디자인 | ㈜이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전주문화의집협회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